특집1

태권도 가족 1988년도의 설계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각 태권도계에서는 년초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지난해의 사업을 마무리짓고, 새해의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를 앞두고 있는 영광스러운 해로 전 태권도인이 화합과 단결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다짐이 있었다.

대한태권도협회

1988년도 정기 대의원 총회가 1월 22일 오전 11시 체육회관 10층 강당에서 재적대의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김운용회장은 토의사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금년에는 '88서울림픽을 맞아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도약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범종목으로 펼쳐질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받아들여 지는가를 가름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지상과제인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되도록 함으로써 태권도의 세계적 위치 확보를 도모하고 국위선양은 물론 후배들에게 영광의 기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금년에 토대를 다져나아가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토의안건에 들어가서는 198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승인되었고 1988년도 사업계획안과 수지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본회에서는 올해의 사업목표를 첫째, 산하지부 및 연맹 육성 강화 둘째,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강화 세째, 국제대회 파견 네째,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기술개발 다섯째, 태권도 경기용구 개발 여섯째, 태권도 경기용품 품질개선 촉구 등으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기타 토의 사항에 들어가서는 첫째, 태권도 경기규정 중 즉시 득점표시제와 같은 심판규정의 보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태권도연맹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심판규정을 연구해 공청회를 갖는 등 올림픽스포츠로서 손색없는 규정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관중이나 선수 및 심판, 코치 등 모두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경과기간을 둔 다음 내년부터는 모두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둘째, 승품심사제도상 현행의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품자격 인정방식을 국민학교 어린이들과는 다른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해 달라는 일선도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기원에서 작년부터 승품심사제도가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 협회와 국기원이 협조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세째, 지방 태권도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기 쟁탈전과 회장기쟁탈전을 중앙협회 예산하에 지방 시도에서 개최해주

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지방팀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금년 2월에도 대구팀을 이란에 파견할 계획이 있고 또 각종 국제대회에 지방의 태권도인을 임원으로 파견하는 것과 매년 대통령기 대회를 지방순회 경기로 치루는 등 협회사정이 허락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치루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기 대회를 지방에서 개최 할 때 예산을 중앙협회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시도지부의 사업능력이나 명분을 무시한 조치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지원부문이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방대회가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1988년도 기술심의회 임원명단

기술심의회 의 장 : 권경욱
부의장 : 전재규, 김용서
지도위원 : 이용우, 이교윤, 박해만

분 과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기획분과위원장	이승국	이덕태 장순권	강세형, 남상덕, 송승복, 안용구, 이용우
경기분과위원장	김영삼	김기용 최주열	양정승, 박수전, 이상언, 박형원, 김명철, 최영길, 이성용, 배석출
심판분과위원장	안영택	김정대 조호철	이종찬, 김장일, 한상진, 장명수, 장창영
심사분과위원장	김봉기	김용길 최석철	정연주, 윤태기, 김기옥, 이한규, 오수곤
선수강화분과위원장	김경지	유병호 박창덕	황영갑, 정낙희, 김세혁, 이백운, 강성철

분 과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국제분과위원장	박현섭	김종길 김강인	김종명, 이문희, 김동수, 강석한, 공영선
상벌분과위원장	고국환	박용화 최준배	김갑식, 유상철, 선우진, 고재만, 신동우
편집분과위원장	김대연	허지회 배성실	최유신, 배연웅, 조성봉, 김석련, 김영선
여성분과위원장	장정남	서춘희 최종숙	정효심, 안연순, 박정옥, 양일해, 박필순, 김경주, 양인옥

1988년도 사업계획

월	일	사 업 명	장 소
2	3 - 5	국가대표 선수 1 차 선발대회	상 무 체 육 관
	9 - 10	여자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상 무 체 육 관
	11 - 12	국가대표 선수 최종 선발대회	상 무 체 육 관
3	10 - 11	88년도 전국 심판(1, 2, 3 및 코치)보수교육	국 기 원
	21 - 27	전국 춘계종별 선수권 대회	국 기 원
	23 - 25	제 8 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네팔 · 카투만두
4	2 - 11	국제심판강습회	국 기 원
	13 - 15	여자 개인 선수권 대회	국 기 원
	29- 5 / 1	제15회 전국 대학개인 태권도 대회	미 정
5	2 - 7	제15회 중고연맹 회장기 쟁탈 태권도 대회	부 산
	4 - 5	제 9 회 어린이 태권왕겨루기전국국교 태권도 대회	미 정
	25 - 30	제69회 전국 체육대회겸 제17회 전국소년체전	전 주
6	13 - 16	제23회 대통령하사기 쟁탈 전국단체대항전	88 체 육 관
7	18 - 23	제24회 협회장기겸 제15회 중고 연맹개인대회	국 기 원
	30 - 31	제 9 회 체육부장관기타기 전국국교단체대항전	국 기 원
9	17 - 20	제24회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 대회	장 충 체 육 관
10	10 - 15	전국 추계종별 선수권 대회	국 기 원
	18 - 19	제14회 연맹회장기타기전국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국 기 원
	20 - 22	제11회 회장기쟁탈 전국 대학대항 태권도 대회	국 기 원
11	2 - 4	1988년도 전국 남 · 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국 기 원

네째, 국민학교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서 소년체전에 국민학교부 경기가 추가되는 방안마련에 대한 안건이 제기되었는데 협회에서는 금년에 올림픽대회로 인해 통합체전이 열리는 관계로 이문제를 결정보지 못했으나 계속 관계기관과 추진중에 있다고 했다.

다섯째, 태권왕겨루기대회와 같이 T.V 중계되는 경기시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지원을 요청했는데 금년에는 올림픽 시범경기가 남녀 모두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돼 국내는 물론 전세계 T.V, 라디오, 신문매체를 통해 무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여섯째, 실업팀 육성과 원로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대해서는 실업팀 증설이 경제적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기업의 P.R효과와 연계해 생각해 볼 문제이며 더우기 다른 스포츠종목에서 이런 실업팀 육성에 열성을 다하는 만큼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이 문제 역시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태권도계의 선수, 임원, 그리고 원로들에 이르기까지 이상에서 밝힌바와 같은 유효한 노력을 한다면 지금까지 훈·포장을 받은 것이나 또 연금을 받은 것과 같이 바람직한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태권도의 전반적인 위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맹은 2월 1일 국기원 식당에서 세계연맹 이종우 부총재, 김봉식 사무 총장, 송상근 차장, 김병운 차장, 대한태권도협회 엄운규 부회장, 황춘성 전무이사, 국기원 홍종수 부원장, 김순배 기술심의회의장, 이장원 사무국장 등 태권도계 중진인사가 배석한 가운데 '88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 보고회를 가졌다.

세계태권도연맹은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 개최에 따른 참가국 선발, 국제심판선발 및 제16회 국제심판강습회, 세계연맹경기규정개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8올림픽 태권도경기 참가 선발국 현황
   참가 선발국: 남자팀 26개국(128명)
   여자팀 13개국(64명)
2. 88올림픽 태권도경기 국제심판선발
1) 선발방침
- 선발인원: 28명(국내11명, 해외17명)
- 태권도경기참가국 내에서 선발
- 대륙별 배정
- 선발된 심판의 왕복 항공료 및 숙식비 일체를 세계연맹이 부담

2) 선발기준
- 연회비 납부 우수자 중에서 선발
- 모범적이며 국제대회 참가 경력이 많은자
- 언어소통이 원활한자(영어)등 중에서
- 세계연맹이 지명하여 선발함

3. 제16회 국제심판 강습회
1) 일반사항
- 기간: 1988. 4. 2~4. 11(10일간)
- 장소: 국기원 강의실
- 참가비: 미화 300불
- 신청마감: 1988. 2. 15
- 대상: 150명

2) 참가자격
- 국기원 4단 이상으로서 각국 협회장이 추천한 자
- 영어구사 가능한자로서 신체장애가 없는 25세 이상 50세 미만자

3) 기타사항

● 남, 여참가팀 선발현황

지역별	남자			여자		
	선발팀	배정체급	임원배정	선발팀	배정체급	임원배정
아시아지역	Chinese Taipei	3	1	Chinese Taipei	4	1
	Japan	4	1	Korea	8	1
	Korea	8	2	Malaysia	4	1
중동및대양주	Jordan	3	1	New Zealand	4	1
	Iran	4	1			
	Australia	2	1			
	Bahrain	5	2			
	Saudi Arabia	5	2			
아프리카지역	Egypt	6	2			
	Cote d'Ivoire	5	2			
	Libya	2	1			
유럽지역	France	4	1	Austria	4	1
	Italy	7	2	Denmark	4	1
	Netherlands	7	2	Italy	4	1
	Spain	8	2	Spain	8	1
	Turkey	7	2	W. Germany	4	1
	W. Germany	8	2			
	Poland	3	1			
	Yugoslavia	3	1			
	Austria	2	1			
	England	5	2			
	Denmark	2	1			
판암지역	Canada	4	1	Canada	4	1
	Ecuador	6	2	Mexico	4	1
	Mexico	8	2	U.S.A.	8	1
	U.S.A.	7	2	Virgin Islands	4	1
계	26개국	128명	40	13개국	64명	13
후보국	Malaysia			Singapore		
	Colombia			Australia		
	Nepal			France		
	Belgium			England		
	Qatar			Netherlands		
	Kuwait			Brazil		
	Costa Rica					
	Philippines					
	New Zealand					
	Ghana					

● 남자팀 26개국 선발 현황

지역별	남자 선발팀	배정체급	FIN	FLY	BAN	FEA	LIG	WEL	MID	HEA
아시아지역 (3개국)	Chinese Taipei	3	1	0	0	0	0	1	0	1
	Japan	4	1	1	0	1	1	0	0	0
	Korea	8	1	1	1	1	1	1	1	1
중동 및 대양주 (5개국)	Jordan	3	0	1	0	1	0	0	0	1
	Iran	4	1	0	1	0	0	0	1	1
	Australia	2	0	1	0	0	1	0	0	0
	Bahrain	5	0	1	0	1	1	0	1	1
	Saudi Arabia	5	1	0	1	1	0	1	1	0
아프리카 지역 (3개국)	Egypt	6	1	0	1	0	1	1	1	1
	Cote d'Ivoire	5	1	1	0	1	0	1	0	1
	Libya	2	0	0	1	0	1	0	0	0
유럽지역 (11개국)	France	4	0	1	1	0	1	0	1	0
	Italy	7	1	1	0	1	1	1	1	1
	Netherlands	7	1	1	1	1	1	0	1	1
	Spain	8	1	1	1	1	1	1	1	1
	Turkey	7	1	1	1	1	0	1	1	1
	W. Germany	8	1	1	1	1	1	1	1	1
	Poland	3	0	0	1	0	1	1	0	0
	Yugoslavia	3	0	1	0	1	0	1	0	0
	Austria	2	0	0	0	1	0	1	0	0
	England	5	1	0	1	1	0	1	1	0
	Denmark	2	0	0	1	0	0	0	0	1
판암지역 (4개국)	Canada	4	0	1	0	0	1	1	1	0
	Ecuador	6	1	0	1	1	1	0	1	1
	Mexico	8	1	1	1	1	1	1	1	1
	U.S.A.	7	1	1	1	0	1	1	1	1
계	26개국	128명	16	16	16	16	16	16	16	16
후보국 (10개국)	Malaysia									
	Colombia									
	Nepal									
	Belgium									
	Qatar									
	Kuwait									
	Costa Rica									
	Philippines									
	New Zealand									
	Ghana									

- 왕복여비 및 체제비 일체 본인부담
- 강의내용은 일반 체육이론, 태권도이론, 교양과목, 경기규정 및 실기, 체력 단련 및 관광 등으로 구성

4. 경기규정 개정

1) 유효 득점의 즉시 채점 및 이의 즉시표출을 원칙으로 하여 특별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중

2) 기술적인 면에서의 시험기간을 거쳐 1989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중

5. 기타사항

국제지도자강습회개최(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1) W.T.F 규약2조 2항 E.G 항에 의거 실시 계획

2) '89년도 제9회세계대회시 시행이 가장 적절

6. 참고사항

1) 국제초청태권도대회

- 기간: 1988. 2. 9~11(3일간)
- 장소: 이란 테헤란

● 여자팀 13개국 선발 현황

지역별	여자 선발팀	배정체급	FIN	FLY	BAN	FEA	LIC	WEL	MID	HEA
아시아지역 (3개국)	Chinese Taipei	4	1	1	1	0	1	0	0	0
	Korea	8	1	1	1	1	1	1	1	1
	Malaysia	4	1	1	1	0	1	0	0	0
중동 및 대양주	New Zealand	4	1	0	0	1	0	0	1	1
유럽지역 (5개국)	Austria	4	1	1	0	0	0	0	1	1
	Denmark	4	0	0	1	1	1	1	0	0
	Italy	4	0	0	1	1	0	1	1	0
	Spain	8	1	1	1	1	1	1	1	1
	W.Germany	4	0	1	0	0	1	1	0	1
판암지역 (4개국)	Canada	4	0	0	1	0	0	1	1	1
	Mexico	4	1	1	0	1	1	0	0	0
	U.S.A.	8	1	1	1	1	1	1	1	1
	Virgin Islands	4	0	0	0	1	0	1	1	1
계	13개국	64명	8	8	8	8	8	8	8	8
후보국 (6개국)	Singapore									
	Australia									
	France									
	England									
	Netherlands									
	Brazil									

- 주관: 이란
- 참가예상국: 13개국(한국, 덴마크, 터키, 스페인, 폴랜드, 스웨덴, 일본, 터키싸이프러스,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인도)

2) 제1회 아랍 태권도 선수권대회
- 기간: 1988. 2. 24~26(3일간)
- 장소: 에집트 카이로
- 주관: 에집트
- 참가예상국: 10개국

3) 제8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
- 기간: 1988. 3. 23~25(3일간)
- 장소: 네팔 카투만두
- 주관: 아시아연맹(ATU)
- 참가예상국: 25개국

4) 제7회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
- 기간: 1988. 5. 27~29(3일간)
- 장소: 터키 앙카라
- 주관: 유럽연맹(ETU)
- 참가예상국: 18개국

국 기 원

서울올림픽 태권도시범경기 연습장
공사비 1억6천들여 보수공사

우리나라의 고유무술인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여 오는 9월에 서울올림픽대회 시범종목으로서 장충체육관에서 화려하게 그 막을 올리게 되었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인의 메카인 국기원이 태권도경기 참가국들의 연습장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올림픽조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오는 2월 1일부터 3월말, 4월 18일부터6월말까지 두차례에 걸쳐 공사비 1억 6천만원을 들여 보수공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국기원에서 실시하던 각종 경기대회 및 승품단 심사대회는 보수공사 기간 동안에 타경기장에서 실시하게 되고 태권도 지도자연수원에서 실시하던 각종 지도자교육은 보수공사가 완료시까지 연기하게 되었다.

국기원은 개원 당시 대지 2천 2백평, 연건평 1천 2백평, 관중수용능력 3천명으로 태권도 단일종목으로는 국내에서 보기 드믄 대규모 종합수련장이었으나 개원 15주년이 지나는 동안 낙후된 시설의 보수 및 보완이 시급했는데 이번의 대규모 보수공사 실시로 전세계태급도인의 종합수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보수공사는 전기 및 경기장공사, 방송장비개수, 화장실 및 샤워실 · 개수 등이 실시된다.

● 1988년도 사업계획

월	일	사업명	장소
3	19	제1차 고단자심사대회(5·6단)	국기원
6	18	제2차 고단자심사대회(5·6·7단)	〃
9	3	제3차 고단자심사대회(5·6단)	〃
10	20~29	제58기 지도자교육3급(일반과정)	〃
11	8~26	제8기 지도자교육 2급(연수과정)	〃
12	10	제4차 고단자심사대회(1·2·3품)	〃

국기원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기술심의회	의 장	김순배
	부 의 장	강정구, 박명수
기 획 분 과	위 원 장	박부철
	부위원장	이학천, 최대웅
심 사 분 과	위 원 장	이규정
	부위원장	이규현, 맹만호
연 구 분 과	위 원 장	안해욱
	부위원장	신영억, 강신익
기술과학분야	위 원 장	이택명
	부위원장	심재익, 오함숙
편 찬 분 과	위 원 장	김중영
	부위원장	양영모, 김용수
국 제 분 과	위 원 장	백운대
	부위원장	임홍수, 전창식
시 범 분 과	위 원 장	김영작
	부위원장	이규형, 박덕규 박종명

3개연맹 1988년도의 설계

한국국민학교연맹

1. 정기이사총회

국민학교연맹은 1월 14일 오후 6시 30분에 국민학교연맹 사무실에서 정기이사총회를 개최하여 1987년도 사업 및 결산과 1988년도 사업 및 예산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이사는 서영준 회장을 비롯해 김중영 부회장, 주상일 전무이사, 한구상 총무이사, 이성우, 최진억, 전판선, 정찬진, 박석천, 노달선, 박성열이사 및 임홍수 감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2. 1987년도 사업보고

가. 1987년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국기원에서 거행된 제8회 태권왕겨루기전국국교태권도대회에는 총 611명이 출전하여 서울 광희국교가 1위, 경기 서룡국교가 2위, 경기 용인국교가 3위를 차지하였다.

나. 1987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된 제8회 체육부장관기타기전국 국교단체대항전에는 총 414명이 출전한 가운데 청주 주성국교가 1위, 서울 한강국교가 2위, 서울 광희국교가 3위를 차지했다.

다. 1987년 11월 1일 국기원에서 거행된 제13회 연맹회장기타기대회에는 총 187명이 출전하여 서울광희국교가 1위, 청주 주성국교가 2위, 서울 한강국교가 3위를 차지했다.

3. 1988년도 사업계획

일 시	사 업 명	장 소
5. 28(토)~ 5. 29(일)	제9회태권왕 겨루기대회	국기원 및 학생체육관
7. 30(토)~ 7. 31(일)	제9회체육부장관기대회	국 기 원
10. 18(화) ~10. 19(수)	제14회 연맹회장기겸 개인선수권대회	국 기 원

한국중고등학교연맹

1. 정기총회

2월 11일 오후 6시 30분에 뉴월드호텔 3층 파리홀에서 대의원 25명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어 1987년도 사업및 결산, 1988

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승인되었고 규약개정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황호순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해 손근수부회장이 의장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김인수전무이사, 이병석, 문승국, 김부영, 정해주, 조헌길, 김찬회, 이현갑, 최재혁, 최권열, 박주호, 윤태곤, 이충구, 박종식 이사 및 전재규, 이택명 감사가 참석했다.

2. 1987년도 사업보고

① 제14회 중고연맹회장기쟁탈대회가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국기원에서 총 1,307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② 제23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겸 제14회 중고연맹개인대회가 8월 24일부터 28일 까지 국기원에서 총 1,244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③ '87년도 중고연맹대표 선수선발평가전이 11월 23일 국기원에서 총 32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3. 1988년도 사업계획

일 시	사 업 명	장 소
4. 25~29	제15회 중고연맹회장기 쟁탈대회	부 산
7. 18~23	제2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쟁탈겸 제15회중고연맹개인대회	국 기 원
10. 17	1988년도 중고연맹대표 선수 최종선발평가전	국 기 원
1989. 1	국제친선경기대회	미주지역

한국중고연맹
제8대 신임회장에 이유생씨 선임

중고연맹에서는 2월 11일 제8대 회장에 이유생 화신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20여평의 연맹 사무실과 새로 마련한 사무집기는 새롭게 출발하는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임 이유생회장은, 연맹회장을 맡게된 동기에 대해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아직도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이 많아 자선사업 측면에서 할 일이 많은 사회이지만, 장차 이나라를 짊어질 젊은 일꾼을 육성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껴 봉사의 자세로 연맹을 맡았다고 했다.

연맹운영에 관해서는 전문인들인 전무이사를 비롯한 실행이사들이 열심히, 아니 미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역대 회장들의 국내외의 경기개최, 참석 등 스포츠적 측면에서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회장은 연맹의 사무실등 영구 자산형성에 주력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에 미쳐야 생산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활철학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회장은 비태권도인이라 태권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國技」이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유일하게 세계속에 뿌리내린 자랑스러운 태권도임을 안다며, 올림픽시범종목에 채택된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려면 태권도 선수의 산실(産室)인 중고연맹이 발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천오백여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범한 중고연맹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연맹살림을 맡으셨던 제7대 황호순회장께 감사의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4. 규약개정

규약제1조(명칭)난에 본 연맹은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이라 칭한다 라는 항목을「본 연맹은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 연맹이라 칭하고, 외국어에 대하여는 KOREA MIDDLE HIGH SCHOOL TAEKWONDO FEDERATION(약칭 K.M.H.T.F) 이라 칭한다」로 개정했다.

규정제4조(사업)3항: 경기 기술의 연구 및 연마라는 항을「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으로

규약제5장임원9조 1항중 선임인원 3번에 부회장 3인이내라는 항목을「약간명」으로, 4번 이사 15인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포함) 항목을「이사 23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으로 2항 위촉임원 2번에 참여 약간인 항목을「자문인원 약간인」으로 개정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및 직능)9항: 고문및 참여는 통상관례에 의하여 이사회(실행이사회)가 추천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라는 항목을「고문 및 자문위원은 통상관례에 의하여 이사회(실행이사회)가 추천하고 이를 회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했다.

5. 제8대 신임회장및 부회장 선출

중고연맹은 황호순 회장의 후임에 화신기업주식회사 대표 이유생씨를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홍익개발 대표 이병석이사가 선출되었고 나머지 부회장선임은 신임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신임 이유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중고등학교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 이사들 앞에서 약속했다.

한국대학연맹

1. 정기이사총회

1월20일(수) 오후 6시 다리원에서 재적이사 21명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총회가 개최되어 1987년도 사업및 결산안과 19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2. 1987년도 사업보고

대학연맹은 5월과 11월, 2차례의 대회를 개최했으며 5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뉴스레타를 발간했으나 예산사정상 논문집은 발간하지 못하였다.

3. 1988년도 사업계획

일 시	사 업 명	장 소
4. 29~5. 1	제15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미 정
10. 20~ 22	제11회 회장기쟁탈 전국대학대항태권도대회	국기원
5월. 12월	뉴스레타 발간	
년 간	태권도 대학논문집 발간	

4. 감사선임

전임 신광균감사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으로 국비유학차 출국하여 감사직을 사직하게 되어 1년 임기의 감사를 보선하게 되어 단국대학교 오현환 교수를 후임으로 선출했다.

한편 대학연맹은 전임 신광균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공로를 치하했다.

각시도협회 1988년도의 설계

서울특별시협회

서울시협회는 지난 1월 16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1987년도 한 해 동안의 각종 행사 및 예산을 결산하고 1988년도의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1. 1987년도 승품심사대회

서울시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총21차례의 승품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총 28,443명이 참가한 가운데 1,090명의 실격자를 제외한 27,353명이 합격하였다.

이는 1986년도의 총 28,007명의 승품심사대회 합격자에 비해 600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2. 1987년도 승단심사대회

서울시협회는 2, 4, 6, 8, 10, 12월 등 6차례에 걸쳐 시행한 승단심사대회에서 6, 356명이 참가한 가운데 368명의 실격자를 제외한 5,98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는 1986년도의 총 6,490명의 합격자에 비해 5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에서 모두 합격자가 줄어들었다.

3. 1987년도 상조회비 적립금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와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도 1월에 발족된 상조회(相助會)는 지난 1년동안 상조회비 적립금으로 총 34,223,449원을 모았다.

상조회 규정 제4조(사업)에 의하면 상조회 적립금은 1. 유족 부조금의 지급 2. 경조금의 지급 3.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4. 1987년도 장학금지급

서울시협회는 지난 한 해동안 각종태권도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교 및 중학교 학생 2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 장학생 명단은 아래와 같다.

5.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및 수재의연금 모금현황

서울시협회는 1986년도에 범국민적으로 시행된 평화의댐건설 성금모금을 1987년도에도 계속 시행해 총 6,001,470원의 성금을 모금해 한국일보 및 일간스포츠에 기탁했다.

또한 수재의연금 모금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총 1,200,000원의 성금을 모금해 한국일보 및 일간스포츠에 기탁했다.

6. 1988년도 사업계획

월	일	사 업 명	장 소
1	24	제284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국 기 원
2	7	제285회 〃	〃
	14	제141회 승단심사대회(1, 2, 3, 4단)	〃
	28	제286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
3	6	제287회 〃	〃
	16~18	제7회 서울특별시장기 쟁탈 초, 중, 고, 대학 단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겸 제69회 전국체전 서울대표 1차선발대회	〃
	20	제288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
	30~31	제69회 전국체전 서울대표 2차선발대회	〃
4	3	제69회 전국체전 서울대표 최종 선발대회	〃
	10	제289회 승품심사대회(1, 2, 3, 품)	〃
	17	제142회 승단심사대회(1, 2, 3, 4단)	〃
	24	제290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수도전기공고
5	15	제291회 〃	〃
	29	제292회 〃	〃
	30~31	제8회 서울특별시 초, 중, 고, 개인선수권대회	〃
6	12	제293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
	19	제143회 승단심사대회(1, 2, 3, 4단)	〃
	26	제294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
7	10	제295회 〃	〃
	14~15	제9회 태권도 협회장기쟁탈 어린이 겨루기대회	미 정
	24	제296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수도전기공고

장학생 명단

순번	성 명	소 속	비고	순번	성 명	소 속	비고	순번	성 명	소 속	비고
1	이국일	쌍문국교	협회장기	10	박청석	한강국교	진학장학금	19	최성철	동 성 中	진학장학금
2	최만용	〃	〃	11	강봉서	개포국교	〃	20	최재영	신 천 中	〃
3	지진성	길동국교	〃	12	조성익	광희국교	〃	21	강철원	선 덕 中	〃
4	김천규	한강국교	〃	13	정창호	한강국교	〃	22	박진영	한 영 中	〃
5	전성필	〃	〃	14	김동현	보광국교	〃	23	김승민	중대부中	〃
6	김정택	신석국교	〃	15	이승화	면목국교	〃	24	고창현	선 덕 中	〃
7	장현일	혜화국교	〃	16	이동훈	길동국교	〃	25	정대욱	한 영 中	〃
8	방영선	옥수국교	〃	17	박만석	경 수 中	〃	26	한신호	신 림 中	〃
9	최길호	개원국교	진학장학금	18	박종운	덕 원 中	〃	27	강병삼	한 성 中	〃

월	일	사 업 명	장 소
8	17~18	제8회 교육감기쟁탈 초, 중, 고 단체대항 및 개인선수권대회	미 정
	21	제144회 승단심사대회(1, 2, 3, 4단)	국 기 원
	28	제297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
9	11	제298회 〃	〃
10	16	제299회 〃	〃
	23	제145회 승단심사대회(1, 2, 3, 4단)	〃
	30	제300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
11	13	제301회 〃	〃
	27	제302회 〃	〃
12	4	제146회 승단심사대회(1, 2, 3, 4단)	〃
	11	제303회 승품심사대회(1, 2, 3품)	〃

인천직할시협회

1. 정기대의원총회

1월 13일(수) 오후 6시 선원호텔에서 재적 대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인천직할시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선수육성면에서 전국소년 체전이 13위에서 6위로, 전국체전이 13위에서 7위로 상승,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2. 이사보선

87년 6월 10일자로 이사 5명이 보선되었는데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신임이사 명단〉

김태선 유신체육관장
이태경 금융체육관장
노순명 인천체육관장
김영수 금나무체육관장
김두삼 대우중공업(주)

3. 1988년도 사업계획

월	일	사 업 명	장 소
1	13	1988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회 야 성 원
2	14	1 차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실내체육관
	27	심판보수교육(자체) 1, 2, 3급	전 용 도 장
3	12~13	제69회 전국체육대회겸 제17회 전국소년체전 최종 선발대회	실내체육관

월	일	사 업 명	장 소
4	초순	제17회 전국소년체전 강화훈련실시	〃
	17	2차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23~24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초, 중, 고 일반, 여자)	〃
6	12	3 차 승품 및 승단심사 대회	〃
	25~26	제5회 협회장기 쟁탈태권도대회	〃
8	21	4 차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9		국민학교 우수선수권대회	〃
10	22~23	제70회 전국체육대회겸 제18회 전국소년체전 평가대회	〃
	30	5 차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11	13	6 차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12	4	7 차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태권도인의 밤	미 정

광주직할시협회

1. 대의원총회

1월 16일 오후 3시 광주직할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총23명의 대의원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출석한 대의원은 김규봉, 김명원, 박성택, 이병호, 한수석, 김대호, 전경칠, 이동원, 박상수, 문성삼, 황충현, 정용교, 정주호, 최기술, 송치응, 박세영, 임광섭, 이대권, 박순배 이사 등이다.

2. 1987년도 주요 사업보고

①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5. 22~24. 울산)
중등부 은메달-김형태(전남체육중 · 헤비급)
동메달-강대길(전남체육중 · 페더급)
박한우(북성중 · L-웰터급)

② 제22회 대통령하사기쟁탈전국단체대항(6. 13~16, 부산) 일반부 종합3위
일반부 금메달 미들급 이계행(광주협회)
헤비급 김양기(광주협회)
은메달 밴텀급 김재천(광주협회)
라이트급 최공집(광주협회)
웰터급 곽병호(광주협회)
동메달 플라이급 이정희(광주협회)

대학부 은메달 웰터급 백봉진(조선대)
고등부 동메달 핀 급 김동은(조선대)

③ 제68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대회(10·14~18, 광주) 종합2위

금메달 대학부 플라이급 나광운(조선대)
헤비급 정택주(조선대)
은메달 고등부 플라이급 김재덕(전남체고)
헤비급 엄기천(전남체고)
대학부 웰터급 김성택(조선대)
일반부 라이트급 최공집(광주협회)
웰터급 곽병호(광주협회)
헤비급 김양기(광주협회)
동메달 고등부 핀급 김문남(전남체고)
페더급 이주상(전남체고)
라이트급 박병선(전남체고)
웰터급 김재호(전남체고)
미들급 현규일(전남체고)
대학부 핀급 김동은(조선대)
밴텀급 김우창(조선대)
라이트급 최만상(송원실전)
일반부 플라이급 이정희(광주협회)

3. 1988년도 사업계획

일 시	사 업 명	장 소
1월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 차 평가전	수 창 국 교
2월	제69회 전국체육대회 1 차예선대회	실 내 체 육 관
〃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실 내 체 육 관
〃	제1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최종선발대회	〃
3월	제69회 전국체육대회 2 차 예선대회	〃
〃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최종 선발대회	〃
3월~5월	제1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및 제69회 전국체육대회 합숙훈련	무 등 경 기 장 훈 련 장
3월	품새 1차 보수교육실시	실 내 체 육 관
4월	2, 3급 심판 보수교육실시	〃
〃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5월	제2차 국민학교대항 태권왕기 겨루기대회	〃
6월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7월	제2차 시교육감기쟁탈 초·중·고등학교대항 태권도대회	〃
8월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광주실내체육관
〃	제2회 회장기쟁탈 초·중·고등학교대항 태권도대회	〃
9월	품새 2 차 보수교육실시	〃
10월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
〃	제1회 시장기쟁탈 초·중·고등학교 대항 태권도대회	〃
〃	제2회 학도체육대회겸, 제18회 소년체육대회 1차 평가대회	수 창 교
12월	승품 및 승단심사대회	광주실내체육관
〃	조대, 전대, 호대, 학군단 승단심사대회	각 대 학 체 육 관
〃	'88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및 태권도인의 밤 행사	본 협 회 훈 련 장

강원도협회

1. 정기대의원총회

1월 26일 오후 3시 강원도협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22명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신임이사 승인 및 87년도 사업 및 결산, 88년도 사업계획안및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2. 신임이사 3명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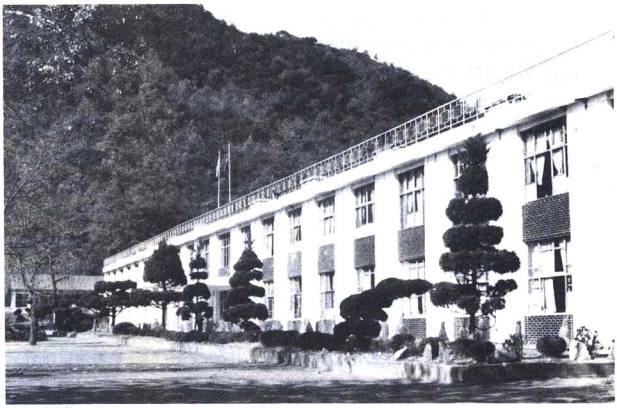
강원도협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신임이사로 최성열이사, 김근태이사, 박인규이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3. 1988년도 사업계획

월	일	사 업 명	장 소
2	26~27	제69회 전국체육대회 1 차선발대회	춘 천
3	5	제1회 강원지역 승품(단)심사대회	〃
4	22~23	제11회 회장기 쟁탈전	주문진체육관
5	12	제2회 강원지역 승품(단)심사대회	원 주
6	23~24	제6회 교육감기쟁탈 태권도대회	춘 천
7	15	제3회 강원지역 승품(단)심사대회	강 릉
9	15	제4회 강원지역 승품(단)심사대회	속 초
10	29	제5회 강원지역 승품(단)심사대회	정 선
11	8~26	제 8 기 지도자교육 2급	국 기 원
12	12	제6회 강원지역 승품(단)심사대회	삼 척

화천중학교

강 천 희 교장선생님



화천중학교 전경

최 흥 배 사범

김 준 배 교감선생님

최 근 호 체육주임

북한강을 바라보며 용화산과 서화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화천 중학교는 제33회 6,000여명을 배출시킨 작지만 전통있는 시골 학교다.

지난 한해에는 3학급에 144명이 입학하여 전교생 총 462명이 선행이라는 교훈 아래 교직원의 열성적인 지도에 힘입어 밝고 꾸밈없이 생활하며 학교의 기틀을 잡아 왔다.

강천희 교장은 1인(人) 1기(技)의 원칙으로 교육계획을 실천해 왔는데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 및 생활 지도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태권도 수련은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정규 수업후 한시간씩 실시하는 데 이 수련을 통해 신체적 건강, 지구력, 극기심을 배양 시킴은 물론 어려운 농촌 환경속에서의 좌절을 극복하고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다.

태권도 수련후 결석, 지각생이 줄고 질서의식이 고취 되었으며, 자신감을 얻은 학생들이 학습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다.

태권도를 지도하는 최 흥배 사범은 화천에서 18년동안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련생을 배출하였으며, 마을의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1987년 본교 체육관 개관을 기해 교장선생님의 1인(人)1기(技)의 교육 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극기심을 배양시키며 태권도 보급에도 헌신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 근호 체육교사는 낙후된 시골 학교에서의 체육발전과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범 교사로서 학생들의 태권도 훈련에 남다른 성의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의 영양부족, 체력부족으로 나약했던 학생들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학업면에서까지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는것은 태권도 수련의 성과라 할수 있다.

특히 1987년 12월 전교생 승급심사에서는 도 태권도 협회 박 병철 전무이사를 심사관으로 초청하여 전교생이 7급의 인준을 받는 실력을 발휘,명실공히 태권도 육성 학교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화천 중학교는 태권도 수련 외에도 촌각을 다투며 발전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 육성을 위해 교내·외 야영, 체육대회, 교내 백일장, 학생 상담을 통해 심성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협회

1. 정기대의원 총회

경기도협회는 지난 1월 27일 경기도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재적대의원 1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어 '8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2. 1988년도 주요사업

경기도협회는 '88년도의 사업목표를 ①일선도장 현황파악 및 행정지도 ②전국체전 선수 훈련강화 ③사회정화사업에 적극 참여 ④파벌의식 일소 ⑤경기장질서 확립강화 ⑥산하지부 육성강화 ⑦심판원 확보 및 자질향상 강화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3. 기타사항.

기타안건으로는 첫째, 경기장 질서확립과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시 심판 판정의 불복 및 항의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징계로 경기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피력됐다.

둘째, 과거에는 승품 단 심사대회시 어린이나 학생 응심자들 중 성적우수자에게는 표창 시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없었음을 들어 사기진작을 위해 88년도부터 성적이 우수한자를 표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협회는 승품 승단시에 기준을 두어 특출한 성적을 거둔 응심자에게는 표창을 하여 심사의 권위와 응심자들의 저변 육성을 쌓아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세째, 부천시에 실내체육관이 준공이 되어 부천시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제7회 경기도 교육감 기쟁탈태권도 대회를 부천에서 유치하자는 건의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4. 1988년도 사업계획

월	일	사 업 명	장 소
1	15~16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4차 선발대회	수원북중학교대강당
	17	승품·단 심사대회	수원실내체육관(핸)
2	13~14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5차선발대회	수원북중학교대강당
	21	승품단 심사대회(1品~3品·1段~4段)	수원실내체육관(핸)
	26~28	제6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1차 선발대회	수원수성고등학교
3	12~13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6차 선발대회	수원북중학교
	20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핸)
	28~31	제69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최종선발대회결 제1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최종선발대회	수원수성고등학교(학생체육관)
4	17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핸)
	21~24	경기도 태권도 종별선수권대회	수원실내체육관
5	8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핸)
6	12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핸)
	21~22	지도자교육(기본, 품세)	수원실내체육관(핸)
7	10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핸)
	14~17	제10회 경기도 태권도 협회장기쟁탈전 태권도대회	수원실내체육관
		제13회 경기도 학도애향대 체육대회	수원수성고등학교
8	14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핸)
9	11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
	22~25	제7회 경기도교육감기 쟁탈전 태권도대회	
10	9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
	15~16	제1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1차 선발대회	수원북중학교

월	일	사 업 명	장 소
11	13	승품단 심사대회(品·段)	수원실내체육관(핸)
	17~20	제1회 경기도 도지사기 쟁탈 전 태권도대회	수원실내체육관
12	11	승품단 심사대회	수원실내체육관(핸)
	18	태권도인의 밤	장 소 미정
		각 시·군지부 불우이웃돕기 실시기간	각 시·군

● 1988년도 사업계획

일 시	사 업 명	장 소
3 월중	제17회 전국소체최종선발전	미 정
〃	제69회 전국체전최종선발전	실 내 체
〃	1/4분기승품 및 승단심사	〃
〃	1988년도 심판보수교육	미 정
〃	제17회 전국소체대표선수 강화훈련	영 천 중
〃	제69회 전국체전대표선수 강화훈련	영 천
4 월중	1988년도 신인선수권대회	실 내 체
5 월중	제26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미 정
6 월중	2/4분기 승품 및 승단심사	실 내 체
7 월중	제21회 도교육감기타기	〃
9 월중	3/4분기 승품 및 승단심사	〃
11월중	1988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
12월중	4/4분기 승품 및 승단심사	〃

경북협회

김 경 하 경북협회장

1. 정기대의원총회

1월 13일 오전 11시 늘봄공원에서 전체대의원 19명 중 1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참석 대의원은 김동진(안동시), 김홍대(경주시), 손만식(영주시), 이정수(구미시), 김길수(김천시), 박위조(영천시), 조용구(문경군), 김영호(의성군), 정동욱(선산군), 이종염(칠곡군), 장경덕(영풍군), 강두희(울진군) 이사 등 12명이 참석해 198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했고 1988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2. 1987년도 사업보고

① 전국춘계종별선수권대회(3.16~21, 국기원)
3위 장용준(일직중·페더급)
권오열(일직중·라이트미들급)

② '87년도 전국추계종별선수권대회(9.21~ 26, 국기원)
1위 김용만(영천고·플라이급)
2위 조기원(영천고·라이트급)

③ 제68회 전국체육대회(10.14~17, 광주)
2위 김영철(한국체대·페더급)

3. 1988년도 사업계획

경남협회

1. 정기대의원 총회

경남협회는 총재적대의원 21명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7일 오전 11시에 경남체육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참석한 대의원은 진귀윤(하동군), 송소석(함안군), 김정철(삼천포), 김희식(남해군), 조희삼(진해시), 정인화(사천군), 장종식(밀양군), 김학수(산청군), 박순홍(진양군), 김광옥(함양군), 정영환(김해시), 하명식(김해군), 김춘일(양산군), 여반수(울주군), 이기철(합천군), 석시용(전주시), 허도석(거창군), 옥강진(충무시) 이상 등이 참석했는데 이날 총회에서는 '8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88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심의, 규약개정, 기타 토의가 처리되었다.

2. '87년도 주요대회 전적

경남협회는 제68회 전국체전에서 금1, 은1, 동3으로 종합 8위를 차지했다.

또한 제15회 소년체전에서 금1, 은3, 동1으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3. 기타토의

기타토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으로 태권도 선배들 예우에 신경을 쓸 것과 사범복지회 및 적립금을 부활하여 기금이 조성되면 태권도 체육관 건립에 기여한다는 것이 토의되었다.

4. 신임이사 선임

감사를 제외한 28명의 이사 중 17명의 이사가 퇴임하고 14명의 신임이사가 선임되었다.

5. 1988년도 사업계획

일 시	사 업 명	장 소
2 월중	제17회 소년체전 최종평가전	경 남 체 고
3월4~5일	제69회 전국체전 선발전	실내체육관
3월14~5월8일	제69회 전국체전 합숙 훈련	〃
3 월27일	제85회 승품단 심사대회	〃
4 월16일 17일	제12회 신인선수권 대회	〃
5 월29일	제86회 승품단 심사대회	〃
6 월 3~4일	제4 회 어린이태권왕 겨루기 대회	〃
6 월24~25회	제 8 회 교육감기 쟁탈대회	〃
7 월31일	제87회 승품단 심사대회	〃
9 월25일	제88회 승품단 심사대회	〃
10월말	제27회 도민체전	미 정
11월초	제18회 소년체전 1차평가전	마 산
11월 13, 20, 27일	제89회 승품단 심사대회	마산, 울산, 진주
12월초	제18회 소년체전 2 차평가전	마 산

● 신임이사 명단

직 위	성 명	직 업
회 장	이 순 달	우담정대표
부회장	김 태 운	경남체육회이사
	김 봉 규	형제천막대표
	김 상 수	부산식품대표
	김 중 갑	빙그레동마산대리점 대표
이 사	이 병 길	도북국교 교사
	이 상 증	송화온천대표
	이 용 주	학성체육관장
	윤 영 현	회사원
	이 주 환	국민체육관장
	황 세 열	중앙청과 전무이사
	조 용 옥	남성종합인쇄사 대표
	이 상 윤	지지패션 대표
	배 용 훈	동양체육관 대표

경남협회

제18대 신임회장에 이순달씨 선임

전임 이대규회장에 이어 제18대 회장으로 이순달씨가 선임되었다.

83년부터 85년까지 회장을 역임한 바있는 이순달회장은 3년만에 다시 경남 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게된 것이다. 이회장은 '88년도 정기이사총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도내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단결로 협회를 활성화시

키는데 주력할것」이라고 말하고 「'86년에 계속된 사범복지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계획을 완료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또한 「협회의 자립과 자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2년여 동안 보류해온 자립적립금을 다시 재계토록 하겠다」고 협회운영 방침을 밝혔다.

진주경찰서

무궁화도장

싸늘한 찬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진주경찰서「무궁화 도장」에 발을 들여 놓은 것은 새해 무진년 첫 달이 저물어 가는 1월말 쯤이었다.

60평 남짓한 도장 안에는 100여명 이상의 남녀 학생들이 비지땀을 흘리며 사범의 구령에 따라 우렁찬 기합과 절도 있고 활기찬 태권도 동작으로 뜨거운 열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경찰서 상무관을 이용해 세워진 무궁화도장에 태권도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86년12월부터이다. 당시 진주경찰서(서장 허남오총경)가「전국 최우수 경찰관서를 만들자」는 기치아래 도약을 위한 힘찬 몸부림 가운데 있었는데 대민봉사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밝고 명랑한 청소년 육성의 일환으로 시내 거주 직업청소년 및 초·중·고·대학생 중에서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개관을 하고나서 처음에는 육성이 잘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회의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경찰관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다는 선입감을 갖고 거부반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장님을 비롯한 전 서원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한 가지씩 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무궁화 도장의 오늘이 있기까지「비록 작은 특기를 가지고도 많은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가지게 하고, 시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무보상의 희생을 각오한 한규학 경찰관의 굳은 집념이 그 밑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무궁화 도장을 연중 자기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한 규학(경장, 5단)사범은 경찰경력 8년에「태권도인으로서 불우청소년 및 촉법청소년들을 선도키 위하여」라고 무궁화도장의 운영 취지를 밝혔다.

평상시의 고된 일상업무를 마치는 오후 5시, 다른 직원들은 퇴근길을 서두르는데 한사범은 땀에 젖린 도복을 둘러 메고 상무관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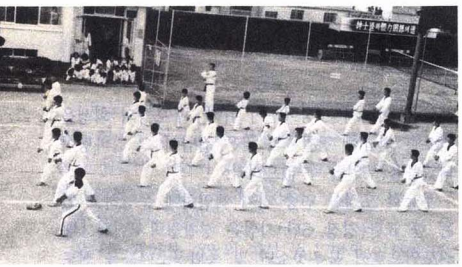
무궁화도장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태권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무예임을 깨우쳐 주인의식이 투철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건강하고 끈기있는 강인한 정신을 기름은 물론 집단질서훈련을 통하여 성실하고 협동하는 정신을 기른다는 목적에서「충효·성실·극기」를 관훈으로 삼고 있다.

현재 1백3명의 수련생이 평상시 매일 오후 수련에 임하고 있으며 한사범은 원래 계획에는 1시간씩 가르치게 되어 있지만 제자들과 열심히 수련에 임하다 보면 30~40분씩 늦어지는게 예사라고 했다.

한사범은 업무처리능력이 탁월하여 주위로부터 근면·성실한 경찰관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그는 무궁화 도장 이외에도 85년 6월부터 시내 교육대학에「으뜸회」라는 태권도 수련 건전써클을 조직 40여명의 회원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87년5월부터는 국립경상대학에도 30여명의 회원을 확보 무료로 태권도 수련을 해 주어 태권도 보급은 물론 대

한 규 학 사범

허 남 오
진주경찰서장
(태권도 4 단)



사범의 구령에 따라 품새를 익히는 수련생들

학생 선도에도 힘쓰고 있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태권도 지도자 연수원에서 태권도지도자들의 최고 교육과정인 「제7기 태권도지도자 2급연수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함께 겸비한 수준급의 태권도지도자로서 더욱 열심히 수련생들을 가르칠 각오에 차 있었다.

무궁화 도장은 그간의 짧은 기간동안 흘린 땀의 댓가로 월1회의 승급심사와 2번의 승단심사 참가로 22명의 유단자와 4—1급 35명, 8—5급 46명을 배출하였다.

진주경찰서의 허남오 서장님을 비롯한 경찰간부들은 때때로 후정에서 힘찬 기합소리와 함께 수련에 임하고 있는 수련생들을 지켜보며 태권도 수련 후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의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백이 넘쳐 흘러 이 나라의 주역으로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흐뭇해 한다고 한규학 사범은 보람에 찬 얼굴로 전해주기도 했다.

수련생들의 정신지표(좌우명)로

- 무릇 말은 참되어야 하고
- 행동은 삼가고 절제해야 하며
- 걷는 것은 안정되어야 하며
- 거처는 바르고 조용해야 하며
- 항상 나 자신의 마음은 태양처럼 밝고 물처럼 고요한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글귀를 무궁화도장 중앙에 걸어두고 인격함양과 덕성교육에도 애쓰고 있었다.

한사범은 학생들의 수련시간 뿐만 아니라 수련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수련시간을 빠지게 될 때에는 사전에 직접 찾아와서 허락을 받게 하여 생활에 착실함을 기르게 한다든지, 학습이 부진한 중·고생에게는 태권도 수련시간 전후로 상무관을 이용,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은 좋은 예라 하겠다.

무궁화도장은 대민봉사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밝고 명랑한 청소년 육성의 일환으로 직업청소년 및 초·중·고·대학생에게 무료로 태권도 수련을 지도하고 있다.

「이들을 잘 이끌어 건전한 정신과 투철한 국가관을 배양하게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도록 육성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한사범의 두 눈엔 수련생들을 위한 애정과 태권도를 통해 청소년을 선도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충북협회

정만순 부회장, 청주대 체육교육학과장 보직맡아

충북태권도협회의 부회장겸 전무이사가 청주대학교에서 지난 2월 1일부로 체육교육학과장으로 보직 발령을 받았다.

청주대 체육교육학과의 교수로 10년동안 근무해 온 정만순 부회장겸 전무이사는 그동안 청주대학교의 태권도 발전의 견인차로 여성기, 최윤기, 마상현, 이동준, 한재구, 임재억, 지용석선수 등 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를 배출하였다.

정만순부회장겸 전무이사는 1972년도에 충북협회 경기이사로 출발한 이래 1976년 제2회아시아선수권 대회(호주)에 국제심판으로 참가했고 1977년 제3회 세계선수권 대회(시카고)에는 한국대표팀코치로 출전해 종합우승을 거두며 체육훈장 백마장(1977년), 대통령표창(1986년), 청주시 체육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남협회

여수중학교

박형래 교장선생님

「참다운 사람」이라는 교훈아래 제37회 졸업생을 배출한 여수 중학교는 한려수도의 교육의 요람이자 인재 배출의 산실로 학력과 체력면에서 단연 앞서 가는 유서깊은 명문학교이다. 본교의 경영방침으로 학생의 도덕성과 진취성 창의성을 기저로하는 인본중심 교육으로 꿋꿋한 의지와 미래 개척의 능력을 배양, 슬기로운 한국인을 길러내는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색사업으로는 태권도를 설정하여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며 2000여명의 학생전원을 유단자화시켜 다변하는 미래사회의 적응력과 지식의 폭발 시대에 즈음하여 체력관리는 학력관리 이상의 것으로 생각되는 동시에 태권도 수련을 통해 운동발현능력을 신장시켜 자신감과 진취적인 생활 태도를 확립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인간상을 정립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핵가족시대를 맞이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과잉 보호로 인한 나약한 사고방식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내는 모체로 태권도 수련을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교는 교지면적 17326평에 건평 3763평, 부대시설로는 13563평의 운동장과 과학실험실, 기술실, 태권도 수련실이 있으며 태권도부와 야구부를 육성

백 현 모 지도교사

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는 1인 1운동 종목으로 의무화하였으며 1교1운동의 교기 종목으로 저변을 확대시켜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여 명실공히 전남 태권도의 요람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본교 태권도부는 1985년 4월에 창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훈련은 새벽 6시에 기상하여 1시간 30분동안 아침운동을 시작하며 오후운동은 5시부터 밤 8시까지 약 5시간의 피땀어린 훈련을 거듭한 끝에 '86년도와 '87년도 전남대회를 석권하는 기쁨을 맛보았으며 교육감기를 비롯 협회장기 그리고 전남 학도 종합체육대회에 5체급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87년 소년체전 예선 최종선발전에 6체급이 선발, 명실공히 전남 대표팀으로 자리를 굳혔고 제16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하여 금2개 은2개 동메달 2개로 서울에 이어 종합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특히 87년은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남의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때라 6개의 메달은 금

여수중학교 태권도 부원들

싸라기보다 값진 메달이였으며 전남을 종합전적 최하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첨병의 역할을 해냈다. 이러한 쾌거는 하루 5시간씩 계속되는 훈련일정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촛점을 맞추어 체력훈련에 60%, 기술훈련에 40%의 비중을 두고 맹훈련을 실시한 결과였다. 또한 광주 직할시 승격으로 인한 전력약화, 전국규모 대회의 처녀출전, 경기 경험부족 등의 부담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운 전남협회의 지원은 선수들의 사기에 불을 붙여 놓았으며 필승의 신념을 다지는 동력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김 재남 관장님과 김영일 관장님 이명섭 관장님 그리고 고경보 선생님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싶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까지 본교 박형래 교장선생님과 58명의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따르지 아니하였으면 기대할 수 없는 처녀 출전의 수확이라 하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선수들의 개성에 맞는 합리적인 훈련계획을 수립, 훈련의 과학화에 주력해야하겠으며 '88년에는 태권도 전용 수련실을 교내에 신축하고 있는만큼(현재 약 60%의 공사가 진행중임) 명실공히 전라남도의 태권도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조성중·고등학교

조성중고등학교는 전남보성군 조성면 조성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남여 674명 고등학교는 남녀 458명으로서 조그마한 시골학교이다.

학교에 들어서면 시골학교에서 보기드문 넓고 깨끗한 운동장에 잘 정돈된 배구장, 농구장, 정구장이 마련되어 있어 교문을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운동을 해야겠다는 충동을 갖게한다.

그래서 그런지 중고육상부가 전남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어 우수한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태권도부 역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겨울방학 동안에도 육상부와 함께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 도 현
교장선생님

태권도 수련은 일부선수들만을 위한 수련이 아니라 전교생이 수련에 참가하여 학교를 졸업하면 유단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6년 9월에 부임한 현 김도현 교장선생님은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교훈아래 자기의 인격수양, 실력있는 학생, 봉사정신을 목표로 내일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전부터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었지만 김도현 교장선생님이 부임한 뒤로 더욱 박차를 가하여 중학생들도 전교생이 수련할 수 있도록 하여 '87년 10월부터는 중고등학교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태권도를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연마하고 건전한 정신을 갖게하며 훌륭한 인간을 육성, 국가 사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한다는 것이 교장선생님의 방침이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은 일부 선수들만을 위한 수련이 아니라 전교생이 수련에 참가하여 학교를 졸업하면 유단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련을 하고 있다.

처음엔 전교생이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것에 대해 학부형들의 반대도 있었다. 특히 여학생들까지 태권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 전통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시골에서는 더욱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조대섭 교감선생님, 중학교 이훈의 교감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태권도 수련의 효과를 역설하여 학부형들을 이해시켰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교육적 효과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태권도 수련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선수육성종목도 육상과 태권도를 지정받아 태권도 수련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중학교는 전교생이 중간체조시간에 30분씩 매일 수련을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오후에 1시간씩 수련을 하고 있다.

조성고등학교에서의 태권도 지도는 조성체육관을 운영하는 손향성 사범이 맡아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김인수 체육교사와 중학교 이종길 체육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은 전교생이 태권도를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체육주임이신 김헌수 선생님은 전남협회 경기이사로서 협회 활동 및 선수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유단자가 20여명 밖에 되지 않지만 고등학교는 유단자가 100여명, 선수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20여명이나 된다.

고등학교는 87년 교육감기쟁탈 학교대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크고작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어 조성고의 이름을 태권도계에 내보이기 시작했으며 겨울 방학에도 합숙 훈련을 하고 있어 앞으로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

제주도협회

1. 정기대의원총회

제주도협회는 1월 20일 오전10시 제주도태권도회관에서 재적대의원 24명중 김성찬, 안영익, 정한수, 송관식, 김대호, 김영하, 현봉석, 이덕부, 김순경, 허철지, 전기복, 최학기, 허종순 등 1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198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987년도 특별회계(기금적립금) 결산보고, 19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1988년도 특별회계(기금적립금)수지예산안이 승인되었다.

2. 1987년도 주요사업결과

① 전국추계종별선수권대회(3. 24~29, 국기원)
중등부 3위-서배홍(남주중), 김명석(남주중), 권혁훈(남주중)

②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5. 21~25, 울산)
중등부 1위-강운만(남주중)

③ 제22회대통령하사기쟁탈전국 단체대항태권도대회(5. 15~18, 부산)
고등부 3위-김태형(오현고)

④ 전국추계종별선수권대회(9. 21~26, 국기원)
중등부 2위-송창훈(표선중)
고등부 1위-성의천(오현고)

⑤ 제68회 전국체육대회(10. 14~17, 광주)
고등부 1위-강운신(남주고)
대학부 1위-윤희섭(제주대)
3위-최원국(제주대)
일반부 3위-채상만(제주태권도협회)

3. 1988년도 사업계획

강화훈련

일 시	사 업 명	장 소
1월~2월	동계강화훈련	한라체육관
연 중	평가전 및 선발전	시행시선정
3월~5월	제17회 전국소년체전출전선수 강화훈련	회 관 및 보조훈련장
	제69회 전국체전대회 출전선수강화훈련	〃
연 중	전국규모대회 대비 강화훈련	〃

대회주최

일 시	사 업 명	장 소
4 월초순	제23회 전도태권도대회	한라체육관
11월	제4회 회장쟁배탈 전도 태권도대회	〃

대회주관

일 시	사 업 명	장 소
6 월중순	제주시 종합 소년체육대회	시 민 회 관
10월	제22회 전도 체육대회	〃
〃	제17회 전도 소년체육대회	〃

기타사업

일 시	사 업 명	장 소
1월~2월	중앙협회 및 도체육대육대의원파견	서 울 도 체 육 회
2월~3월	선수 등록 업무	
3 월	심판보수교육 및 지도자교육 파견	국 기 원
3, 8, 12월	승품, 승단 심사대회	회 관
연 중	포상(공로상 및 감사패) 및 추천	
	기금증액 활동	
	각종대회 연구원 파견	

특집II

갈채와 함성부를 '88서울올림픽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바란다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를 앞두고 있는 태권도는 성공적인 대회개최로 '92바르셀로나에서의 정식종목 채택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이번호에는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각계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장을 마련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으리라 본다.

전 효 식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태권도 담당관

우리의 위치와 자세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승부에만 집착한다면, 스승으로서의 품위에 큰 손상이 올것이며 승리만을 위하여 도망가듯 약은 기술만을 구사한다면, 태권도의 무도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것이다. 우리는 과감히 승부를 떠나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태권도 기술들을 유감없이 구사하여 더욱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특유한 전통적인 태권도를 사랑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함께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가 많은 역경을 헤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발족한지 15년이란 비교적 짧은 역사를 딛고 지구촌 최고의 축제인 올림픽의 장(場)에 시범종목으로 우뚝선 쾌거는 모든 태권도인들이 무도정신과 함께 그동안 무수히 흘려온 땀의 결정체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특히, 모든 올림픽가맹종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품(?)이지만,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수많은 선배태권도인들에 의해 가꾸고 다듬어져 해외로 수출된 유일한 수출품(?)이란 점에서 더욱 그 가치가 깊다.

우리 태권도는 이제 국제스포츠계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으며 명실공히 서울올림픽에 금의환향(錦衣還鄕)함으로써 태권도인은 물론 우리 민족 모두가 이를 환영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비약적이고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온 오늘날의 태권도가 마치 평가라도 받듯 거대한 올림픽의 무대에 올려진 중요한 싯점에서 감히 본인이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태권도담당관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태권도담당관실에서는 '88대회의 예행연습이라 할 수 있는 '86아시아대회 종합평가에서 27개 종목 중 3위에 입상한 우수한 저력을 바탕으로 이번 '88대회에서도 여타종목에 앞설 수 있는 면밀하고 우수한 경기운영계획을 이미 수립완료하여, 내일이라도 대회를 치룰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 준비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태권도경기운영본부의 조직은 본부장, 사무총·차장과 경기, 관리, 지원 및 총무부장을 비롯한 4개 부처장 산하에 경기, 보도, 심판, 의무, 시설, 기술 등, 22개의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총 운영위원수는 541명이란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기구로는 자문위원회, 경기운영위원회, 소청위원회, 기술임원(TD), 심판단 및 세계연맹등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운영요원구성은 조직위원회직원6명,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인력134명, 공무원지원9명, 대학생자원봉사자118명, 일반자원봉사자104명, 그리고 전문기술지원인력170명으로 이미 각기 맡은 보임이 확정되어 있다.

대회기간 동안 투입되는 물자도 전광판, 몸통보호대, 타자기, 사무용품등, 총243종을 확보하였고, 4월부터 8월사이에 경기장에 단계별로 배치토록 되어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운영요원들의 직무교육 및 훈련인데 대부분의 핵심 요원들은 지난 '86대회 때 직접 대회에 참여하였던 요원들로 재구성하였으므로 사실상 이들은 재 교육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기직무에 정통하고 숙달된 상태이므로 이미 교육이 끝난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 2~3차례의 직무교육과 현장적응교육 및 예행연습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8월사이에 단계별로 중복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둘째로 경기내용면을 살펴보면, 태권도 경기는 서울올림픽대회 방영권취득사인 미국NBC방송사에 의해 전세계 140여개국 40억 가시인구에게 생중계 혹은 녹화중계방송을 하도록 계획되어 태권도의 모든 면모를 지구촌사람들에게 보일수 있는 좋은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기회로 우리 조직위원회 태권도 담당관실에서는 태권도의 고유성과, 무도성 내지는 스포츠로서의 우수성을 아낌없이 소개하기 위해 경기는 물론, 점심시간과 결승직전을 이용하여 태권도 연무시범단을 투입하여 경기 이외의 태권도의 종합적인 면모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로서 우리태권도는 무도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로서 세계최고의 수준을 확인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런 절호의 기회는 또 다시 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아래 전 태권도인들은 이에 발맞추어 우수한 우리 태권도의 모든 면모를 소개하는데 전심 전력하여야 할것이다.

태권도경기는 벌써부터 해외의 많은 스포츠관계자와 보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모든 태권도인들이 오직 태권도를 사랑하고 그 무도정신을 통하여 자기자신을 완성하여가는 모습이 이들에게 크게 부각 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수많은 국제스포츠 귀빈들과 보도진들이 경기의 관전과 취지를 신청해 조직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언어소통문제를 고려하여 영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 아랍어, 중국어 등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자원봉사요원 12명을 확보하여 태권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통역요원중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모두 태권도를 수련중인 태권도인들을 선발하여 언어소통에 완벽을 기하였으며 이들 모두가 태권도인들인 관계로 올림픽

태권도에 참여도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우리들이 준비한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태권도의 제전에 참여하는 운영요원, 경기자, 관중들이 연출해내어야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경기자(한국대표선수)들은 종주국 대표선수로서의 면모와 자세를 절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와 외국선수들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있는데 스승과 제자가 한데 어울려 태권도 정신을 통하여 기량을 겨루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되나 자칫 우리의 위치와 자세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승부에만 집착한다면, 스승으로서의 품위에 큰 손상이 올것이며 승리만을 위하여 도망가듯 약은 기술만을 구사한다면, 태권도의 무도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것이다. 우리는 과감히 승부를 떠나 그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서서 태권도 고유의 특유한 전통적인 기술들을 유감없이 구사하여 더욱 그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태권도를 사랑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일도 지양해야 하겠으며, 승리하였을 때 겸손해야 함은 물론 혹 패배하였다하여 불쾌하고 불응하는듯한 자세를 보인다면 종주국 태권도인으로서의 체모가 서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든 태권도 경기, 우리가 만든 경기규정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나아가서 태권도의 장래에 좋지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확한 득점을 하여 승리가 확인된다하여 주먹을 불끈쥐고 경기장을 경솔히 맴돌며 좋아한다거나 찬스를 놓쳤다하여 지나치게 안타까운 몸놀림을 하는 것은 스승으로서 종주국으로서의 자세는 결코 아닐 것이다.

다음은 관전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본인이 제8회 세계선수권대회(스페인)를 참관하였을 때 느낀 점인데, 외국선수들과 관중들이 괴성과 박수와 심지어 의자, 깡통따위를 마구 두둘기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놀랐다.

이러한 장면은 무언가 상당히 잘못 흘러가는 태권도의 모습이며 또한 태권도 경기장도 도장(道場)인데 도(道)가 땅에 떨어진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들에게 무언가 잘못 거울이 된것이 입증되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이제 잘못 전수된 것이 입증된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고 그들에게 옳바른 거울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쏟아야 할것이다.

기량을 겨루는 경기장은 확실한 도장(道場)의 모습을 잃지않고 경기자나 관중이나 공히 소란을 피우거나 지나친 응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야 되겠으며, 모든 선수와 관중들이 숨을 죽여 선수들의 기량과 묘기에 열열히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고 격려하며 즐길뿐 도(道)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으며 무도를 통한 기량을 겨루는 선수를 관전하고 있는 관중들도 어느듯 무도인으로 빨려들어 선수들의 호흡과 맥박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장(道場)이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태권도 인들은 단합된 모습으로 외국인들에게 스승으로서 종주국으로서의 자세와 면모와 위용을 유감없이 나타내어 보이기위해 우리모두 손에 손을 맞잡고 열심히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 40억 이상의 인구가 시청토록 중계되는 텔레비젼을 통하여 태권도의 모습을 샅샅이 지켜볼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한국인의 얼과 슬기가 듬뿍 담긴 한국 고유의 무도 태권도 그 자체를 유감없이 나타내어 우리를 존경하고 태권도를 사랑하고 더욱 나아가서 코리아 그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에게 금세기에 두번다시 주어질수 없는 하늘이 내린 기회를 지금까지 태권도를 지켜오신 선인들에게 한점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 '88올림픽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운영요원과 관중과 경기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자랑스런 태권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태권도의 참모습을 나타내고 가르치는데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모두가 연출해 내는 '88대회의 성공적인 결과가 우리의 소망인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시금석이 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다함께 가지고 열심히 맡은 일에 전력을 다하여 줄것을 바란다.

고 두 현
서울신문사 체육부 국장급 기자

올림픽에 시범경기로 첫선을 보이는 태권도도 많은 관중들이 장충체육관을 메우고 있어야 IOC 위원이나 외국인들도 태권도의 뛰어남 뿐만아니라 인기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88서울올림픽이 이제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도 『88서울올림픽에 태권도가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다.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는 태권도가 정식경기로 채택됐으며 8개체급가운데 7체급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올림픽에도 태권도만 들어가 있다면 많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88서울올림픽에 태권도는 야구와 함께 정식경기가 아니라 시범경기로 들어가 있다. 그러나 태권도가 올림픽의 정식경기 아닌 시범경기라고 실망한다면 큰 잘못이다.

먼발치서나마 태권도의 성장과정을 지켜보아온 필자로서는 태권도가 올림픽의 시범경기로 채택되기에 이른것만해도 대견할뿐이다.

인류가 이 지구 위에 나타나면서 격투기는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났다고 보아야겠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복싱, 레슬링, 판크라티온, 한때 강대했던 페르샤의 레슬링, 몽고의 씨름, 중국의 쿵후, 일본의 유도와 공수도, 한국의 태권도, 씨름, 브라질의 카포에라, 프랑스의 사파데, 태국의 무에타이 등은 자기자신과 가족 더나아가서는 부족과 국가를 지키기위해 익혀야했던 격투기들이다.

이가운데 고대 올림픽부터 정식 경기였고 유럽에 널리 퍼져있던 레슬링과 복싱은 일찍부터 올림픽의 정식경기가 될 수 있었다. 1896년 그리스의 아테네에서의 제5회 올림픽부터 레슬링(그레코로만형)은 들어가 있었고 1904년 미국의 센트루이스에서의 제3회 올림픽부터 복싱은 들어갔다. 동양의 격투기 가운데 가장 먼저 올림픽의 정식경기가 된것은 유도이다.

유도는 1964년 일본 도오꾜에서의 제18회올림픽부터 정식경기에 끼어들었다. 올림픽의 정식경기는 올림픽개최국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 제43조에서 올림픽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29개 IF(국제경기단체)를 공인하고 있다.

여름철대회 그러니까, 소위 올림픽경기대회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경기는 육상, 조깅, 배드민튼,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역도, 핸드볼, 하키, 유도, 레슬링, 수영, 근대5종, 테니스, 탁구, 사격, 양궁, 배구, 요트등 24개 경기다. 이가운데 테니스와 탁구는 88서울올림픽부터 정식경기로 들어가고 배드민튼은 92바르셀로나올림픽부터 정식종목이 된다. 하긴 테니스는 1896년부터 1924년까지는 올림픽의 정식경기였던적이 있으니 부활이라는 표현이 알맞을지 모르겠다.

겨울철 올림픽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는 봅슬레이,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들론, 스케이트, 스키의 6개경기다.

올림픽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는 경기가 아니면 아무리 개최국이라도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경기가 올림픽프로그램에 끼어 들 수 있는 것일까? 올림픽헌장 제44조에 따르면 여름철올림픽의 경우, 남성경기는 「적어도 50개국 및 3개대륙」, 여성경기는 「적어도 35개국 및 3개대륙」에 걸쳐 「널리 치러지고 있는 경기」라야한다.

물론 태권도의 경우 위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는 있다.

그래서 IOC는 올림픽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는 않지만 다음의 10개 IF를 승인하고있다. 즉, 태권도, 야구, 컬링,펠로타, 오리엔티어링, 볼링, 롤러스케이팅, 소프트볼, 공수도, 수상스키 등이다.

이들 10개경기는 쉽게 말해 올림픽정식경기의 후보들이라고 하겠다.

이10개 IOC 승인 경기가운데 격투기는 한국에서 비롯된 태권도와 일본에서 시작된 공수도다.

지난 61년9월 엄운규, 이종우, 이남석씨등이 창립위원이 되어 탄생한 대한태수도협회는 그뒤 대한태권도협회로 이름을 바꾸고, 김운용회장이 총재로 취임한 세계태권도 연맹의 발족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추진,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공수도를 제끼고 올림픽의 시범경기로 까지 발전한 것은 눈부신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OC의 승인을 받고 있는 태권도가 1백 61개국이 참가하는 88서울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채택된 것은 태권도의 앞날을 밝게 해주고 있다.

태권도가 다른 격투기에 견주어 얼마나 합리적인 경기룰을 지니고 있고 뛰어난 무도스포츠인가를 알릴 수 있는 더없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1904년 미국 센트루이스에서의 제3회 올림픽부터 등장한 시범경기는 올림픽헌장 제48조에 「올림픽조직위원회는 IOC의 승인을 받아 올림픽기간중, 인정되어 있는 스포츠가운데 2개경기를 넘지않는 스포츠를 시범용으로 선정할수 있다 고 못박아 놓았다.

따라서 시범경기라고 마구 여러가지 스포츠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IOC가 승인 하고 있는 스포츠 가운데서 2개경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84로스앤젤러스올림픽에서는 테니스와 야구가 시범경기였다.

지금까지의 올림픽에서는 미식축구, 배드민튼, 일본의 궁도와 검도, 수상스키, 글라이더 야구 등 여러 스포츠가 올림픽의 시범경기로 등장했다. 야구는 1904년, 센트루이스에서의 제3회올림픽에서 시범경기로 첫선을 보인이래, 이번 88올림픽까지 8차례나 올림픽의 시범경기로 등장했다.

1956년 멜보른에서의 제16회올림픽에서는 야구 1개경기로서는 사상최고인 11만 4천명(추정)의 관중이 몰려들었다. 올림픽의 시범경기란, IOC위원을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뛰어난 스포츠다」라고 알리는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렇다면 올림픽에 시범경기로 첫선을 보이는 태권도도 많은 관중들이 장충체육관을 메우고 있어야 IOC위원이나 외국인들도 태권도의 뛰어남 뿐아니라 인기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올림픽의 시범경기인데도 체육관이 텅텅 비어있으면 그처럼 모양이 나쁠수는 없는 노릇이다. 많은 관중이 몰려들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비슷한 경기인 공수도는 상대방 몸 앞에서 공격을 멈추는 경기방식인데 견주어, 태권도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과 발로 공격을 가하고 방어를 하면서도 선수와 건강보호를 위해 머리와 몸통에 호구를 착용하고 있다는점, 또 합리적인 포인트시스템등이 무도의 근대 스포츠화 성공의 표본으로 꼽히고 있다. 태권도경기를 관람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경기장에서는 태권도의 알기쉬운 안내책자가 배포됐으면한다.

마지막으로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판정을 둘러싼 시비가 올림픽 시범경기에서 자칫 태권도의 이미지를 흐려놓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없지않다. 누가 보더라도 태권도는 합리적이고 뛰어난 무도스포츠라는 인상을 이번 올림픽시범경기에서 심어주어야만 한다.

김 세 혁
동성고 체육교사

올바른 태권도 정신의 선양에 전력하며 담담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창달해 나가는데 있어서 첨병적인 역할을 해야…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날아온 위대한 승리의 어나운서 멘트 한마디 「서울 피프티 투 나고야 투엔티 세븐」 이 짧은 여섯마디는 나의 태권도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해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84차 총회에서 1988년 제 24회 하계 올림픽 대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는 쾌거가 왜 나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게했는가. 나의 아니 우리 모두의 태권도는 1980년 7월 17일에 모스크바 IOC총회에서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승인 되었기 때문에, 나의 기대는 한국인의 정성으로 펼쳐질 한마당 큰잔치인 88서울 올림픽에 우리나라 국기이며, 그간 스포츠 외교로서 전세계에 뿌리내리고 있는 태권도가 국민의 성원과 전 태권도인의 염원속에 꼭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리라 생각했었기에 이 벅찬 감격을 느낀것이다.

그러나 꼭 이렇게 되리라 믿었던 우리의 태권도는 88올림픽에 정식종목이 아닌 시범종목으로 그치고 말았다. 허나 나는 실망만은 안하겠다.

이렇게 올림픽 시범종목의 장벽을 뛰어넘은것은, 순수한 우리 태권도의 그간의 노력에 의한것이 아니냐. 이결과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고 급히 먹은 음식은 체한다고 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발전해온 우리 태권도가 앞으로 차분히 노력 정진 하면 기대하고 있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의 꿈이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는 기필코 이룩되어 온 겨레의 기쁨인 영예의 금메달을 우리들의 품에 안겨 주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희망속에 나 자신도 계속 노력정진할 것이다.

인류로 하여금 인간능력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환희를 공유하게 하는 축제인 동시에, 현대문명의 정수가 총체적으로 집약되는 종합예술인 올림픽 대회에 우리 태권도가 시범경기에 임하게 되었는데 전태권도 인들과 특히, 경기에 직접 참여 하는 운영요원 및 관계자, 지도자, 대표선수들은 과연 어떻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되겠는가. 막중한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경기 진행에 있어서는 질서를 잘지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기를 만들고, 우리모두의 슬기와 정성을 한데모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되며, 지도자와 대표 선수들은 물론 그동안에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종주국의 태권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왔지만, 이번대회에서는 더욱더 그동안 닦은 기량을 필승의 신념과 참다운 아마추어리즘을 십분 발휘하여 전세계 스포츠인들 앞에 당당히 보여서 태권도의 스포츠적 우수성을 국제사회 속에서 신뢰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정통성 있는 국제스포츠로, 아니 세계인이 모두 사랑하는 스포츠로 승화시켜서 올림픽 정식 종목의 광장으로 향한 발판으로 거보를 내딛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여야 되겠다.

그러면 제2의 도약을 어떻게 계획하여야 되겠는가? 우선 올바른 태권도 정신의 선양에 전력하며 담담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창달해 나가는데 있어서 침병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나자신은 현재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어떻게 선수들을 지도하여야 되겠는가?

첫째로, 승패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로 경기하는 선수는 경기를 사랑하고 사욕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 성과에 만족하도록 지도 하고,

둘째로 말로서만 지도하거나 기구만을 사용케 하는 구술지도 보다는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 호흡을 같이하여 선수들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는 부모와 같은 자세로 지도하고,

세째로, 순간만을 위한자가 되지말고 먼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 할 수 있듯이 인성을 고양시키고 기술 지도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연구 노력하여 고도의 테크닉을 연마토록하는 장단기 계획을 펼쳐야 겠으며 특히 강한 정신력과 의지력을 바탕으로한 정정당당한 승부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겠다. 지도자는 자만이나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내실을 기하여 태권도인의 전통무도로서의 정신적 가치관과 스포츠적 가치관을 조화 시키면서 서양의 기사도에 버금가는 태권도 정신 철학을 전세계 만방에 떨칠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그러므로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은 모두 합심하여 앞으로 부단한 노력으로 기술 개발과 이론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의 계기를 이룩하여야겠다.

이번 88올림픽 시범경기에 참가하게 되는 선수

들이여! 혼신을 다하여 태권도의 바른 정신과 진수를 전세계에 승화시켜주기 바란다. 나 자신도 전국가 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현재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체력이 허락하여만 준다면 이번 경기에 꼭 출전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 영광스러운 제전이 목전에 도래하니 문득 나의 선수 시절은 어떠했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 왔는가 생각이 난다. 누런 광목으로 만든 도복에 맨발로, 체육관 시설도 없어서 황토흙의 운동장 바닥에서 사범님의 구령에 맞추어 기본동작과 기본발차기, 품세, 약속겨루기, 자유겨루기를 순서대로 마치고나면 도복이 땀과 흙투성이로 변해버리던 시절, 선배님은 하늘이요, 후배는 땅이라는 철칙 속에서 하루라도 기압을 받지 않고 운동을 종료하면 불안감속에서 더욱 긴장을 했다.

정신력 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눈밭에 굴리우던 생각, 중학교 2년때 선수로 발탁되어 학교마크가 달린 엑스란 추리닝을 처음 입어보게 된다는 기쁨에 전날 밤잠을 설치면서 기다리던 생각, 한성여고 체육관 첫출전의 영광을 안았을때 전국 체육대회에서 서울대표로 선발되어 서울운동장 배구장에서 경기에 임할때 경기장 마루 바닥이 뜨거운 태양의 열을 받아 발바닥이 모두 벗겨져도 아픔을 잊은채 오직 경기에만 집착하던 그때가 어제 같았다. 지금은 1진 2진 3진까지 선발되어 모두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외국경기 경험을 쌓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오직 1진만 대표로 선발되므로 눈물겨웁게 연습에 매달렸던 생각이 난다.

대표선수라는 영광, 왼쪽가슴에 태극마크를, 등판에 단 KOREA라는 글자가 얼마나 눈에 선명했던지 그때는 지금과 같이 국제경기도 많지 않았고 친선 경기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한가? 김운용 총재님 이하 태권도 관계 기관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모든분들의 덕분에 이번 88올림픽 시범 경기로 채택도 되었고, 정부에서 우수선수들의 지속훈련을 위해 병역의무의 특례 혜택까지 받고 있고, 또한 국민체육 진흥재단에서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연금도 수여받는등, 나의 대표선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해본 체육훈장 맹호장까지 수상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많은 국제경기도 활성화 됐고, 이러한 많은 혜택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발전됨에 따라 운동할수 시설, 여건 또한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후배선수들이여 운동에는 거짓이 없다. 땀을 흘린 만큼의 댓가는 꼭 온다는 진리도 있지 않는가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꼭 영광이 한몸에 가득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 한대로 김운용 총재님 이하 태권도 관계기관과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피와 땀의 결정체로 88올림픽 시범경기의 장벽까지 뛰어넘지 않았는가?

이제는 우리 지도자들과 선수들도 종주국의 자부심만 갖지말고 더욱더 노력해야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선수들은 강인하고 투철한 정신력으로 이번 경기에 임하여 좋은 성과의 밑거름이 되어 주길 바란다.

나는 자도자로서 선수들을 지도하여보니 현재의 선수들을 깊게 생각안해 볼수가 없다. 옛 선배들은 그숱한 고난도 잘 딛고 일어섰는데, 지금의 선수들은 약간의 부상에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정신력, 경기시 자만에 의한, 또는 관중 의식에 의한 경기운영 방법들은 앞으로 지양하고, 선수는 경기시에 지도자의 주문에 의한 정확한 공격타와 방어를 잘 구사하여 훌륭한 경기운영과 고난이도에 의한 경기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종주국 태권도의 올바른 정신자세 및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스포츠인들에게 보여주어 이번 88올림픽 시범경기가 밑거름이 되어 다가오는 92년 올림픽 대회에서는 꼭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크게 공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자신도 자도자 생활 10여년 걸쳐서 수많은 제자들과 10여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여 그간에 있었던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월드게임, 월드컵, 아시아대회 등 각종 친선경기까지 모두 우승을 하였고, 국내에 있는 모든 전국대회도 석권의 맛을 보았다. 그러나 현재의 욕망은 나 자신도 출전하여 보고싶은 웅장한 세계 제전에 또다시 나의 제자가 한국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참가하게 된다면은 큰영광이며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여 차기올림픽 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된다면 나의 혼신을 다해 제자에게 크나큰 영광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나자신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바램도 여본다. 앞으로도 계속 무궁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태권도 경기이므로 현재 우수선수들의 진로라고 할까 선수들이 중도에서 선수생활이 도중탈락 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시급한 대책은 실업팀창단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해외에 파견된 사범님들이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다가오는 올림픽 대회와 세계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선수들의 생명을 장기적으로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체육발전에 태권도 선수들이 첨병으로, 또는 세계 스포츠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훌륭히 하여 주기바라면서 전 태권도 인들은 단단한 협동을 기반으로 "노력하는 태권도인", "패배하지 않는 태권도인", "애국애족하는 태권도인", "연구하는 태권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합심하고 단결하여 꼭 우리의 태권도가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조 현 주
월간통일한국기자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진정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태권도붐'을 일으켜야 한다.

올해 서울올림픽은 사마란치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IOC) 위원장의 표현대로 '인류의 봄'이 될 것 같다. 76년 몬트리올대회부터 이념문제로 '반쪽 대회'만 치러졌던 올림픽이 12년만에 중·소를 포함한 161개국이 참가를 발표함으로써 동서가 함께 자리하는 사상최대의 올림픽잔치가 열리게 됐다.

서울에서!

세계 50억의 눈이 서울에 쏠린다는 것은 말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다. 잔치는 벌어졌고, 남은 일은 '알차고 흥겨운' 잔치상을 차리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정성과 지혜가 소중한 때이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열리는 제24회올림픽대회에서 태권도가 야구와 함께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의 국력신장의 결과이며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드높이는 기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태권도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뒤늦은 느낌이다.

이제 태권도는 세계화된 국제공인 스포츠로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다. 요즘 동구 공산권과의 교류 전망에 안팎으로 흥분하고 있지만 태권도사범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지에 나가 한국을 심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인이면 누구나가 태권도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알면서도 막연하게 감(感)만 잡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전통무술이라는 것을 지식으로써 알고 있는 것이다. 원고를 쓰고 있는 나 역시 태권도를 직접 해본 적도 없고 태권도에 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어렸을 때 우렁찬 구령과 함께 앞뒤좌우로 팔다리를 쭉쭉 뻗어 올리는 친구를 선망의 대상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지금도 하얀 도복을 입은 선수들을 보면 생생하다는 것이 태권도에 관한 내 지식의 전부라고 하겠다.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적인 무술이면서도 그 이름만 풍성할 뿐 한국인이면 누구나가 손쉽게 즐기는 운동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어린이가 있으면 사내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유치원겸 체육관에 보내기 때문에 태권도를 어린이들 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엔 태권도가 유희화(遊戱化)된 운동이 돼버렸다고나 할까.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삼아 반성해야 할 일이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진정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태권도붐'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첫째, 88서울올림픽은 온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참

여해야 한다. 모든 경기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시설, 기술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을 빈틈없이 이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상업주의에 치중해 화려하면서도 과시적이었던 LA올림픽의 단점을 지양하고 서울올림픽이 알뜰하면서도 진정한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뛰어난 기술과 고도의 무도(武道)를 자랑하는 태권도를 서울올림픽에서 꽃피워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단순히 기능적인 의미에서의 전신운동만은 아니다. 수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더불어 굳은 의지, 정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예절바른 태도를 몸에 익히며 자신의 덕을 닦는 행동철학이다.

태권도의 참 모습을 전세계인의 가슴에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세째,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그동안 축적해 온 힘을 전세계에 보여줄 때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스포츠를 육성하는 중대 목표 중의 하나가 국력과시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가 스포츠를 관장하는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으로 스포츠는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공을 세운 스포츠인은 부와 명예를 확보하게 된다.

태권도종주국으로서의 실력을 과신하지 말고 태권도의 보편화, 과학화를 이룸으로써 차기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정식종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태권도는 올림픽에 있어서 우리의 황금밭이다. 지난 84년의 LA올림픽때 유도부문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자 '제 2의 하형주'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전국의 유도장에 몰려들었다고 한다.

얼마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가 방학중에 서울엘 왔다. 그가 하는 말이 미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태권도란다. 그리고 자신이 국민학교 때 배워둔 태권도솜씨 덕분에 풍족한 경제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태권도 사범이 아르바이트로서는 최고라고.

태권도는 수련기간이 길고 엄격한 규범의 제약 등으로 인해 청소년은 물론 일반의 참여가 미흡했던 것이다. 88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어린시절 잠시 겪는 과정으로서의 태권도가 아니라 전국민이 젊으나 늙으나, 언제 어디서나 심신의 단련을 위해 즐길 수 있는 태권도가 되기를 바란다.

삼국통일의 위업엔 화랑들의 심신단련이 사회적 정신적 기틀을 이루었듯이 태권도 또한 우리 민족의 국력의 기틀로서 통일조국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은 88년을 기억하고 이를 자손만대에 전할 것이다.

"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었지. 남북이 분단된 그 시기에 단군의 자손들이 한마음으로 뛰었지. 올림픽이 끝난 후 나라가 발전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건강한 국민되는 데 태권도의 몫이 컸지. 세계인들 모두 태권도를 사랑했지."

고 우 영
만화가협회회장

시계바늘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결코 쉬는법이 없이 다가오고 있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두가지 걱정이 있는데…

김포 국제공항에 내려 땅을 밟고, 내집으로 가기 위해 서울 방향으로 달리는 승용차에 몸을 맡기고 있을 즈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그림이 있다. 길가에 세워진 넓은 화면에 그려진 것인데 간단하면서도 힘을 준 텃치로 한눈으로 봐도 움직임을 주는 그림이다. 도복을 입은 대한민국의 사나이 한 명이 억센 팔다리를 조누어 뻗으며 공중을 비약하고 있는 순간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인데 그게 아마 '뛰며 앞차기'의 자세일게다. 어쨌든 태권도를 상징하는 좋은 그림임에 틀림이 없다.

이번 초가을, 우리가 주최하는 올림픽 잔치에서는 태권도 종목이 시범경기로 선을 보일 것이라고

체구가 작다고 얕보고 덤볐다가
단 방에 작살이 난 이 해적녀석은
어느 급소를 맞은 것일까?

한다. 참, 가슴 후련한 이야기이다. 대개의 현대 스포츠는 서양의 꺽다리 친구,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생겨먹은 몸싸움 방식이어서 언제나 보고 나면 무슨 속임수에 놀아난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우선 농구가 그렇고 배구, 축구, 팔다리 길어 유리한 수영마저 그렇다.

그러나 태권도로 겨루자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제깐 녀석들 아무리 다리가 길고 팔이 늘어져 있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가슴으로 파고들며 뻗어치는 주먹지르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전광석화처럼 짧은 순간에 360도 회전시켜 돌려차는 발뒤꿈치를 무슨 수로 당할 것인가? 태권도는 우리의 국기이고 전통이며 우리 나름대로 갈고 닦은 연마 방법이 있는 까닭에 전 세계에서 단연 우리가 제일 잘 한다고 해도 거짓이 아니다. 암, 그렇고 말고 이다.

연전에 미국 L.A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다. 거기 말뚝 박고 사는 친구 몇몇과 밤거리에 나섰는데 그건 두 말할 나위도 없이 한 잔씩 꺽기 위해서였다. 최씨 성 가진 친구가 앞장 서서 들어간 주점은 주로 그리이스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으로 넓기가 오백평은 되어 보이는 홀 안 가득히 줄무늬의 수부복을 입은 사내들이 득시글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가 무엇이 어떻게 억각이 났던지 노랑 곱슬머리의 바이킹같은 두 녀석이 황소같은 몸을 맞부딪치며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옛부터 불과 싸움은 클수록 볼만하다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서양 해적들의 두재비를 맛있게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금발의 처녀 하나가 똑바로 나에게로 뛰어오는 일이 생긴다. 다 큰 처녀가 울상을 하고는 안달을 하며 두 손을 가슴앞에 모아 잡은 채 애걸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더니 "부탁합니다. 오빠 싸움을 좀 말려 주셔요. 크라데로 말려 주셔요!"

얼굴 동그랗고 키가 작아서 나를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알아 본 것이고 한국 사람이니 의당 눈부신 태권도 실력을 간잭했을 터. 그 무술로 패색이 짙어가는 오빠의 싸움을 말려달라는 그리이스 처녀의 부탁말씀인 것이다. 쾌히 승락을 한 작달막한 코리언 고씨는 잽싸게 몸을 날려 술청의 뒷문으로 빠져나와 줄행랑을 치고 말았지만 그때 그 선선한 미국의 밤공기는 가슴에 닿아 시원하기도 했다.

우리들의 국기 태권도는 이제 전세계에 퍼져 모

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력 또한 명실공히 인정을 받고 있어서 자기네 체구의 반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도 싸움을 말려달라는 간청을 하게끔 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그랬었나?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그말 한 번 제대로 한 것이다. 인간의 신체기능은 그것이 발달하면 발달할 수록 정신적으로도 우월감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런 의미에서 88 올림픽의 태권도 시범경기는 대단한 가치가 더해지는 것이다. 미주에서 구라파, 중동에서, 동남아, 아프리카 오지 까지에서도 코리아의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수반하고 목하 번창 일로에 있는 중이다. 한가지 아쉬움고 불만러운 점이 있다면 그리이스 처녀가 그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칭을 잘 못해서 태권도를 크라데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크라데는 일본의 가라데(空手)를 서양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그 가라데는 우리네 태권도보다 한 발 먼저 흑선(黑船)을 탔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나 세계 방방곡곡 퍼져있는 도장의 정면에 걸려있는 태극기와 '차렷, '경례, 등의 우리말 구령과 더불어 이제 곧 바로 잡히게 될 것 또한 틀림이 없겠다.

이제 오래지 않아 올림픽 경기 정식종목으로 태권도가 벌어질 날이 온다. 그전에 서울 88올림픽에서는 시범경기가 열린다. 일종의 예행연습이다. 그런 의미 심장한 일을 마련해 낸 우리 태권도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나는 가슴앞에 개줄 달린 기자증을 걸고 경기장 안팎을 쑤시고 다니며 금메달, 또 금메달의 낭보를 취재해서 거기 그림을 곁들여 신문사 편집국으로 급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림도 그릴줄 모르는 큰 외국 기자들 앞에서 어깨가 으쓱할 것이다. '너희들은 태권도도 못하고,환도 못 치지!

시계바늘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결코 쉬는 법 없이 다가오고 있는 88 올림픽을 앞두고 두 가지의 걱정이 있다. 걱정은 태권도 시범경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여기 적으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우리 선수가 전 체급을 석권해 버리면 손님으로 온 외국선수들에게 미안해서 어떡하나?

② 우리 태권도 기술을 몸집 크고 팔다리 굵은 바이킹들이 갈고 닦으면 먼 훗날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깨어지지 않을까? 잠이 안 오겠다.

조 진 식(주부·약사)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이여 !
부디 이 벅찬감격과 찬란한 자랑을
전세계 스포츠인들의 탄성과 환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 주십시요.

감정이 여린 것인지… 풍부한 것인지… 매사에 감격하기 잘하는 성격에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로부터 "서울 88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바란다"란 원고 부탁을 받고는 뜨거운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읍니다.

올림픽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 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인 데다 그저 조심스러운 마음에 기쁨을 누릴틈도 없이 잘 돼야 할텐데… 성공리에 끝나야 할텐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더니…
거기다 우리의 태권도가 전세계 스포츠인이 지켜보는 올림픽경기장에서— 그것도 올림픽 사상 최대규모인 161개 국가가 참가하는 "88올림픽"에서—당당하게 시범경기를 하게 되다니!!
이토록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읍니다.

한낱 주부이며 여자인 내가 옆에서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울 때야 당사자인 태권도인들은 어떠하시겠읍니까?

더구나 한국의 태권도를 갈고닦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대한태권도협회 여러분들이나 세계 각 곳에서 조용히 한국의 태권도를 보급하고 자랑스럽게 키워주신 여러 태권도사범님들의 그 감회가 또한 어떠하겠읍니까?
다시한번 뜨거운 박수와 존경어린 감사를 보냅니다.

우리 한국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이여! 부디 이 벅찬감격과 찬란한 자랑을 전세계스포츠인들의 탄

성과 환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 주십시요.

그리하여 우리 조국에는 빛나는 영광을 안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태권도인의 진실하며 사명감 있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자랑스럽고도 씩씩한 한국의 아들·딸임을 보여 주소서.

조 동 표(일간스포츠 논설위원)

이럴 때일수록 태권도인들은 스포츠정신에 투철하며 사도(斯道)의 과학적 발전의 길이 무엇인가를 간파, 그의 실천에 정력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의 태권도가 세계의 태권도로 비약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에 펼쳐놓은 어마어마한 업적에는 그저 혀를 내두르며 탄복할 따름이다.

86년 서울서 성공리에 거행된 10회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태권도는 정식경기로 채택되었다. 이 때 우리는 종주국의 높은 경기수준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전8개 체급중 한 체급만을 놓치고 7체급의 패권을 차지, 금메달 93개를 획득,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준우승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었다.

IOC가 공인하는 지역종합경기대회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태권도가 공식경기로 채택됐다는 사실은 이 경기가 세계의 유사한 지역 경기대회, 예컨데 지중해 연안대회, 팬 어메리컨대회, 영(英)연방대회에서도 정식경기로 채택되어 오랜전통을 지닌 스포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범세계적인 경기로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작년에 팬 어메리컨대회와 범아프리카 경기대회에서 각각 태권도가 특수경기로 채택되어 시범을 펼쳤다고 하니 이는 이 경기가 범세계적으로 보급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거니와 미구에 각종 지역대회에서 공식경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을 시사(示唆)해주는 증후(徵候)인 것이다.

태권도는 또한 작년 서울서 제2회 세계 군인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고 10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제8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는 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태권도 정식경기 채택과 비견(比肩)할만한 비중 큰 뜻을 지닌 태권도의 세계로의 비약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스페인은 IOC 사마란치 위원장의 나라이고 바르셀로나는 서울올림픽에 이어 92년 제 25회 하계 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도시이다.

제 10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초청되어 개회식에서 식후 공개행사로 거행된 1000명 태권도인이 펼친 대 매스게임 "약동"을 본 사마란치 위원장은 커다란 감명을 느꼈다고 한다.

개회식에 나타난 공개행사의 대체의 흐름이 한국의 고유문화를 강조하는 나머지 조용하고 우아하고 연약한 면이 있었던 가운데 홀연히 나타난 "약동"은 초록색 필드에 1000송이의 흰꽃이 일제히 개화하여 순박속에 젊음의 기상(氣像)을 펼치듯 힘차고 웅장한 것이었던 만큼 그 대조가 너무나 뚜렷함에 사마란치 위원장은 감격하여 서울올림픽에서 더욱 승화(昇華)한 "약동"을 보고 싶다는 감상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랬던 사마란치위원장의 나라 스페인의 차기 올림픽대회 개최도시에서 세계태권도인의 최고의 기상과 힘이 과시된 선수권 대회를 펼쳤으니 그곳서 나타난 수준높은 경기와 인기가 차기올림픽대회 개최국인 스페인의 국민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 담당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은 틀림없으리라고 사료된다.

특히 스페인 현 카를로스왕은 즉위하지 않은 왕자 시절부터 태권도를 즐겼다고 하며 태권도를 통

해 심신을 단련하였다고 하는바 92년도 25회 대회에서 태권도의 정식정목 채택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주는 것이다.

필자가 해외에 보급 되어가는 태권도를 본것은 1972년이 처음이다.

그 해 뮌헨에서 올림픽대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 한국 태권도계를 대표한 이종우(李鍾佑 현 지도자 연수원장) 엄운규(嚴雲奎 현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양거두가 임석한 가운데 서독 및 주변국가 진출 사범과 그들이 키운 제자들의 시범이 뮌헨의 한 공연장에서 있었는데 그 모임의 열기가 드높기에 이 경기가 유럽에 널리 보급될 가능성이 짙다는것을 그 때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2년뒤인 74년, 이번엔 미국을 횡단하며 몇몇 태권도인을 접할 기회를 가졌었다.

개중엔 태권도의 개척자로 성공을 거두어 대도장을 뉴욕 혹은 LA에 마련한 이가 있었고 어떤이는 태권도에 부수된 여러 부품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가로도 성공하려고 관로개척에 여념이 없었다.

이준구씨 같이 정력적인 사범은 미국 국회내에 굳은 발판을 구축하여 상하원의원을 국회내 체육관에서 지도하고 있었다.

작은 몸집의 준·리씨의 지도를 받는 거구의 국회의원들이 연방 쎠—쎠—해가며 돌려차기 연습을 하는 광경은 미소를 자아내게 했던 것이며 민족적 자긍(自矜)을 갖게해주는 한순간은 흐뭇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미국의 태권도엔 그러한면이 있었던 것관 반대로 떳떳치 못한 반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시카고에 들렀더니 어느 도장에선가는 KARATE의 간판을 내걸고 수련생 확보에 혈안(血眼)이 되어 있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을 종주국으로 삼는 가라데를 팔며 도장경영을 해야 하는가고 물었더니 이미 가라데가 보급되어 있어 「태권도」의 이름으로선 기존 기반에 파먹고 들어가기 힘들거니와 미국시민들간의 호응도가 낮을 것이 두려워 떳떳하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가라데의 이름을 빌리고 있다고 변명했다.

또 LA의 어느 한곳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보았더니 태권도9단의 고단위 소유자인 그는 아울러 전번 올림픽대회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하여 그의 뻔뻔스러움에 놀라 얼굴을 다시 본적이 있었건만 그 당시가 마침 미국 이민붐이 불어 민족적 자긍을 갖지 못한 이들도 수많이 도미했을 터였으니 그와같은 국치적(國恥的) 현상도 빚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면을 성의있는 태권도 개척자들은 하나하나 극복해가며 이경기를 착실히 세계적 스포츠로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가는 태권도는 김운용 회장의 노력으로 비약을 거듭해온 것이다.

1975년 GAISF(세계경기단체 연합회)의 사무총장이며 국제역도연맹 사무총장인 고 오스카스테이드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의 GAISF가맹 신청에 따라 태권도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스테이드씨 일행은 내한한 것이었다.

김포공항에 내린 스테이드씨는 안면있는 필자를 보더니 일본에 머무는 동안 여러 체육기자를 보고 태권도를 아는가고 물었으나 그 누구도 모르더라며 태권도의 GAISF가맹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내뱉았다.

그러나 그는 김운용 회장의 끈질긴 선전으로 태권도의 존재와 특수성과 스포츠로서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태권도의 GAISF 가맹에 힘썼으며, 그때에 태권도의 스포츠로서의 위대함을 역설했던 김회장은 지금 IOC위원에 GAISF회장을 겸한 세계적 스포츠 명사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대활약을 펼치고 있다.

우리 고유의 무예에서 발상(發祥)한 스포츠 태권도는 그 자신이 지닌 우수성을 바탕으로 개척정신 왕성한 태권도인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이제 세계의 스포츠로 발전해 있거니와 그동안 단계적인 비약을 거듭한 끝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선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조짐(兆朕)을 짙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세계의 태권도인은 자세를 단정히 하고 스포츠정신에 투철하며 단결을 굳게하여 사도(斯道)의 과학적 발전의 길이 무엇인가를 간파, 그의 실천에 정력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88서울올림픽과 태권도 시범경기

이제 태권도 그 자체는
한국이 뿌리이지만 경기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세계의 것이 됐으며
이것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빠르게
세계의 태권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장 덕 수
(주간 스포츠 PD 국군의 방송 본부차장)

세계의 태권도인이 종주국 태권도를 보기위해 서울로 몰려온다.

태권도는 서울올림픽 규정종목 23개종목외에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영광과 함께 오는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 올림픽에서는 규정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져 서울올림픽에서의 태권도 경기는 다른 종목보다 의의가 깊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SLOOC)도 국기태권도를 더욱 국제화시키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 참가국 및 참가인원을 늘려 종전12개국 96명에서 그동안 국제대회 참가실적과 메달획득 기준으로 남26, 여13국에 체급을 배정 1백92명의 선수를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들 39개국중에는 동구권의 유고 폴란드등이 끼어있어 태권도가 전세계적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음을 입증했다.

유고와 폴란드의 서울올림픽대회 참가는 그동안 동구권에서 끈질기게 방해공작을 펴온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는 국제 태권도 연맹(ITF)의 파워를 무색케했으며 스포츠 외교적인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것으로 평가됐다.

태권도는 이미 「월드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범미주게임(팬암게임)」, 「아프리카 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군인대회」와 지난 2월 26일에는 「남태평양게임」에 공식경기종목으로 채택되는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정식경기종목으로 채택돼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다.

서울올림픽대회 참가 39개국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주최국 한국은 8개 전체급에 출전하고 아시아지역에 일본, 인도네시아, 네팔, 대만외에 필리핀, 말레이지아가 후보국으로 중동및 대양주에서는 요르단 카타르, 이란, 호주, 뉴질랜드외에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후보국으로 추천돼 있다.

태권도 시범경기가 펼쳐질 장충체육관

유럽지역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델란드,벨지움,터키,서독,유고,폴란드외에 오스트리아,영국,덴마크가 후보국으로 팬암지역(美洲)은 미국,캐나다,멕시코,에콰도르외에 도미니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가 후보국으로 아프리카는 이집트,코트디브와르,가나외에 리비아가 후보국으로 지명되는 등 39개국외에 14개 후보국 등 모두 53개국이나 된다.

태권도가 지난 73년 세계태권도연맹(WTF·총재 김운용)이 창설된지 불과 14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섰다는것은 태권도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영광으로 표현되는게 적당하다.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 종목은 5백여종목, 이중 올림픽에 들어가있는 종목은 동 하계 모두 통틀어 10%미만인 40여종목도 안된다.

한국에서 즐기는 스포츠 종목은 태권도,씨름,국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수입 스포츠임을 감안할때 우리 선조들이 만든 순수 한국스포츠가 세계로 수출되었다는 것과 올림픽대회 종목으로까지 채택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태권도 인구도 지난 73년 한국을 포함 전세계 1백40만명에서 지난 87년말에는 세계 1백 12개국에 3천5백만명의 인구로 불어났다.

1백12개국에 파견된 한국인 태권도 사범만도 2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같은 경우는 태권도가 참여 스포츠가 아닌 관람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고 프로 태권도의 붐도 일고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된 팬아메리칸대회의 경우는 3일간의 경기를 가졌는데 표가 매진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또 동구권인 유고 유니버시아드대회때는 유고 태권도인들이 자청해서 한국선수단을 뒷바라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고에서의 한국태권도는 가히 신적인 스포츠로 북한의 국제태권도연맹을 제치고 유고태권도 협회장 자그레브시 태권도협회장이 모두 한국이 이끌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을 지지하고 있고 태권도 시범이 있으면 비싼 입장료를 내고라도 경기장을 꽉 메울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환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을 비롯 많은 IOC위원과 미국,캐나다, 서독, 영국, 프랑스, 중동국가의 원수나 큰 정치인들도 태권도 수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도덕성이 타락된 미국사회에서 태권도 정신은 상하의원은 물론 정치인들도 도덕성회복을 위한 최상의 스포츠 정신을 지닌 스포츠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같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태권도는 이제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야한다.

태권도가 세계화되기까지는 김운용총재의 헌신적인 스포츠 외교가 결실을 맺었다.

김총재는 세계스포츠 무대에서 대부역할을 해온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김총재는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전세계를 누볐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이제는 태권도인들이 노력,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의 공식경기종목 채택을 위해 힘을 쏟을 때이다.

한국의 태권도는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종주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세계대회 종합 8연패, 월드게임 종합2연패, 아시아선수권대회, 국제군인대회, 월드컵대회의 종합우승을 석권해왔고 올 서울올림픽에서도 8개체급중 6개체급 이상을 석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독주속에서 태권도는 심판판정과 경기규칙 개정등에 있어 일부 오류를 범한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LA올림픽을 유치하고 지나친 독주와 독선으로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미올림픽

을 개최했다는 혹평을 받았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당연히 실력으로 메달을 따냈으면 이같은 혹평은 없었을 것이다.

「텃세판정」이 약소국들로부터 미국인축제에 들러리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다.

서울올림픽에 있어서 한국이 정규종목에서 따낼 수 있는 금메달 수는 고작 6~8개.

그러나 태권도는 양상이 다르다. 8개 전체급 또는 6~7개의 금메달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참가국들의 원성을 받기가 십상인 것이다.

사실 태권도는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판정시비가 잇달았으며 지난85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세계대회는 53개국에서 5백여명이 참가했으나 애매한 판정으로 시비가 잇달았고 일부에서는 전한국오픈대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물론 한국선수가 졌는데 승리를 선언한것은 아니지만 호각의 경기를 펼쳤을 때 한국선수들이 승리가 선언되고 참가국들은 이를 피해의식속에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서울올림픽은 이같은 잘못을 거울삼아 경기규칙을 개정 또는 강화시키는 한편 심판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올림픽에서의 한국태권도는 세계태권도 명인들의 타게트가 될것이 분명하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규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여건이 좋은 미국 소련 동독등 스포츠 강국들이 물량지원을 통해 무섭게 발전할 것으로 보여 경기룰의 변경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인선수의 육성 발전등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겠지만 헤비급은 이미 미국 네델란드등에 메달을 뺏긴바있고 지난해 세계대회에서는 페더급마저 메달을 잃는등 벌써부터 벅찬 도전을 받아오고 있다.

이제 태권도 그자체는 한국이 뿌리이지만 경기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세계의 것이 됐으며 이것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빠르게 세계의 태권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과격한 스포츠라는 관념에서 탈피하는게 시급하다. 이문제는 지난 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선수보호를 위해 헤드기어를 착용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헤드기어의 착용으로 체력이 좋은 미국 유럽 선수들의 공격이 더욱 과감해지고 있어 서울올림픽에서는 이에 대비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작전을 펼쳐나가야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8서울올림픽은 세계의 벽으로 알려진 태권도종주국의 벽이 얼마나 침식당할까가 의문시되고 있다.

태권도는 경기장 배정에 있어 이번 올림픽대회 경기장중 교통의 최대요지인 장충체육관을 배정받았다.

태권도는 서울올림픽에 있어 규정종목은 아닐지라도 국민의 화합 단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대회의 조직 운영에 있서 매끄러운 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참여 스포츠에서 관람스포츠로 전향을 위한 각종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태권도는 또 경기뿐만 아니라 종주국 방문을 원하는 수련생 및 관광단 유치에도 힘써야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등지에서 매년 1천명이상의 수련생과 국기원 방문단이 내한했었다.

이번 서울올림픽에서는 참가선수단 이외에도 많은 수련생과 관광단 일행이 내한할 것으로 보여 스포츠를 통한 관광 수입면에서도 큰 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권도는 지난 2월26일 남태평양게임 개최국인 파푸아 뉴기니아 조직위원회로부터 오는 91년부터 정식경기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통보를 받아 태권도인들을 기쁘게 했다.

남태평양 대회는 남태평양의 큰섬을 제외한 작은 섬으로 구성된 15개국대회로 이들 국가가 3년만에 한번씩 개최하는 대회이긴 하지만 이제 태권도는 서방국가는 물론 동구권에서 아프리카 및 작은 섬나라까지 보급돼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를 굳혔고 서울올림픽은 태권도의 갈채와 함성을 부를 기회인 것만은 틀림없게됐다.

「벽을 넘어서」 태권도시범을 보인다

— 미동국민학교 '88태권도 시범단 —

1988년 9월 17일 오전 11시

올림픽 팡파레가 울리면 전세계 50억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막이 열리게 된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펼쳐지게 될 개회식과 폐회식은 공식행사와 예술공연이 있는데 약1만 3천명의 출연진에 의해 공연되는 작품들은 인종과 이념과 빈부의 벽을 넘어서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펼쳐보이게 된다.

개회식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20분 동안 선수단 입장, 대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개회식, 올림픽기 게양, 성화점화, 올림픽선서, 애국가연주, 선수단퇴장 순으로 진행되며 식전행사와 식후행사를 펼치게 된다.

개회식 행사의 대 주제는 올림픽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벽을 넘어서」이다. 이중 가장 한국적인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부각시킴에 있어 태권도 시범 「벽을 넘어서」는 한국인의 기상과 웅비를 상징해주는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벽을 넘어서」를 연출할 태권도 시범단은 미동국민학교 국가대표어린이 시범단 100명과 '88시범단 희망자 380명중에서 200명을 선발해 전체 300명의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연출해 보이게 된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태권도의 위용은 지난 '86년 서울아시아 경기대회의 태권도 시범「약동」에서 여실히 펼쳐 보인바 있다. 그 당시 「약동」으로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은 세계인의 환호를 받는 가운데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88서울올림픽대회 개막식 공개행사에도 태권도 시범을 넣어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세계 각국의 인사들도 태권도 시범에 극찬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88서울올림픽공개행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막식 공개행사에 미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벽을 넘어서」를 연출한다고 확정된 것은 지난해 말이었다.

12월 방학과 더불어 미동국민학교에서는 '88개막식시범단을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시범연습에 들어갔다.

올림픽행사를 9개월 앞두고 태권도 시범이 확정 발표되어 시범단을 모집해 훈련시킨다는 것은 벅찬 일일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 경기대회에서의 극찬보다는 더 크고 멋진 태권도를 기대하는 국민과 세계인의 기대감이 클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루는 올림픽대회라는 역사적 의의에 비추어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단 몇분을 위하여 겨울방학 때 나와서 연습하는 어린이들, 그들은 더 열심히 태권도 수련을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88서울올림픽시범단원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동국민학교의 오래된 건물 위에는 「밝은 마음, 바른 버릇, 즐기로운 우리들」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운동장을 하나 가득 채운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듯 했다.

이규형 지도사범의 주춤서기, 몸통 두번지르기로 이어지는 구령에 맞춘 우렁찬 기합소리…

이들의 훈련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초기단계 2단계는 중기단계 3단계는 고기단계로 나누어져 겨울방학기간에 초기단계를 마스터하여 태권도의 기본기술을익히고 금년 6월까지 작품「벽을 넘어서」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7·8월 두달 동안은 보강훈련에 들어가「벽을 넘어서」를 완벽하게 연출해 보이도록 리허설과 함께 다듬어 나가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은 겨울방학 동안 오전에 1부가 오후에는 2부팀이 연습을 하고 있다.

1부는 '88태권도시범단을 하고자 하는 희망자 380여명이 매일 매일 태권도 품새부터 시작해 태권도의 기술을 익혀나가고 있다. 2부팀은 국가대표어린이 시범단 100명이 고도의 태권도 기술을 구사하며 세계인의 가슴에 태권어린이의 기상을 펼쳐보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1부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겨울방학을 마칠때 '88시범단으로 선발하는 200명안에 들기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들은 태권도 기술향상만이 아니라 학업성적면에서도 우수해야 '88어린이 시범단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와 태권도를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연습에 있어서도 지각이나 결석 또는 말썽등으로 학생들의 지적을 받게되면 자동탈락하기 때문에 품의면에서도 인정을 받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규형사범은 특히 '88시범단원이 되고자 희망해 연습하고 있는 380여명에 대하여 비록 이중에 200명만이 시범단으로 선발되겠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태권도시범연습을 통하여 태권도 기술을 익혀 전원이 1급을 따내도록 하여 태권도 수련생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의 배려도 잊지 않았다.

'88태권도 시범단원 이민재 어린이는「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세계인의 축제에 한국의 어린이 대표로 나간다는 자부심」때문에 시범단에 나오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태권도 수련이 어려웠으나 품새를 익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도 향상되어나날이 재미 있어진다며 이번 겨울 방학이 가장 신나는 방학을 보내는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양효진 어린이는 처음에 몸이 허약해 어머님이 태권도 수련을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겠느냐며 걱정을 하였으나 아버님께서 허약할수록 운동을 해야한다며 태권도를 해보라고 권유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체력과 정신력이 강해져 집안에서 모두 좋아하신다고 했다.

전지혜 어린이는 태권도 수련후 예의교육 등을 배워 부모님이 좋아하실 뿐더러 그동안 빈혈증세가 있어 보약을 먹었으나 태권도 수련 후에는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고 보약은 먹지 않기로 했다며 스스로 대견스러워했다.

'88 시범단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맡게될 한국 국가대표 어린이 시범단 100명은 고도의 기술과 정신력을 단련하고 있으며 '88시범단원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한국 태권어린이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맡은 어린이는 국가대표어린이 시범단 주장으로 선출된 정 훈 어린이이다.

미동국민학교 시범단에서는 시범단의 주장을 선출하는데 있어 자치적인 민주주의 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우선 주장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주장신청서를 전임 간부들에게 제출하면 간부단이 일단

시범단 주장과 부주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게된 정 훈·서준호 어린이

이들을 심의하게 된다. 공정한 심의기준에 의해 간부회의를 거쳐 주장신청자 중에서 후보명단을 시범단에게 공고하게 되면 이들 후보들이 소견을 발표하고 비밀투표에 의해 주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후보들 중에서 다시 부주장을 선출하게 된다. 1988년도 주장신청서를 낸 학생은 총20명이었는데 12명이 후보로 공고되어 비밀투표를 통해 이중 정 훈어린이가 주장으로 선출되었고 서준호 어린이가 부주장을 맡게 되었다. 이들 어린이는 시범단을 이끌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겨울방학동안 전임 간부들로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고 졸업식날 주장 이취임식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범단을 이끌게 된 것이다.

주장으로 선출된 정 훈어린이는 소견발표에서 강당이나 교내운동장 등에서 휴지하나라도 앞장서서 줍는 성실한 자세로 시범단을 이끌겠다고 공약해 태권도시범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선출된 것이다.

4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해 현재 2 품인 정 훈어린이는 어려서 큰 일을 해봐야 커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주장 선출에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해 미래의 한국을 짊어질 태권어린이의 기개를 펼쳐보이는듯 했다.

서울올림픽대회의 막이 오를날은 며칠남지 않았다.

세계인이 즐겨하는 태권도를 우리 미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종주국을 대표해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된다. 그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이 전태권도인, 한국인들, 더나아가 세계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리라 믿는다.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후배들을 바라보며

김 종 원
(미동국민학교 태권도부)

1988년 9월 제24회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의 후배들이 최대의 규모인 잠실운동장에서 시범을 하게 된다.

우리 6학년은 86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했지만 자랑스런 후배들은 제24회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다.

나는 6학년이라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후배들이 자랑스럽게도 올림픽에 참가하여 선배인 입장에서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훌륭하신 이 규형 사범님 지도 아래에서 정신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충. 효. 예' 정신을 더욱더 일깨워 주신다.

충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정신이며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 어른들을 존경하는 정신이다.

예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윤리라고 말씀하신다.

> 후배들은 우리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힘찬 기합소리와 도복자락이
> 찢어질 정도로 힘찬 동작으로 이마의 땀방울은
> 한 겨울도 잊은 듯하다.
> 「최선을 다하자」라는 목표 아래에서 서울올림픽 시범연습에
> 참가하는 후배들을 보면 선배로서도 흐뭇한 기분이 든다.

또, 태권도는 발차기와 손으로 지르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내력, 강인한 백절불굴의 정신. 투지, 근력, 순발력, 민첩성, 협동심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후배들은 우리 학교가 떠나갈 정도로 힘찬 기합소리와 도복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힘찬 동작으로 이마의 땀방울은 한겨울도 잊은 듯하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목표 아래에서 서울올림픽 시범연습에 참가하는 후배들을 보면 선배로서 흐뭇한 기분이 든다.

사범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시며 88올림픽에 참가하는 인원을 대비하여 4~5학년을 지도하시느라 수고는 한층 더 해가신다.

후배들은 6학년 선배들이 해놓지못한 올림픽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심신단련과 더 나아가서는 국위를 선양하는 영광스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88올림픽은 최대의 큰규모로 167개 초청국중 161개국이 참가하게 되어 더욱더 뜻있게 생각된다.

나는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무사히 개최되어 각 나라가 정정당당히 선의의 경쟁을 펼쳐 세계인의 축제가 되길 마음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후배들이 훌륭하신 사범님 밑에서 피나는 노력과 땀어린 훈련의 효과는 서울올림픽의 식전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고 국위선양에 힘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배 중에서도 주장인 정 훈, 부주장인 강성권과 유동욱 또, 간부들 외 여러 후배들은 여러사람들의 기대 아래에서 피땀어린 훈련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

사범님께서도 지도하시기 전이나 지도가 끝나면 30분정도는 정신교육을,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소견서를 쓰게하여 사범님께서의 잘못된 점은 없는지?

한주일 동안에 반성해야 될 제자는 없는지?

한주일 동안에 노력하고 착하고 아주 성실한 제자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점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된다.

또 86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수고을 많이하신 분이시며, 이번 올림픽에서도 태권도 지도와 안무라는 임무를 맡고 계신다.

우리 태권도부는 사범님의 지도를 받을때 사범님은 호랑이 사범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호랑이 사범님 지도아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러나 오락회를 갖거나 운동이 끝나면 사범님은 언제나 다정하신 웃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후배들이 사범님의 지도 아래에서 열심히 훈련하여 제24회 서울올림픽을 86아시아경기대회 때보다 더욱 더 인기높게 멋진시범을 하면 좋겠다.

자랑스런 후배들이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을 멋있게 보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선진국 대열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며 세계의 대제전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세계 각국의 시선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모아져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룩될 것이며 제 24회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통일도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특집 III

태권도 경기

한국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

2.3~5, 상무체육관

1. 대회 개요

'88서울올림픽태권도 시범경기에 종주국 대표선수로 출전하게 될 대표선수 1차 선발대회가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차선발전에는 총311명의 전국규모대회 입상자(1위, 2위, 3위)들이 불꽃튀는 경기를 펼쳐 각 체급별 토너멘트 개인전에서 우승자 1명을 선발하였다.

체급별 우승자 8명은 '87년도 국가대표선수선발 최종 평가전에서 입상한 각체급별 3명(1위, 2위, 3위) 및 '87년도 우수선수 선발대회에서의 각 체급별 1위자와 함께 최종평가전에 출전하게 된다.

2. 경기 내용

2월 3일 대회 첫날 경기는 플라이급 1차 예선전부터 시작되어 체급별 1, 2차 예선전을 마쳤다.

A코트의 인천체고 윤정섭선수대 풍생고 김훈섭선수의 대전과 B코트의 서울체고 박정화선수대 경희대 조기현선수의 대전으로 시작된 첫날 경기부터 대회의 중요성을 역력히 내보이는 듯 활기찬 경기가 막을 올린 가운데 김훈섭선수와 조기현선수가 판정승으로 각각 2차예선전에 진출했다.

이어 벌어진 전북체고의 정을진선수와 인천전문대의 전동준선수의 대전은 2회 10초만에 전동준선수가 뒷차기로 복부강타 후 연속으로 앞돌려 차기를 성공하여 통쾌한 K. O승을 장식하기도 했다.

밴텀급 예선전에는 지하철공사의 고정호선수가 출전, 상무의 임석섭선수를 맞아 우세한 경기운영과 정확한 득점 등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랐는데 고정호선수의 코치로 등장한 지하철공사의 정국현선수는 코치겸 선수로서의 1인 2역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웰터급 국가대표 정국현선수는 올해부터 지하철공사의 코치를 역임하게 되어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코치석에 앉았다고 하는데 「선수로 뛸 때보다 더 어려운게 코치」라며 코치로서의 소감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앞으로 코치로서 경기장에 나왔을 때는 상대방 선수를 파악하여 우리의 선수가 간단하고 정확하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부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페더급 예선전에서 상무의 김용성선수와 한국체대 하계수선수의 대전은 1회에 하선수가 우세한 경기로 기선을 잡는 듯 했으나 2회 말부터 김선수가 득점을 올리며 역전승을 거두고 2차전에 올랐다.

라이트급 예선전에서는 한국체대의 박만성선수와 성동고의 박진석선수가 불꽃튀는 접전을 벌였는데 3회전에 박만성선수가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승리를 거두었다.

2월 4일

대회 이틀째 경기는 페더급 2차 예선전까지 펼쳐져 각 체급별 4강이 확정되었다.

조선대의 김우창선수 대 풍생고의 이제범선수의 대전으로 막을 올린 페더급 경기는 고교선수로서 패기를 살려 시종 우세하게 공격을 펼친 이제범 선수가 승리, 장내는 풍생고의 행진을 축하하듯 열띤 박수로 떠나갈듯했다.

이어 벌어진 유도대의 이일섭선수 대 경희대의 김경환선수의 대전은 서울체고시절에 최우수선수로 명성을 날리다 경희대 진학후 무릎수술 등으로 슬럼프에 빠졌던 김경환선수가 이번 대회에 출전, 다량득점으로 승리를 거두며 재기전에 돌입하는듯 했다.

한편 페더급에 출전한 지하철공사의 전 국가대표 정승환선수는 청주대의 김상래선수를 맞아 우세한 경기운영에도 불구하고 2회전에 실점을 함으로 석패, 예선에 탈락하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라이트급 2차 예선전에서는 경희대의 이종학선수가 4득점, 서울체고의 박세진 선수가 3득점을 올리는 열띤 경기로 손에 땀을 쥐게 하다 득점에 앞선 이종학선수가 8강에 선착했다.

한편 헤비급 1차전 경기에서는 전 미들급 국가대표선수인 지하철 공사의 김종석선수가 조선대의 정택주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승리했고 대전체고의 김용귀선수는 상무의 정치호선수를 누르고 승리해 헤비급의 새로운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김용귀선수는 대통령기대회 고등부 헤비급우승자 출신으로 힘이 좋고 기량도 다양해 고교의 새로운 중량급선수로 부상했다.

미들급 2차예선전에서는 한국체대의 정주석선수와 동의대의 윤정원선수가 접전, 윤선수가 1회전 종료후 우세판정을 받자 한체대의 코치석에서는 심한 어필로 경기장질서를 무너뜨리자 배심석에서는 감점을 주었고, 이어 2회전경기가 속행되었는데 정선수의 공격에 윤종원 선수가 얼굴을 맞자 코치가 수건을 던져 기권함으로써 정주석선수가 기권승을 거두는 헤프닝도 있었다.

한편 8강전 경기중 페더급에 출전한 리라공고의 최종국선수는 경상대의 김용석선수를 누르고 4강에 올랐는데 리라공고의 코치석에서는 2번, 3번 등 암호로 공격을 지시하기도 해 관중의 눈길을 끌었다.

2월 5일

대회 마지막 날 경기 준결승전에서부터는 2분3회전 30분 휴식 경기방식에서 3분 3회전 중간휴식 1분으로 경기를 펼쳤고, 결승전은 단일코트에서 실시했다.

핀급 8강전은 대전체고의 윤희준선수가 풍생고의 김영웅선수를 맞아 시종우세한 경기로 가볍게 4강에 진출했고 경기대의 임창섭선수는 경남체고의 황몽환선수를 맞아 계속 우세와 득점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했다.

플라이급 8강전에서는 대회 출전선수중 고교생으로 가장 어린 부산체고 1년생인 박재성선수가 국가대표를 역임한바 있는 백전노장 인해진선수를 맞아 패기를 앞세우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펼쳤다.

비록 득점에 밀려 박선수가 탈락하긴 했으나 쉬임없는 적극적인 공격과 방어는 높이 평가 할 만했다.

페더급 8강전에서는 동아대의 정회석선수와 한국체대의 장혁선수가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쳐 승부를 판가름할 수 없었는데 3회전 경기종료 10초전에 장신을 이용하여 앞밀어차기를 극적으로 성공시킨 장혁선수가 4강전에 올랐다. 이들은 경기를 마친

후 두선수가 상대선수의 선전을 격려하듯 승패에 관계없이 진지하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좋은 모습이었다.

8강전을 마치고 4강전에 돌입하자 경기장 분위기는 더욱 더 고조되어 갔는데 이는 선수들 소속팀의 열띤 응원전에서도 실감나게 했다.

핀급 준결승전에는 전북체고의 윤철선수, 대전체고의 윤희준선수, 경기대의 임창섭선수, 풍생고의 최기훈선수가 진출하였는데 윤희준선수는 쉬임없는 공격력과 멋진 기술로 주도권을 잡아 결승전에 올랐고, 임창섭선수는 앞차고 뛰어돌며 돌려차기의 아기자기한 기술을 발휘하며 결승전에 올랐다.

윤희준선수와 임창섭선수의 결승전은 1회전부터 두선수가 열띤 공격으로 3번이나 서로 차고 넘어지는 등, 홍분이 고조되었으나 득점이 없는 가운데 임선수가 우세판정, 2회전에는 위력있는 주먹공격을 펼친 임선수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듯 했으나 유효한 공격을 가한 윤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돌아가 승패를 가름할 수 없는 가운데 3회전에서도 역시 이렇다할 득점이 없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진행하였다. 결국 임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돌아가 임선수가 최종평가전에 출전할 자격을 획득했다.

플라이급 준결승전에서 상무의 김준태선수와 지하철공사의 인해진선수의 대전은 두 선수가 전 국가대표선수 출신으로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상하리만큼 다량득점을 내는 가운데 김준태선수가 승리했다. 또한 한국체대의 권혁선수와 경상공고 정재성선수의 대전은 신장면에서 월등한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긴리치를 살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간 정재성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어 고교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김준태선수와 정재성선수의 결승전은 노련한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약게 경기운영을 하는 김준태선수를 앞돌려차기, 옆밀어차기 등 패기에 넘친 공격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 우세판정을 끌어내어 정재성선수가 우세승을 올리며 1차관문을 통과, 플라이급 고교생 새 강자의 탄생을 알렸다.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명	소 속 및 학 교 명	학년반
핀 급	1	임 창 섭	경 기 대	1
	2	윤 희 준	대 전 체 고	2
	3	윤 철	전 북 체 고	1
	3	최 기 훈	풍 생 고	1
플라이급	1	정 재 정	경 상 공 고	2
	2	김 준 태	국 군 체 육 부 대	
	3	인 해 진	지 하 철 공 사	
	3	권 혁 선	신탄진고(한체대입학예정)	3
밴텀급	1	조 영 남	동 성 고(동아대입학예정)	3
	2	조 규 식	청 주 대	1
	3	진 재 성	풍 생 고	2
	3	양 춘 열	한 체 대	1
페더급	1	장 혁	서울체고(한체대입학예정)	3
	2	임 채 수	유 도 대	3
	3	김 상 래	청 주 대	3
	3	오 병 철	부산체고(한체대입학예정)	3
라이트급	1	김 찬 구	국 군 체 육 부 대	
	2	홍 문 주	숭 실 고	2
	3	박 만 성	한 체 대	2
	3	조 성 철	유 도 대	3
웰터급	1	박 용 웅	경 희 대	4
	2	신 용 욱	경 상 대	2
	3	강 승 수	오 현 고	2
	3	진 정 우	부산체고(한체대입학예정)	3
미들급	1	공 두 환	성 동 고(경희대입학예정)	3
	2	박 은 석	유 도 대	3
	3	이 화 상	동 아 대	3
	3	이 강 식	국 군 체 육 부 대	
헤비급	1	김 종 석	지 하 철 하 사	
	2	김 재 욱	동 아 대	1
	3	김 현 일	유 도 대	4
	3	김 용 귀	대 전 체 고	2

1차선발전은 국가대표최종선발전 진출티켓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펼쳤다.

페더급 준결승전은 한국체대의 동문끼리 경기를 펼쳐 오병철선수에게 장혁선수가 기권승을 거두었고, 유도대의 임채수선수대 청주대 김상래 선수의 대전은 임채수선수가 초반에 다량득점으로 승세를 굳히며 각각 결승전에 올랐다.

장혁선수는 결승전에서 긴리치로 서울체고시절의 명성을 과시라도 하는듯 선제 공격을 퍼부우며 왼발돌려차기에 이은 오른발 돌려차기의 성공 등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는 숭실고의 홍문주선수가 유도대의 조성철선수를 맞아 다양한 기술로 판정승을 거두어 결승에 진출, 상무의 김찬국선수와 경기를 펼쳤는데 경기의 흐름을 노련하게 파악하여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시킨 김한국선수가 대표선수 최종선발전 티켓을 따냈다.

한편 웰터급 준결승전에서는 오현고의 강승수선수가 경상대의 신용욱선수를 맞아 1, 2회전을 계속 우세로 몰아가 우세승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3회 1분 30초경 등을 보이며 경고를 받고 패하고 말아 경기에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다. 결승전에서는 경희대의 박용웅선수가 1회초반부터 다량득점을 올리는 가운데 신용욱선수를 가볍게 제압했다.

미들급 준결승전에는 경희대의 공두환선수대 동아대의 이화상선수 모두 경고와 감점, 득점이 뒤섞인 가운데 치열하다고 표현해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는 열띤 경기를 펼쳤는데 공두환선수가 득점면에서 한발앞서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에 오른 공두환선수는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긴리치로 방어하는 유도대의 박은석선수를 맞아 득점을 내지 못하다가 3회말 들어 찍기 공격이 적중하며 득점을 얻어 승리를 안았다.

헤비급 준결승전에서는 동아대의 김재복선수가 유도대의 김현일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결승에 올랐고, 지하철공사의 김종석선수는 대전고의 유망주 김용귀선수를 맞아 점프뒷차기 공격 등을 시도하는 김선수를 밀어차기 등으로 방어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김재옥선수와 김종석선수의 결승전은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를 멋지게 장식하겠다는 마음의 각오로 신중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는데 김종석선수가 받아차기를 성공시키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특집 III 태권도 경기

'88년도 한국여자대표선수 선발대회

2.9~10. 상무체육관

다가오는 9월에 개최될 '88서울올림픽대회 뿐만 아니라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네팔에서 개최되는 제8회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될 여자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 총132명의 선수가 치열한 접전끝에 대표선수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될 대표선수 8명을 배출했다.

대회 첫날 경기는 23명이 출전한 페더급예선전으로 시작되었으며 밴텀급 경기에는 21명이 출전했는데 보영여종고의 조명희선수와 인천체고의 박동선선수의 대전은 여자부경기에서는 보기 드물게 3득점을 빼내는등 박동선선수가 많은 공격으로 판정승을 거두었다. 이어 벌어진 성신여대 모미라선수와 천안여고 공오분선수의 대전은 모미라선수가 주먹공격 등으로 계속해 경고를 받자 코치석에서 수건을 던져 기권했다. 또한 유도대 박현숙선수와 보영여종고 김미진선수의 대전은 5:0이라는 다득점으로 박선수가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한판승이었다.

페더급 예선전에서 보영여종고의 김혜정선수대 성신여대 박현순선수의 대전은 3회 50초경에 일방적인 공격으로 박현순선수에게 주심직권승이 선언되기도하였다.

한편 2차 예선전이 펼쳐진 밴텀급경기는 인천체고의 박동선선수대 같은 학교의 배재은선수의 대전으로 소극적인 공격으로 일관하다 경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2회전을 마치고는 7:2라는 다득점이 나와 3회 15초경에는 박동선선수에게 주심직권승이 선언되었다.

라이트급 2차 예선전에서는 경희대의 이은영선수와 문성여상 이선희선수의 대전으로 화이팅 넘친 경기를 펼친 신예 이선희 선수를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방어한 이은영선수가 8강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상명여대 박진경선수대 천안여고 정남숙선수의 대전에서는 신예 정남숙선수가 많은 득점으로 대회경험이 많은 박진경선수를 누르고 8강전에 오르기도 했다.

미들급 예선전은 청산여상의 김기옥선수와 상명여대 양인덕선수의 대전으로 강호끼리 대전을 펼쳐 1회전을 마치고 배심이 심판위원을 불러 협의할 정도로 신중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결국 양인덕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여성태권도계의 대표적인 유망주 수성여중의 원선진선수는 핀급 8강전에 올라와 국가대표인 청산여상의 장이숙선수를 맞아 돌려차기 몸통공격 등을 성공시키며 승리했다.

이틀째 경기는 전날에 이어 플라이급 8강전이 펼쳐졌다.

여수중앙여고 박은미선수와 경희대 이영선수의 플라이급 8강전은 키는 적으나 다부지게 몰아 붙여 1회전에 우세를 얻고 2회전도 그 여세를 몰아 우세를 따낸 박은미선수가, 3회전에 이영선수가 30초 정도 반짝 힘을 쓰는듯 했으나 경기도중 무릎집

고 허리구부리기를 5회이상하는 등, 경기불능지경에 이르러 결국 신예 박은미선수가 노련한 선배를 물리치고 4강에 오르는 행운을 얻었다. 이영선수는 대회에 앞서 지나친 감량으로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력감을 나타내 체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기도 했다.

밴텀급 8강전에서 문성여상의 권혁실선수는 인천체고의 박동선선수를 맞아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 박동선선수가 권혁실선수의 공격을 이용한 역공격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4강에 진출해 새로운 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라이트급 8강전에서는 경희대의 이은영선수가 위례상고의 김지영선수를 맞아 전회 우세판정으로 4강에 오르긴 했으나 무명의 신인에게 이렇다할 득점하나도 빼내지 못하고 경기의 흐름에서 우세하여 힘겹게 승리, 국가대표급다운 면모를 보일 것을 기대한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문산여중의 진혜윤선수와 천안여고의 정남숙선수의 대전은 두 학교 다 지방에서 태권도 명문고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출전, 학교의 명예를 짊어지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진혜윤선수가 1회초반 선취득점을 올려 기선을 잡는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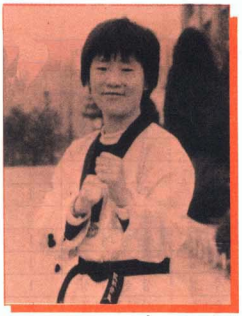
헤비급 8강전에는 국가대표인 명지대의 장윤정선수가 신예 문성여상의 이성미선수를 맞아 이렇다할 득점없이 1, 2회전을 우세하게 이끌고 우세승으로 겨우 체면유지를 했는데 3회전에 이성미선수가 뒷차기 공격의 시도가 유효한듯 하였으나 우세판정에 그치자 코치석에서는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데 대해 어필이 있었다.

헤비급 8강전에 이어 핀급 4강전이 펼쳐지자 장내는 수성여중 원선진선수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성일여상의 신보영선수와의 준결승전을 지켜보았고 결승전에 진출한 원선진선수는 역시판정승으로 결승에 올라온 청산여상의 이화진선수와 일전을 벌여 국가대표선발전중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1회전에 왼발밀어차기 공격을 시도한 원선수를 맞아 이화진선수는 긴리치를 이용해 선전, 1분 20초경에 밀어차기를 시도한 원선수의 공격을 받아차 득점을 올리자 이어 원선진선수가 반격을 가해 1회전 종료후 1:1 동점을 이룬 가운데 2회전에 들어섰다. 청산여상의 김영인코치는 원선진선수의 주특기인 왼발밀어차기 기술을 차단하고 받아차기 시도를 이화진선수에게 주문하여 2회전은 이선수의 역공이 화려했다. 3회전에서도 받아차기를 성공한 이화진선수는 날로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88서울올림픽유망주로 손꼽히던 원선진선수를 당당히 누르고 기쁨을 안았다. 이번 경기는 그 무엇보다도 상대선수의 기량을 파악, 적절한 방어와 공격을 전략적으로 운용한 코치의 역량을 높이 평가할만한 경기였다.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이경기는 선수의 기량면에서는 원선수가 앞섰고 코치의 작전에

핀급 1위 · 이 화 진

플라이급 1위 · 추 난 률

밴텀급 1위 · 박 선 영



페더급 1위 · 김 소 영

라이트급 1위 · 이 은 영

웰터급 1위 · 김 지 숙

서는 청산여상이 앞서 지도자 역량의 중요함을 인식시킨 한판이었다.

플라이급 준결승전에서는 문성여상의 박영신선수가 북인천여중의 김민정 선수를 맞아 경량급으로서는 많은 득점을 올리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또한 청산여상의 추난률선수가 여수중앙여고의 박은미 선수를 가볍게 제압하고 결승전에 올라갔다. 추난률선수는 핀급의 이화진선수의 승리에 이어 1회전 초반부터 공격을 득점과 연결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서 또한번 청산여상의 영광을 드높였다.

밴텀급 준결승전에서는 '87년도 국가대표 선수인 박선영(경희대) 선수가 인천체고의 신예 박동선선수의 추격을 근소한 차이로 뿌리치고 판정승을 얻었는데 아깝게 분패한 박동선선수는 승패선언후 경기장을 나가지 않고 판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 경기장 질서를 흐리기도 했다.

밴텀급 결승전은 경희대 박선영선수와 청산여상 박추경선수의 대전으로 청산의 선후배사이인 이들은 접전을 거듭했으나 전 국가대표인 박선영선수의 노련미가 후배를 물리치고 승리를 안았다.

페더급 준결승전은 '87년도 국가대표 김소영(성신여대)선수가 청산여상의 이현화선수를 맞아 1회에 우세판정, 2회에 공격다운 공격이 없는 가운데 돌려차기를 유효하게 공격한 이현화선수가 우세판정을 얻었으나 3회전에 겨우 우세 판정으로 체면유지를 한 김소영선수는 결승전에 올라와 인천체고의 신예 박정희선수의 맹추격을 견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김선수는 뛰어뒷차기가 얼굴을 적중시켜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안았는데 다부지게 도전해 박수를 받은 박정희선수도 앞으로 우수선수로서의 장래를 예견하는 신예로서 부각되었다.

라이트급 준결승전에서는 성신여대의 남정동선수가 2회중반에 돌려차기 성공으로 승세를 굳히며 판정승을 거두었고, 경희대의 이은영선수는 1회에서 1득점을 올리며 2, 3회를 우세로 판정승, 각각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남정동선수는 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이은영선수를 맞아 조금도 위축된 모습없이 계속 공격을 펼쳐 흥미진진한 경기를 연출했는데 결국 노련한 이은영선수가 우세승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웰터급 결승전에서 경희대의 김지숙선수도 암사체육관의 원영숙선수를 맞아 전혀 이렇다할 득점없이 우세승으로 국가대표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미들급 준결승전에서는 경희대의 김현희 선수가 인천전문대의 나진아선수에게 기권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청산여상의 장철선수를 맞아 오른발 돌려차기 얼굴성공으로 득점을 올리며 패권을 차지했다.

헤비급 준결승전에서는 명지대의 장윤정선수가 청산여상의 박은주선수를 2회 10초경 들어찍기 성공으로 K.O 직전까지 몰고가 35초경에 기권승을 거두며

미들급1위·김 현 희

헤비급1위·장 윤 정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및학교명	학년반
핀 급	1	이 화 진	청 산 여 상	1
	2	원 선 진	수 성 여 중	1
	3	신 보 영	성 일 여 상	3
	3	김 민 정	천 안 여 고	1
플라이급	1	추 난 률	청 산 여 상	1
	2	박 영 신	문 성 여 상	1
	3	김 민 정	북인천여중	2
	3	박 은 미	중 앙 여 고	1
밴 텀 급	1	박 선 영	경 희 대	1
	2	박 추 경	청 산 여 상	1
	3	김 은 숙	천안동여중	3
	3	박 동 선	인 천 체 고	2
페 더 급	1	김 소 영	성 신 여 대	3
	2	박 정 희		
	3	석 소 정	유 도 학 교	1
	3	이 현 화	청 산 여 상	2
라이트급	1	이 은 영	경 희 대	2
	2	남 정 동	청 산 여 상	3
	3	진 혜 윤	문 산 여 중	3
	3	이 연 경		
웰 터 급	1	김 지 숙	경 희 대	3
	2	원 영 숙		
	3	고 재 경	성 신 여 대	1
	3	최 귀 재	청 산 여 상	2
미 들 급	1	김 현 희	경 희 대	2
	2	장 철	청 산 여 상	1
	3	이 미 라	배 성 여 상	2
	3	나 진 아	인천전문대	1
헤 비 급	1	장 윤 정	명 지 대	4
	2	정 완 숙	성 신 여 대	2
	3	박 은 주	청 산 여 상	1
	3	최 지 숙	인천전문대	1

결승전에 올라 성신여대의 정완숙선수를 맞아 판정승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청산여상이 여자대표선수 발굴의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경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핀급의 이화진선수, 플라이급의 추난률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음은 물론 박추경선수가 밴텀급 2위, 이현화선수가 페더급 3위, 남정동선수가 라이트급 2위, 최귀재선수가 웰터급 3위, 장철선수가 미들급 2위, 박은주선수가 헤비급 3위를 차지하는 등,8체급 모두 입상자를 배출하는 신기록을 내는가 하면 박선영(밴텀급), 김소영(페더급), 김지숙(웰터급), 김현희(미들급) 선수도 모두 청산여상출신이어서 모두 8명의 국가대표선수중 6명의 선수가 청산여상 졸업생 또는 재학생이라는 경이적인 결과를 낳았다.

특집 III 태권도 경기

'88년도 한국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2.11~12. 상무체육관

1. 대회 개요

전세계 161개국이 참가신청을 한 사상 최대규모의 서울올림픽 대회의 태권도시범경기에 태권도 종주국 대표선수로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이 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상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2월 3일부터 5일까지 거행된 국가대표선수 1차선발대회에 이어 거행된 최종선발대회에는 1차선발대회 체급별 우승자 8명과 '87우수선수선발대회 각체급 우승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각 체급별 5명이 풀리그전을 통해 체급별 1, 2위를 선발하였다.

'88서울올림픽대회를 대비해 최종선발전에서 선발된 체급별 2명은 2월 22일부터 실시되는 강화훈련에 들어가 3~5차례의 평가전을 통해 우수자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다.

2. 팀별 출전현황

최종선발대회에 출전한 총40명의 팀별 출전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체대가 핀급, 플라이급, 미들급에 각 1명씩, 밴텀급, 페더급에 각 2명씩, 라이트급에 3명 등 총10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국가대표 선수의 산실로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실업팀으로서 완전 면모를 갖춘 지하철공사의 태권도팀

상무팀에서는 핀급, 밴텀급, 웰터급에 각1명씩, 라이트급, 미들급에 각2명씩 총7명이 출전했으며 경희대가 5명, 지하철공사, 동아대가 각 3명씩, 유도대가 2명, 그밖에 계명대, 경기대, 청주대, 조선대, 경남체고, 동성고, 경상공고, 부산시협회, 설악케이블카, 제천시청 등에서 각 1명씩을 출전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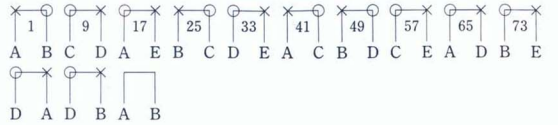
3. 각 체급별 경기

9시 30분 정각!

'88서울올림픽 태권도시범경기

●핀　　급

기호 / 성명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임 성 욱		×	×	○	○	2	2	3	
B 장 종 원	○		×	×	○	2	2	3	
C 권 태 호	○	○		○	○	4	0	1	
D 임 창 섭	×	○	×		○	2	2	2	
E 이 종 선	×	×	×	×		0	4	5	



출전티켓을 따내기 위한 대표선발전은 지금까지 개최되어온 국내외 대회보다도 그 비중을 가름할 수 없는 최대의 열기를 고조시킨 경기였다.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뛰어난 기량을 펼쳐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전력구상에 여념이 없었으며 심판원들은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으로 종주국 태권도를 대표할 선수를 선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첫날 첫 경기는 핀급에 출전한 임성욱(계명대) 선수와 장종원(경상대) 선수의 대전으로 시작되었고 배심에는 김대연, 김정대씨, 주심은 한상진씨가 맡았다. 임성욱선수와 장종원선수는 서로가 서로의 기량을 파악하고 있어 한치의 빈틈도 없이 공격과 방어를 펼쳐 이렇다할 득점을 내지 못하고 1, 2회전에 우세를 주고 받는 막상막하의 경기가 진행되었는데 3회전에 들어와 임성욱선수가 뒤로 빠지며 오른발 돌려차기로 대포소리나는 강타를 성공시켜 판정승을 거두었다.

또한 고교 재학생인 권태호(동성고)선수는 경기대 2년생인 임창섭(경기대) 선수를 맞아 고교생 특유의 패기와 공격으로 가볍게 판정승을 거두어 1승을 기록했고 이어 장종원선수와의 대전에서도 판정으로 승리, 2승을 거두었다.

1승 1패를 기록한 임성욱선수와 2승을 기록한 권태호선수의 대전은 선수들의 기량이 대동소이해 승패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코치의 역량이 더욱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임성욱선수의 윤종욱코치와 권태호선수의 김세혁 코치는 상대선수를 견제할 공격과 방어를 선수들에게 지시했다. 두 선수가 우세를 주고받는 가운데 미세한 차이로 권태호선수가 우승해 3승을 거두며 우승이 확정되었다.

각각 1승 1패를 기록한 장종원선수와 임창섭선수의 대전은 1회에 1:1동점에 임선수의 우세 판정이 내려지자 2회에 들어 임선수는 여세를 몰아 득점을 올리며 승세를 굳혔다.

핀급 1위 · 권태호 선수

핀급 2위 · 임창섭 선수

3승으로 우승이 확정된 권태호선수와 2패로 최하위권인 이종선선수의 대전은 1회전에 이선수가 뒤돌려차기 몸통공격을 성공시키며 앞서나갔으나 2회전부터 패기의 권태호선수가 받아차기, 몸통공격 등을 성공시키며 역전, 4승으로 핀급 최강자가 되었다.

한편 임성욱선수와 임창섭선수의 대전은 1승 2패의 임성욱선수가 2승 1패의 임창섭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어 동률을 이루게 되었고 장종권선수도 2승 2패를 기록해 3명의 선수가 재경기를 펼친끝에 임창섭선수가 2위로 확정되었다.

김준태(상무) 선수와 하태경(한체대) 선수의 대전으로 시작

● 플라이급

기호 \ 기호	성 명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김 준 태		×	○	×	○	2	2	3	
B	하 태 경	○		○	○	○	4	0	1	
C	이 해 진	×	×		×	×	0	4	5	
D	정 재 정	○	×	○		○	3	1	2	
E	전 응 환	×	×	○	×		1	3	4	

2	10	18	26	34	42 (기권)	50	58 (기권)	66	74
A	B C	D A	E B	C D	E A	C B	D C	E A	D B	E

플라이급 1위·하태경 선수

플라이급 2위·정재정 선수

된 플라이급경기는 두 선수의 소속팀인 상무와 한체대의 응원전이 열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펼쳐졌다. 1회전에 리치가 길고 패기 넘친 하태경선수가 경기를 리드하던 중 상단공격이 유효해 득점을 선취했고, 2회전에서는 공격해 들어오는 하태경 선수를 김준태선수가 받아차기를 성공시키며 반격을 가했고, 3회전에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공격, 이에 하태경 선수가 주춤하자 하태경선수의 코치석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할것을 주문, 이에 힘을 얻은 듯 하태경선수는 최선을 다해 3회전을 마무리 해 어렵게 1승을 올렸다.

부산시협회의 이해진선수와 1차선발전에서 우승한 고교의 샛별 경상공고 3년생인 정재정선수의 대전은 1, 2회에서 서로 우세를 주고 받는 가운데 3회전을 맞아 고교생 특유의 패기로 공격을 늦추지 않은 정재정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한편 각각 2승씩을 올리며 승승장구한 하태경선수와 정재정선수의 대전은 사실상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었다. 출전선수 중 가장 나이 어린 정재정선수는 하태경선수에게 1, 2회전에서 우세를 빼앗긴 열세한 입장에서 3회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그치고 하태경선수에게 패하였다. 하태경 선수는 3승으로 우승의 고지에 안착하였다.

2승 1패의 김준태선수와 정재정선수의 대전은 2위로 누가 결정되느냐하는 중요한 한판으로 1회전을 무릅부상과 오른발목부상 등으로 악전고투하며 선전한 김준태선수에게 우세판정이 돌아갔으나 2, 3회전에서 오른발 돌려차기 성공 등으로 득점을 올린 정재정선수가 2위로 확정되었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금메달 2연패를 자랑하는 국가대표 유명식선수와 신인 유망주 조규식선수와의 대전으로 시작된 밴텀급 경기는 1회전 유선수의 소극적인 경기운영으로 인해 별다른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가운데 펼

● 밴 텀 급

기호 \ 기호	성 명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유 명 식		○	○	×	×	2	2	3	
B	조 규 식	×		×	×	×	0	4	5	
C	함 준	×	○		×	×	1	3	4	
D	조 영 남	○	○	○		○	4	0	1	
E	지 용 석	○	○	○	×		3	1	2	

3	11	19	27	35	43	51	59	67	75 (기권)
A	B C	D A	E B	C D	E A	C B	D C	E A	D B	E

쳐졌으나 2회에 앞돌려차고 뒷차기의 멋진 공격으로 위협하는 유선수와 받아차기에 능한 조선수의 경기가 팽팽히 진행되다가 3회 1분 10초경 유명식선수가 앞발들어 밀어차기 성공 등으로 1승을 거두었다.

이어 벌어진 함준(한체대) 선수와 조영남(동아대) 선수의 대전은 고교시절 국가대표를 역임한 경력의 함준선수를 패기로 맞서 선취득점을 올리는 조영남선수의 불꽃튀기는 접전의 연속이었는데 우수한 기량으로 다양한 공격을 펼치는 함준선수를 체력의 우세와 화이팅 넘친 반격으로 맞선 조영남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다.

유명식(한체대) 선수와 지용석(상무) 선수의 대전은 경량급 경기의 압축된 참모습이라 할 수 있었는데 특히 고도의 기술교환이 가히 일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기에서 특히 유명식선수는 세계챔피언다운 기술을 발휘했고 지용석선수는 군인정신으로 패기있는 공격끝에 5득점이나 나오는 공방끝에 기백에 있어 한수 위인 지용석선수가 간발의 차이로 1승을 거두었다.

한편 1승을 올리고 올라온 조영남선수는 지용석선수의 승세를 꺾기라도 하듯 경기의 흐름을 받아차기, 끊어차기 등으로 1, 2회를 우세하게 이끌자 3회전에 초조해진 지선수가 선제공격을 시도하자 조선수가 오른발돌려차기 몸통공격을 성공시키며 당당히 2승의 개가를 올렸다. 조영남선수는 경기에 자신을 얻은듯 조규식선수와의 대전에서는 여유있는 경기를 리드해 3승을 거두었다.

2승 1패를 기록한 유명식선수와 3승을 기록한 조영남선수의 대전은 두선수 모두에게 일생을 걸고 경기에 임할만큼 중요한 경기였는데 유선수의 경우 이번 경기를 이겨야만 동률로 재경기를 치룰 수 있다는 점에서, 조영남선수는 국가대표로 확정되느냐 마느냐의 순간이었다. 1회 조선수의 우세, 2회에 맹추격을 가하는 유선수를 방어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조선수 우세, 3회 1분 50초경 조선수는 오른발 받아차기 성공으로 우승의 기반을 다지며 연 2년 국가대표를 역임한 막강한 유선수를 제치고 약관 조선수가 밴텀급의 왕자가 되었다.

김병철(한체대) 선수는 임채수(유도대) 선수와의 첫시합을 우세하게 이끌어 우세승으로, 장혁(한체대) 선수는 윤정욱(경희대) 선수를 판정승으로 누르고 각각 1승씩을 차지했다.

장명삼(설아케이블카) 선수는 임채수선수를 맞아 계속 경기의

밴텀급 1위 · 조영남 선수

밴텀급 2위 · 지용석 선수

주도권을 잡으며 선전해 가볍게 1승을 기록했는데 장선수는 현재 광영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겸 설악케이브카소속 선수로 1인 2역을 겸비하고 있어 태권도 선수로서는 웰터급의 정국현선

● 페 더 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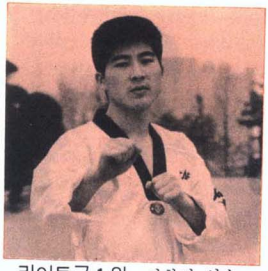
기호 \ 기호	성 명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임 채 수		×	×	×	×	0	4	5	
B	김 병 철	○		○	×	○	3	1	2	
C	윤 정 욱	○	×		×	×	1	3	4	
D	장 혁	○	○	○		×	3	1	3	
E	장 명 삼	○	×	○	○		3	1	1	

4 A B　12 C D　20 A E　28 B C　36 D E　44 A C　52 B D　60 C E　68 A D　76 B E

E D　12 D B　20 B E　기권

페더급 1위 · 장명삼 선수

페더급 2위 · 김병철 선수



라이트급 1위 · 이창건 선수

라이트급 2위 · 박봉권 선수

수와 함께 날로 기량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팀의 활성화가 태권도선수들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을뿐더러 기량의 향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명해주기도 했다.

장명삼선수는 1승을 거두고 올라온 장혁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어린이시범단등에서 다듬어진 기본기를 바탕으로 점프뒷차기, 몸통공격, 뒤후리기 등 다양한 기술을 발휘하는 가운데 장신과 패기의 장혁선수를 누르고 2연승을 차지했다. 한편 장명삼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면 장선수의 출신학교인 동성고와 경희대에서 뜨거운 응원으로 성원을 보내 노익장을 과시하지 않으면 체면이 서지 않을 정도이기도 했다.

한편 2승을 올린 김병철선수와 1승 1패를 기록한 장혁선수의 대전은 같은 한체대 동문끼리의 대전이었는데 장혁선수가 우세한 경기와 득점으로 승리를 거두어 두선수의 전적은 같이 2승 1패가 되었다. 한체대팀에서는 장혁선수가 김병철선수를 이기고, 김병철선수가 남은 1게임인 장명삼선수와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3명의 선수가 승패의 동율이 됨으로 재경기를 펼쳐야 하기 때문에 장명삼선수의 경우 한체대생 2명을 상대로 경기를 치루게 되기 때문에 전략상 불리한 입장이 되게 하는 한 체대의 치밀한 작전이었다고 하겠다.

이어 벌어진 경기에서 장명삼선수는 윤정욱선수의 기권으로 기권승을 올리며 3승, 장혁선수는 임채수선수를 맞아 1회초반 내려찍기에 성공해 카운트8까지 몰고가는 등 가볍게 승리해 3승 1패를 기록했다.

마지막 경기인 김병철선수와 장명삼선수의 대전에서 장명삼선수는 이경기에서 이길 경우 4승으로 우승이 확정되나 질 경우 한체대소속 김병철선수, 장혁선수와 함께 3승 1패 동률로 재경기를 치루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었다. 장명삼선수는 이 경기에서 막상막하의 결전끝에 판정패함으로써 재경기를 돌입했다.

재경기에서 장명삼선수와 장혁선수의 대전은 장명삼선수가 우세하게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우세승을 거두었다.

김병철선수대 장혁선수의 대전은 장혁선수가 기권함으로써, 김병철선수가 1승, 장명삼선수가 김병철선수와 마지막 한판을 놓고 대결을 벌였는데 5년 후배를 맞아 체력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명삼선수는 1, 2회전 막상막하의 상황에서 3회종료전 사력을 다해 뒷차기에 성공함으로써 국가대표 1위로 확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페더급에서는 한체대 선수가 2명으로 한체대 숲을 헤쳐나온 노장 장명삼의 승리는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이트급 첫 경기는 같은 한체대생인 양대승선수와 이광노선수의 소극적인 경기운영으로 일관된 가운데 양대승선수가 1승, 두번째 경기는 같은 상무팀끼리의 대결로 이창건선수가 김찬구선수를 누르고 1승을 거두었다.

한체대와 상무팀의 대결로 일관된 라이트급 경기는 경기내용

● 라이트급

기호 \ 기호	성 명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양 대 승		○	×	○	×	2	2	3	
B	이 광 호	×		×	○	×	1	3	4	
C	이 창 건	○	○		○	○	4	0	1	
D	김 찬 구	×	×	×		×	0	4	5	
E	박 봉 권	○	○	×	○		3	1	2	

5 13 21 29 37 45 53(기권) 61 69(기권) 77

A B C D A E B C D E A C B D C E A D B E

보다는 응원전에서 경기의 열기를 가름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한체대와 상무팀의 첫 경기는 이광노 선수와 이창건선수의 대결로 시작되었는데, 이창건선수가 전회 우세판정으로 우세승을 거두며 2승을 기록했다. 이어 벌어진 김찬구선수와 박봉권선수의 대전은 박봉권선수가 우세한 경기와 앞돌려 차기연속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며 이창건 선수와 나란히 2연승.

이창건선수는 계속해 국가대표 양대승선수와 박봉권선수를 누르고 4연승을 기록하며 라이트급 1위를 차지했고 3승 1패를 기록한 박봉권선수가 2위에 안착했다.

웰터급경기의 첫시합인 정국현(지하철공사) 선수와 김용수(동아대) 선수와의 대전은 1, 2회전을 우세를 주고 받은 가운데 3회전에 체력에서 밀린 김용수 선수가 계속 크린치로 버티다 판정패당하였다. 정국현선수는 쉽지 않게 1승후 이어 윤순철(경희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우세로 어렵게 판정승을 거두며 2승을 기록했다.

박용웅(경희대) 선수와 윤순철선수의 대전은 경희대 동문끼리의 대전으로 코치없이 경기가 진행돼 2회전 종료후 박용웅선수의 기권으로 윤순철선수가 1승을 확보, 이어 벌어진 정국현 선수와 최상진선수의 대전은 가장 박진감 넘친 경기를 펼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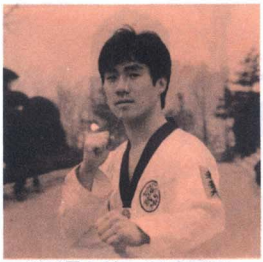
● 웰 터 급

기호 \ 기호	성 명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정 국 현		○	○	○	○	4	0	1	
B	김 용 수	×		○	○	○	3	1	2	
C	최 상 진	×	×		○	×	1	3	4	
D	박 용 웅	×	×	×		×	0	4	5	
E	윤 순 철	×	×	○	○		2	2	3	

6 14 22 30 38 46 54 62 70(기권) 78

A B C D A E B C D E A C B D C E A D B E

웰터급 1위 · 정국현 선수



웰터급 2위 · 김용수 선수

미들급 1위 · 정용석 선수

미들급 2위 · 이계행 선수

헤비급 1위 · 김종석 선수

헤비급 2위 · 김현일 선수

세계선수권대회 4관왕인 정국현 선수가 앞서 2승후 자신감을 얻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 오른발 받아차기 성공 등으로 1회전에 2:1, 최상진 선수도 만만찮게 도전해와 2회에는 최선수 우세, 3회전에 오른발 뒷차기를 성공시키는 정국현선수가 3연승을 기록하며 웰터급 정상에 가까와지기 시작했다.

이어 벌어진 김용수선수와 박용웅선수의 대전은 막상막하의 경기끝에 김용수 선수가 판정승으로 2승 1패기록.

정국현선수는 박용웅선수와의 마지막 대전에서 기권승을 얻어 가볍게 4승을 올리며 1위자로 확정되었고 김용수 선수와 윤순철 선수의 대전은 경기장 밖의 열기가 경희대쪽에서 과열되어 1회전을 2:1로 윤선수가 패하자 더욱 경희대쪽 열기가 고조되어 상식이하의 언동이 속출하자 윤선수도 같이 흥분하여 경고를 받았고 2회말에 실점을 하고 3회에 접어들자 경희대 밴취는 더욱 흥분하여 상식이하의 거센 언동으로 경기장 임원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였으며 선수도 더욱 과격해져서 감점을 3개나 받아 감정패를 당하는 경기장 초유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남겼으며 김용수 선수는 승리로 2위에 안착했다.

미들급의 이계행선수와 정용석(한체대) 선수의 대전은 막상막하의 접전의 연속이었다. 1회전에 이계행선수가 뒤돌려차기로 득점을 올리자 2회전에 정용석선수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져 두선수다 득점을 올린 가운데 정선수의 우세판정, 3회전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없는 두 선수의 공방끝에 정용석 선수에게 1득점이 선언되자 이계행선수측에서는 강한 어필이 나오기도 했다.

공두환(경희대) 선수대 연기호(유도대)선수의 대전은 1회 1분 25초경에 들어찍기를 성공시킨 공선수가 이어 앞돌려차고 앞밀어차기로 다운을 뺏는 등 완

● 미 들 급

기호 \ 기호	성 명	A	B	C	D	E	승	패	등위	비고
A	이 계 행		×	○	○	○	3	1	2	
B	정 용 석	○		×	○	○	3	1	1	
C	김 현 곤	×	○		×	○	2	2	4	
D	공 두 환	×	×	○		○	2	2	3	
E	연 기 호	×	×	×	×		0	4	5	

7	15	23	31	39	47	55	63	71	79
A B C	D A	E B	C D	E A	C B	D C	E A	D B	E

전한 주도권을 잡았다. 그러나 2회전에 들어와 연기호선수도 지지않겠다는 듯 공격해 들어와 1점을 만회, 3회전에도 두 선수다 중량급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이나믹한 공격의 연속으로 관중의 손에 땀을 쥐는 공방전 끝에 2:2득점이 나와 총7점이 나오는 격렬한 한판끝에 공두환선수가 4:3으로 승리를 안았다.

1승 1패를 기록한 이계행선수와 김현곤(상무) 선수의 대전은 1회전에서 김현곤선수의 유효한 공격이 다소 우세했고, 2회전에도 우세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3회전에 들어와 이계행선수는 적극적인 공격끝에 돌려차기로 몸통공격을 적중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2승 1패의 이계행선수대 공두환선수의 대전은 3승의 마지막 게임을 남겨둔 정용석선수가 3패를 한 연기호선수를 이길 경우 3승 1패로 승자승 원칙에 따라 1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계행선수와 공두환선수의 대전은 무엇보다 누가 2위로 확정되느냐 하는데 촛점이 맞추어 졌다. 1회전에 이계행선수의 우세, 2회에 경고를 받는 가운데 이선수가 계속해 돌려차고 뒤돌려차기, 얼굴내려찍기를 성공시키며 승세를 굳혔다. 3회전에 들어와 공두환선수는 부상때문에 제대로 뛸 수 없는 입장에서도 끝까지 싸웠으나 승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이 경기에서 생각해 볼 일은 선수가 심한 부상으로 경기를 치루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트레이너가 밴취를 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등은 코치의 재량권에 대한 문제로 생각해 볼 일이며, 선수가 경기에 임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은 좋지만 부상당한 선수에게 계속 경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선수보호측면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헤비급에서 제일 중량이 무거운 추교일선수와 제일 가벼운 김종석선수의 대전, 한체급 올려 실업팀(서울지하철공사)에 입단한 김종석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국가대표선수에 선발되었다.

● 헤 비 급

기호 \ 기호	성 명	A	B	C	D	E	승	패	등급	비고
A	김 재 옥		○	○	×	×	2	2	3	
B	박 회 석	×		×	×	×	0	4	5	
C	임 재 억	×	○		○	×	2	2	4	
D	김 종 석	○	○	×		○	3	1	1	
E	김 현 일	○	○	○	×		3	1	2	

8	16	24	32	40	48	56	64	72	80
A B C D	A E B C	D E A C	B D C E	A D B E

혜비급에서 제일 중량이 무거운 추교일선수와 제일 가벼운 김종석선수의 대전, 한체급 올려 실업팀(서울지하철공사)에 입단한 김종석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국가대표선수에 선발되었다.

혜비급 최종선발전에는 김종석선수, 김재옥선수, 김현일선수와 1987년도 우수선수선발전에서 신인 유망주로 각광을 받은 박회석선수, 1987년도 국가대표 3위자인 임재억선수가 출전했다.

첫경기인 김재옥선수대 박회석선수의 대전은 1회초 득점을 올리며 김재옥선수가 기선을 잡은뒤 2회초 왼발 받아차기에 성공 3회 우세판정 등으로 가볍게 1승을 확보했다.

지하철공사의 김종석선수는 1차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실업팀입단으로 재기전에 성공하면서 이번 대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김현일선수와 박희석선수, 김재옥 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3승 1패로 국가대표 1위로 확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한편 임재억선수는 김종석선수를 맞아 1, 2회전을 계속 우세한 경기운영과 3회전에 득점을 올리며 1승을 올린 후 박희석선수를 계속해 판정승으로 이겨 2승을 기록하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나 예기치 않은 실점으로 패해 2승 1패인 가운데 김현일선수와의 대전에서도 의외의 패배로 2승 2패를 기록했다.

김종석선수가 3승 1패로 1위로 확정된 가운데 김재옥선수와 임재억선수, 김현일선수 3명은 모두 2승 2패로 동률을 이루었으나 승자승 원칙에 따라 김현일선수가 2위로 확정되었다.

입상자 명단

체 급	등위	성 명	소속 및 학교명	학년
핀 급	1	권 태 호	동 성 고	2
	2	임 창 섭	경 기 대	1
플라이급	1	하 태 경	서 울 체 고	3
	2	정 재 정	경 상 공 고	2
밴 텀 급	1	조 영 남	동 성 고	3
	2	지 용 석	국군체육부대	
페 더 급	1	장 명 삼	설악케이블카	
	2	김 병 철	한 국 체 대	2
라이트급	1	이 창 건	국군체육부대	
	2	박 봉 권	한 국 체 대	
웰 터 급	1	정 국 현	지 하 철 공 사	
	2	김 용 수	동 아 대	
미 들 급	1	정 용 석	한 국 체 대	
	2	이 계 행	조선대대학원	
헤 비 급	1	김 종 석	지 하 철 공 사	
	2	김 현 일	유 도 대	3

한국대학 스포츠 마사아지 총연맹에서 선수들에게 마사아지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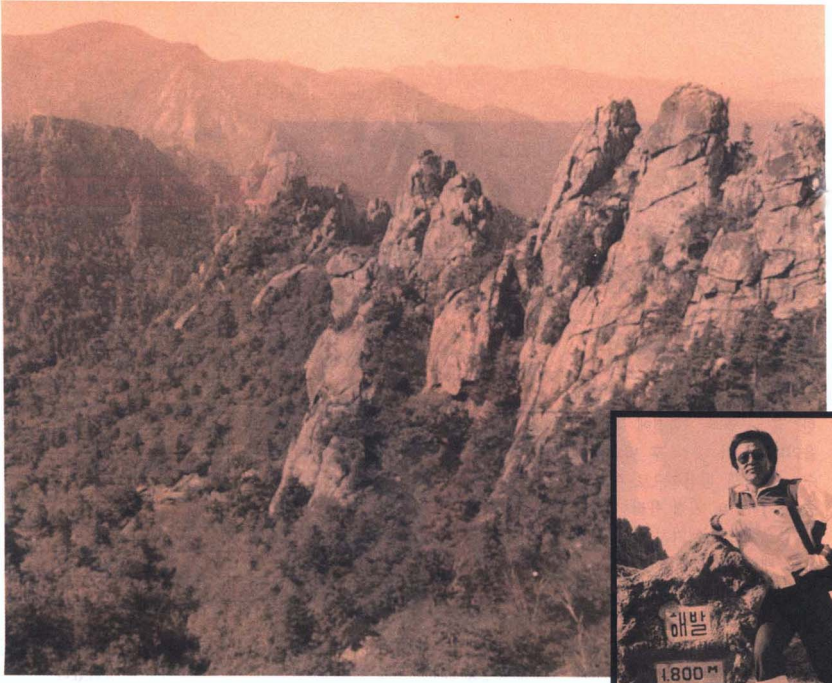
한국대학스포츠 마아사지 총연맹(회장 송기택, 부회장 이은섭)에서는 이번 대회기간 동안 매일 9명씩 나와 97명의 선수들에게 마사아지를 했다. 이들은 지난 1차선발전 중에도 매일 15명씩 나와 선수 199명을 마사아지 했고 여자국가대표 선발대회에도 매일 7명씩 나와 여자선수 76명에서 마사아지를 하며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스포츠 마사아지를 담당한 대학생은 이창성, 정호영, 박필호, 나영인, 강길영, 홍인미, 이주헌, 원주흠, 이재규, 이훈이, 이명근, 최인석, 권구현, 이선규, 강석우, 박동현씨 등으로 이들은 현재 유도대, 이화여대, 한양대에 재학중이다.

태권도 선수들은 마사아지를 통해 운동전이나 운동중 또는 운동후 피로회복으로 운동의 기능을 증진했음은 물론 컨디션조절로 경기기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아식품에서는 선수 및 임원용으로 청량건강음료 포카리스웨트를 제공해주기도 했다.

마사아지를 담당한 대학생들과 각체급 1위로 선발된 대표선수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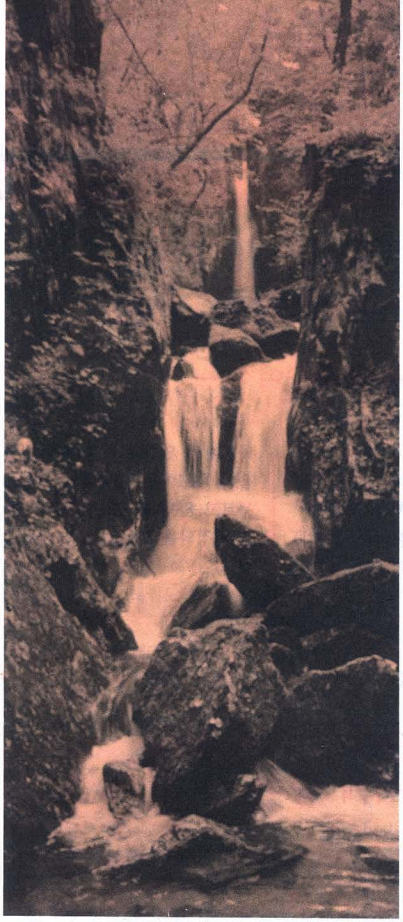
「자연의 보호」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소리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한 규 인

산은 인간에게 극기심을 길러주고 슬기와 지혜를 주며 산을 오르는 모두가 이웃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또한 스포츠적 측면에서는 남·여·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승패에 구애됨 없이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 좋다.

산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여 각종 공해에 시달린 심폐기능을 활발히 하도록 해 주며, 신체의 모든 부위를 골고루 운동시켜 줌으로써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어느 운동보다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산에서는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민주화니 보통사람이니를 강조하지 않아도 협동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사회일각에서 심각하게 거론되는 인권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평등해 지는 곳이 또한 바로 그곳이다. 산에는 선량도 금뺏지를 달고 오르지 않으며, 장관도 승용차타고 오르지 않는다. 회사의 사장에서 근로자까지 대동소이한 복장으로 땀흘리며 오르내리며 어려운곳에서는 끌어주고 위험한 곳에서는 잡아주면서 웃으며



인사하는 등, 권위주의나 획일화된 상명하달의 횡포도 없고 민주화는 물론, 질서와 사랑이 꽃피는 낙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산은 모든것을 균등하게 포용한다.

산에는 온갖 식물이 번식하며, 갖가지 성격과 형태가 다른 동물들이 공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무한한 평등의 힘이 있다.

특히, 4계절이 뚜렷한 우리의 산은 철따라 갈아입을 옷이 마련된 아름다운 여인과 같으며, 울퉁불퉁한 바위의 우람한 자태는 힘이 넘치는 남아의 기상과도 같다. 이렇게 무한한 힘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산을 우리가 늘 주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공자(孔子)는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 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산에서 수도를 하였고, 번뇌(煩惱)의 설법도 상두산에서 하셨으며. 사찰의 거의가 산을 요람지로 삼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율법 창시자인 모세도 십계명을 받은 것이 산이였으며, 예수가 불후의 교훈을 내리신 곳도 산이였다고 전래된다.

우리민족은 산에서 태어나 산으로 가는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배달민족이다. 우리와 뗄레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귀한 산을 오르며 늘 안타까움고 가슴아픈 일은 일부 산행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산이 훼손, 오염되어 「자연의 보호」속에서 살아가야할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소리쳐야 된다는 사실이다. 산수좋은 나라에 태어난 국민이라 자연의 고마움을 자칫 망각하기 쉽다. 근대화의 물결에 수반되는 「각종 소음과 매연으로 호흡기질환이 발생하고, 공장의 폐수로 물고기가 죽으며, 식수가 오염수위를 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자연의 모든것을 받아들이고 용해시킨다는 바다의 어패류까지 죽어간다는 것은 곧 인류의 생명에도 위협을 가하는 때가 도래 되리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내앞에 피부로 느끼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소홀히 생각할 일이 아님을 자각해야 될 일이다.

기계문명의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인간의 감정은 메마르고 인색하게 만들곤 한다.

이러한 세정일수록 인간에게는 정서의 요람이 필요하며, 자연을 동반한 휴식의 공간이 필요하다. 산(자연)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자연을 좀더 가까히 하고자 산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 오염시킴으로 산을 오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산행인들이 되어서야 등산복차림으로 어떻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겠는가?

꽃피는 봄부터 산행인들은 자연에 대하여 자중자애하는 자세로 자연을 접하기를 산행인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바라며, 자연의 보호속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위하여 산을 접하는 모든이들에게 자연보호의 실천을 재 천명 해 본다. *

김운용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올림픽유치 유공자 훈장수여식—

정부는 지난 2월 4일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데 공이 큰 유공자 115명에게 훈장 및 포상을 수여했는데 김운용 회장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올림픽유치 유공자 포상은 올림픽이 서울에 유치된지 7년만에 이루어졌는데 유공자들은 지난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서울이 나고야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8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김운용회장

서독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인턴」선정 '87세계스포츠 지도자 5위에 뽑혀

김운용 회장은 서독의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인턴」(뮌헨)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87년의 스포츠 지도자』중 랭킹 5위로 선정되었다.

「스포츠 인턴」은 매년 세계의 스포츠 지도자를 선정해 왔는데 '87년도의 랭킹 1위로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스페인)을 선정했다. 2위는 아벨랑제 국제축구연맹회장(브라질), 3위는 네비올로 국제육상연맹 회장(이탈리아), 4위 마리오 바스케스 라냐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 회장(멕시코), 5위에 김운용 IOC위원겸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선정되었다.

그밖에 6위는 헬믹 국제수영연맹회장(미국), 7위는 마르크 호디에르 국제스키연맹총재, 8위는 何振梁 IOC집행위원(중공), 9위는 소련의 그라모프 NOC위원장,10위는 아마도우 라미네 바 아프리카 국가 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사무총장 순이다.

김운용회장은 국제스포츠 무대에서의 태권도 지위향상과 한국의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는데 온심혈을 기울여왔고 IOC위원이며 SLOOC 부위원장으로서 국가이익과 올림픽운동차원에서 IOC와 SLOOC간의 교량역할을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외교관계가 없는 소련등 동구 공산권과 대 중공관계 등에서 IOC위원회격으로 SLOOC의 창구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해 왔다.

또한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가 161개국이 참가하는 최대규모이자 동서화합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스포츠 외교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8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3. 23 – 25, 네팔 카투만두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네팔 카투만두에서 제8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아시아 태권도연맹(ATU) 주최로 개최되는 본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총 25개국에서 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제8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장은 네팔 왕실비서실장으로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 네팔태권도협회장, 유네스코체육 담당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샤라드찬드라샤하씨(SHARAD CHANDRA SHAHA)가 맡았다.

네팔은 1986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0회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동메달 4개를 따내 네팔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국제대회 메달획득이라는 영광을 안으며 네팔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성원속에 발전을 거듭해 오며 이번 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대회는 네팔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네팔 주변국에 대한 태권도 보급도 급속히 확산되리라는 것이 태권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박 익단장과 감독, 코치, 남녀대표선수 16명등 총 22명의 선수단이 파견된다.

● 파견선수단 명단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비 고
단 장	박 익	43. 1. 17	서울시태권도협회	부 회 장
감 독	고 국 환	40. 1. 5	대한태권도협회	상 벌 분 과 위원장
중량급코치(남)	강 선 장	47. 1. 15	풍 생 고	교 사
경량급코치(남)	이 용 환	55. 1. 13	광 성 고	태 권 도 코 치
중량급코치(여)	김 영 수	48. 12. 4	문 성 여 상	〃
경량급코치(여)	김 경 주	60. 12. 30	대한태권도협회	사 범
핀 급	권 태 호	71. 1. 17	동 성 고 3 년	88국가대표선수(남)
플 라 이 급	하 태 경	69. 3. 22	한 국 체 대 1 년	〃
밴 텀 급	조 영 남	69. 12. 5	동 아 대 1 년	〃
페 더 급	장 명 삼	63. 5. 16	설 악 케 이 블 카	〃
라 이 트 급	박 봉 권	68. 2. 20	한 국 체 대 3 년	〃
웰 터 급	정 국 현	62. 3. 15	서 울 지 하 철 공 사	〃
미 들 급	정 용 석	67. 2. 11	한 국 체 대 4 년	〃
헤 비 급	김 종 석	63. 6. 30	서 울 지 하 철 공 사	〃
핀 급	이 화 진	71. 5. 5	청 산 여 상 2 년	88국가대표선수(여)
플 라 이 급	추 난 률	71. 10. 26	청 산 여 상 2 년	〃
밴 텀 급	박 선 영	68. 12. 17	경 희 대 2 년	〃
페 더 급	김 소 영	66. 6. 12	성 신 여 대 4 년	〃
라 이 트 급	이 은 영	68. 1. 4	경 희 대 3 년	〃
웰 터 급	김 지 숙	67. 4. 1	경 희 대 4 년	〃
미 들 급	김 현 희	67. 6. 7	경 희 대 3 년	〃
헤 비 급	장 윤 정	66. 6. 11	명 지 대 졸	〃

상명여자대학교 태권도부창단

윤종완교수 감독 임신자선수 코치맡아

상명여자대학교가 올해부터 태권도 선수 4명을 스카웃하면서 태권도부를 창단해 여성 태권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등부 여자 태권도 선수들은 그동안 경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등 태권도부가 창단된 몇개의 대학에 스카웃되어 대학의 진학문이 좁았고 대학의 여성태권도 발전도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상명여자대학에 태권도부가 창단됨으로써 대학에서의 여성 태권도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부의 감독에는 체육대학의 윤종완교수가 맡게 되었으며 코치에는 여자태권도계에서 국가대표선수로 맹활약을한 바 있는 임신자선수가 맡게 되었다.

한편 상명여자대학의 태권도부 창단과 함께 스카웃된 4명의 선수는 인천체고 출신의 박진경 박은옥선수, 문성여상 출신의 양인덕선수, 청산여상출신의 강경숙선수이다.

윤종완 감독과 임신자코치 (왼쪽끝), 스카웃된 4명의 태권도부원.

임신자코치 약력

▲ 4단
▲ 생년월일 : 1964년 4월 19일
▲ 주 소 : 인천시 남구 만수동 109—19
▲ 학 력 :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졸업
▲ 주요경력
1979년 한국여자대표 핀급 1위
1982년 한국여자대표 밴텀급 1위
1984년 한국여자대표 페더급 1위
1985년 한국여자대표 밴텀급 1위
1985년 제7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1986년 문성여상 코치

유명식선수 우수선수상 수상

1988년도 대한체육회 표창수여식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1시 대한체육회 10층 강당에서 1988년도 대한체육회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표창수여식에서는 한 해 동안 체육계의 발전에 공이 큰 체육계 인사에게 공로상과 지도상이 수여되었고 기량을 발휘하며 경기력향상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경기상이 수여됐는데 태권도계에서는 한국체대에 재학중이며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한 유명식선수가 우수선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유명식선수 약력

▲ 생년월일 : 1967년 3월 3일
▲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미아1동 837—1197
▲ 소 속 : 한국체육대학 3년

▲ 주요전적
1985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밴텀급 1위
1986년 월드컵태권도대회 밴텀급 1위
1987년 한국대표선발전 밴텀급 1위
제22회 대통령기 쟁탈전 밴텀급 1위
제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밴텀급1위
전국우수선수선발대회 밴텀급 1위

장이숙선수·전판선코치·김세혁교사

서울특별시 체육회에서 우수선수상, 지도상, 연구상 수상

지난 2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실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 체육회 주최「1987년도 우수선수, 단체, 지도자, 유공자 포상」수여식에서 태권도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목별 우수선수상은 총 47명에게 수여되었는데 태권도는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 1회세계여자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뛴급 우승을 차지한 장이숙선수(청산여상 2년)가 차지했다.

지도상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국가대표선수 5명을 배출한 광희국교의 전판선 코치가 수상했고, 연구상은 전국체전출전 예상선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력향상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동성고의 김세혁선생이 수상했다.

남태평양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

1991년 제9회 대회부터 태권도경기 실시

남태평양게임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에 태권도가 남태평양게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왔다.

1987년 12월 뉴칼레도니아에서 열린 제8회 남태평양게임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1991년에 개최될 제9회 대회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남태평양게임위원회 신임회장에 프랑스령(領) 폴리네시아의 라빈 라이시스씨가 선출되었다.

체육선교신학원

태권도 선교학교(60명) 신입생 모집

사단법인 세계체육인선교회 체육선교신학원(원장 김창인)에서는 1988학년도부터 대학부(주·야간) 과정인 태권도선교학과(4년제)에 신입생 60명을 모집했다.

국내 뿐 아니라 이념과 인종, 국경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체육선교신학원은 대학부에 태권도 선교학과외에 체육신교학과 40명(4년제), 유아교육학과 60명(2년제)을 모집했다.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인정자이고 태권도선교학과는 태권도 유단자가 입학하였다. 신학부(주·야간)는 체육목회학과 40명(3년제)을 모집했는데 국내외 대학의 학사학위 소유자 및 동등자격자로 제한되었다.

선교신학원의 성적우수자는 졸업후 미국 마스타칼리지(Master College)·워싱턴 성서대학(Washington Bible College)에 유학할 수 있고 졸업후에는 선교사로서도 활약하게 된다.

새 달력

서 재환

새해 새달력
우리집 벽에 걸린 새해 새달력
새달력을 걸어 두니 부자만 같다.

반듯반듯한 비둘기장같은 네모꼴 속에는
꿈꾸는 비둘기같은 숫자들이 가득,
저마다 날아오를 날을 기다려
푸른 날개를 다듬고 있다.

하루를 열어주면
푸드득
잠든 하늘을 박차며 날아오를 비둘기.
또 하루를 열어주면
살풋
꽃씨를 물고 내려앉을 비둘기.

종소리를 울려 줄 비둘기
강물을 풀어 줄 비둘기
휴전선을 열어 줄 비둘기도
우리집 달력 속에는 사는 것 같다.

새해 새달력
벽에다 걸어 두니 부자만 같다.
쌀광에 쌀이 찬듯 부자만 같다.

태권도 심판 좌담회

경기를 심판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고
경기를 명랑하게
이끈다.

체육인 헌장에서

▲**일 시** : 2월26일 (금) 오전11시
▲**장 소** : 향진
▲**참석자 명단** :
권경욱 (기술심의회 의장)
안영택 (심판분과 위원장)
조호철 (심판분과 부위원장)
장창영 (심판분과 위원)
김장일 (심판분과 위원)
이종찬 (심판분과 위원)
한상진 (심판분과 위원)
강희택 (심 판)
장명수 (심 판)
▲**사회** : 한규인 (본회 홍보실장)

권 경욱 / 기술심의회의장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발달 속에서 우리가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문제는 경기장의 명랑하고 활기찬 풍토조성으로 태권도 경기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 회 : 올해는 '88서울올림픽에 태권도가 시범경기로 채택되어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읍니다. 태권도가 세계인의 대제전에 들어간 것은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인 모두가 태권도의 세계적인 보급과 합리적인 경기규정, 기술의 발달을 꾀해온 결과였다고 봅니다.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발달 속에세 우리가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문제는 경기장의 명랑하고 활기찬 풍토조성으로 태권도 경기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전한 경기장 풍토조성은 선수와 관중과 코치, 심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그 조화를 이룬다고 봅니다.

오늘은 심판여러분들을 모시고 태권도 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활기찬 경기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판의 공명정대한 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인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심판이 심판의 권위를 찾고 심판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본회 기술심의회 의장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올 한 해를 신뢰받는 심판상을 정립하겠다는 여러분의 각오와 신념을 여러 태권도인에게 천명하며 이를 위해 자기점검의 시간을 마련해 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권경욱 의장 : 심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월에 개최된 남녀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불공정 심판에 대한 불명예를 불식시키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읍니다.

올해는 서울올림픽에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이에 태권도 선수들은 최선의 기량과 예의범절로 종주국 대표선수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은 물론, 관중들은 갈채와 성원으로 선수들을 격려하여 질서있는 경기장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이신 심판여러분들은 각종 경기대회에서 규칙에 따라 엄정한 심판으로 경기를 명랑하게 이끄는데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올 한 해를 신뢰받는 심판상을 정립하겠다는 여러분의 각오와 신념을 여러 태권도인에게 천명하며 이를 위해 자기점검의 시간을 마련해 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 영택 / 심판분과위원장

● 안영택 위원장 : 심판 여러분들께서는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심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로사항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심판분과위원장으로서 연초에 심판부의 정화추진을 위해서 심판원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심판원을 냉정하게 관리, 판별해 심판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겠다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밝힌 바 있읍니다.

저는 심판분과위원장으로서 연초에 심판부의 정화추진을 위해서 심판원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심판원을 냉정하게 관리, 판별해 심판의 불신을 완전히 씻어내겠다는 입장을 여러분들께 밝힌 바 있읍니다.

● 사 회 : 심판은 협회의 얼굴입니다. 심판이 공명정대한 판정을 내리면 경기장 질서는 회복되어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판의 권위를 가꾸는 일을 담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판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무엇이 시정되어야 할 것인지 많은 의견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찬 / 심 판

심판은 3분 3회전을 뛰는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경기장에 운영요원 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행위등은 모두 공정한 심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 이종찬 심판 : 저는 우선 경기장 분위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판정에도 당연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심판은 3분 3회전을 뛰는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데 경기장의 어수선한 분위기, 코치나 감독등의 무절제한 항의, 경기장에 운영요원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행위등은 모두 공정한 심판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 안영택 위원장 : 태권도는 단일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기가 펼쳐져 경기때가 되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오후가 되면 심판들은 심한 피로감으로 판정상 혼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경기일자를 하루쯤 더 연장하더라도 하루의 경기시간을 5~6시간 정도로 적정하게 줄이거나 심판의 2교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권경욱 의장 : 하루의 경기시간을 적정하게 단축하면 심판은 물론 선수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운영비도

경기일정을 하루쯤 더 연장하더라도 하루의 경기시간을 5~6시간 정도로 적정하게 줄이거나 심판의 2교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 사 회 : 판정의 시비에 불씨를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경기진행시 득점이 발생했을 때 부심4명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보통 득점 발생 즉시 채점을 하는 경우 득점을 인정하는 부심과 그렇지 않은 부심이 있읍니다. 물론 부심의 위치에 따라 보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이럴 경우 코치석에서는 예민하게 부심의 채점표에 눈이 가게 마련인데 부심 중 누구는 점수를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경우 그팀의 코치는 자신의 선수에게 유리하게 판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그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기 쉽습니다.

심판여러분들은 득점 발생시 채점을 바로 하느냐 아니면 매회전이 끝난 뒤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경욱 의장 : 득점의 발생시 채점을 즉시 하느냐 매회전 종료후 하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을 하느냐 하는 문제만 정립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심판이 주심과 부심 4명, 배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에서 올바른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격이라도 위치에 따라 심판판정은 다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심판도 기계가 아니라 인간인 이상 판정의 기준상 약간의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 즉 그것이 심판각자의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예를 들어 야구시합 때 어느 심판은 어느 각도까지는 볼로 인정하거나 스트라이크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 관중들은 "저심판이 심판을 잘못본다"라는 비판보다는 "저 정도면 저 심판은 볼로 인정하더라"라는 쪽으로 그 심판의 개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처럼 태권도는 특히 투기종목이라 공격의 강도에 있어 심판의 개성이 나타날 소지가 더 많다고 봅니다. 심판들이 자신의 권위를 살려 판정을 정당하게 행사한다면 약간의 편차는 심판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오히려 득점발생시 그때 그때 득점을 주게되면 경기가 득점에 너무 인색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불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회 심판분과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주심은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 경고를 줄 수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 감점선언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심판들 자신이 이러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심판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득점의 발생시 채점을 즉시 하느냐 매회전 종료후 하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을 하느냐 하는 문제만 정립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장 창영 / 심 판

소청제도는 판정에 있어서의 오판여부만을 점수차이로 확인해줄 뿐, 코치나 감독의 비합리적인 항의나 소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치나 감독에 의한 소란은 늘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 장창영심판 : 주심이 경고나 감점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문제의 해결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기 판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합법적인 소청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소청제도는 판정에 있어서의 오판 여부만을 점수차이로 확인해줄 뿐, 코치나 감독의 비합리적인 항의나 소란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치나 감독에 의한 소란은 늘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경기진행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게임몰수나 코치임무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로 경기장에서의 불필요한 소란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한 상진 / 심 판

심판을 협회내 심판분과위원회에서 상임심판제를 도입,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심판원들도 더욱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어 문제의 시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 한상진 심판 : 태권도심판을 법정에 비유하자면 판검사로 비유될 것입니다. 판검사의 판정을 받듯이 경기인들이 판정에 복종하는 풍토가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오판을 내렸을 경우 그때는 항소를 하듯이 소청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태권도는 무도인이라는 카테고리의 특수 관계로 심판 판정에 있어 코치나 감독, 선후배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판을 협회내 심판분과위원회에서 상임심판제를 도입,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심판원들도 더욱 더 소신껏 일할 수 있어 문제의 시비를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장 명수 / 심 판

• 장명수 심판 : 매일 경기가 끝난 후에는 심판과 위원장, 의장단 등 집행부가 하루의 일과를 점검해 보면서 심판의 오판이나 코치 또는 감독, 선수의 경기장 질서 위반사항에 대해 상벌을 강화해 다음날의 경기를 명랑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는것도 방법이 되겠지요.

조 호철 / 심판분과부위원장

경기 때마다 정당한 판정을 내리고도 심판관을 불신할 때면 이보다도 더한 인권침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 조호철 부위원장 : 우리 심판들은 공정하게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경기 때마다 정당한 판정을 내리고도 심판원을 불신할 때면 이보다도 더한 인권침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심판의 오판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코치나 감독의 일방적인 어필로 심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릴 때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그러한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해야 할 것입니다.

• 김장일 심판 : 경기장에는 선수와 코치, 심판, 운영위원외에는 다닐 수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코치나 감독이 경기중 심판석에 와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코치나 감독석을 따로 만드는 것이 좋겠읍니다.

김 장일 / 심 판

코치나 감독은 자기팀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합을 대비하고 선수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경기장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 강희택 심판 : 코치석은 따로 있읍니다. 그러나 코치석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같습니다. 코치나 감독은 자기팀 선수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합을 대비하고 선수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경기장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강 희택 / 심 판

• 이종찬 심판 : 코치나 선수는 심판경기 규정을 잘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시에 우세한

선수들이 기량만을 쌓을 것이 아니라 경기 규정을 잘 알아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기를 펼치다가 감점이나 경고 등으로 졌을 때 대개 판정시비를 몰고 옵니다. 선수들이 기량만을 쌓을것이 아니라 경기 규정을 잘 알아 불이익이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장명수 심판 : 이를 위해서는 각종 대회에 코치로 나오는 사람들은 당해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 규정이 쉽사리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코치들도 태권도 수련 시절의 규정에서 벗어 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리고 심판판정에 있어 배심 주·부심 등 6명의 태권도 전문가가 내리는 판정에 대해 불신한다면 더 무엇을 믿고 경기에 임할 수 있겠읍니까 심판 판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도 심판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수나 코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대회에 코치로 나오는 사람들은 당해년도에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조호철 부위원장 : 심판의 판정에 대해 우선 믿고 복종하는

심판의 판정에 대해 우선 믿고 복종하는 가운데 경기장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운데 경기장 질서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공명정대하고 엄정중립을 지키며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 권경욱 의장 :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판정시비 또는 심판 불신에 대하여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심판원들도 책임을 지고 명예회복이나 권위를 위하여 인내와 반성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심판과 감독 또는 코치와 선수 그리고 관중이 혼연일체가 되어 태권도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 올해는 '88서울올림픽 관계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통합경기로 치루어 집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지역간의 경쟁이 과열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과열경쟁이 심화될수록 판정시비는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심판 여러분들은 규율과 질서속에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이 평소에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가운데 화합과 전진을 다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더 나아가 세계인의 관심이 총집중되어 있는 '88서울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루어 태권도의 발전에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탐방

가정과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 높인다.

—은마체육관과 세심도장을 찾아서—

태권도 지도에 있어서 가정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 태권도 프로그램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가정환경과 지역사회의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자란 어린이들에게 태권도 지도자는 다양한 태권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본다. 태권도 교육의 골격은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심신을 연마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고 인내심, 용맹성, 적극성, 결단성, 관용 등을 성취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태권도 교육의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 현장을 탐방한 곳은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내의 은마체육관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대종을 이루며 살고 있는 관악구 신림10동 산비탈 밤골 B지구에 위치한 세심도장이었다.

주위환경면에서 완전히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두 도장은 가정소득의 빈부차이가 심한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200여명이 넘는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성공적인(?) 도장이었다.

은마체육관은 수업시간표에 따라 학교수업이 이루어지듯이 매시간마다 부별 태권도 지도를 담당하고 있었다.

태권도의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이정위관장이 일주일에 두번씩 맡아서 지도하고 실기수련은 지성수사범과 심재완사범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벌써 10년째 동고동락하며 태권도 지도를 해오고 있다.

은마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수는 총 260명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학생이 200여명이고 유치부가 50명, 중고등부가 10명이다. 이들 중 유품자가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수련생수는 예년에 비해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의 증가나 급작스런 감소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은마체육관의 경우 아파트단지내의 종합상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같은 층 내에만도 피아노, 미술, 주산, 붓글씨 학원 등이 다양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수련생을 확보하고 태권도를 수련시키는 것은 그만큼 교육적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은마체육관은 다른 어느도장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수련과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태권도 기술교육의 체계외

은마체육관은 다른 어느 도장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수련과 태권도의 정신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특별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엄격한 태권도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가운데 건강유지나 체력보강 외에도 성장기 어린이들이 습득해야 할 사회성이나 정서함양을 꾀하고 있다.

에 특별활동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엄격한 태권도 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는 가운데 건강유지나 체력보강 외에도 성장기어린이들이 습득해야 할 사회성이나 정서함양을 꾀하고 있다.

은마체육관은 총 70여평에 이르는 비교적 큰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었다. 사무실과 유치부 공부방 겸 수련생 대기실, 수련도장으로 짜여져 있는데 도장내에는 뜀틀, 철봉, 높이차기, 모험다리 등이 있어 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운동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장 내에는 「跆拳道 禮始禮終」「精神一到 何事不成」「百折不屈」「인사를 잘 합시다.」등 태권도 수련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를 일깨우는 글귀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태권도장에서의 정신교육은 여타 교육기관보다 학부모들로부터 교육의 장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운용영역이 부족한 아파트 생활에다가 부모들의 과보호속에서 허약하고 편식하고 배짱이 없고 이기적이며 주의산만하기 쉬운 요즘 아이들에게 주체성을 갖게 하고 용기와 통솔력, 협동심

겨울방학때는 스키캠프에 참가해 스키를 타는 은마체육관 수련생들

을 기르고 예의교육을 생활속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학교와 가정교육의 완충지대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뛰어놀 공간이 적어지고 대신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 영양공급의 과잉등으로 비만해진 어린이에게 태권도를 수련시킴으로서 신체를 단련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한편 태권도 교육프로그램 중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에는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즉 여름에는 태권도 수련과 더불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법 등을 지도하고 있고 겨울에는 스키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흰 눈 쌓인 계곡에서 스키를 즐기는 즐거움과 더불어 산을 등반하며 산토끼 사냥과 꽁꽁언 개울의 얼음을 깨치고 겨울고기를 잡는 가운데 다양한 산 교육으로 현실 속에서 태권도인의 기개와 정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봄 가을에도 토요일과 일요일, 그밖의 공휴일을 이용해 산과 바다, 가까운 근교로 나가 자연학습을 통해 생태분포도를 관찰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기 어린이의 심신수련은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수련의 엄격함을 이겨나가는 촉매역

할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에서 이곳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것이 은마체육관의 태권도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가족구조가 대부분 부모와 1내지 2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높을수록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외에 기타 예체능교육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장기의 아동들에게 보다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교육적인 여망을 가장 적합하게 부응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바로 태권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은마체육관의 이정위 사범은 앞으로 태권도 지도에 있어서 고된 수련을 인내하는 가운데 심신을 닦아왔던 정통 태권도 지도방식에서 다양한 레저스포츠의 확산과 취미활동의 영역이 확산될 현대사회의 여건에 발맞추어 엄격한 태권도 수련에다가 태권도가 갖는 무도성, 스포츠성, 놀이성 등을 조화시킨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태권도의 지도방침을 피력하기도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지역적 환경과 수련생들의 수련동기, 학부모들의 교육적 기대감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가 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성별, 연령별로 가장 바람직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은마체육관 이정위 사범

은마체육관이 레저스포츠화로 태권도장 운영에 성공하고 있다면 심림10동 산비탈 밤골 B지구에 자리잡은 세심도장은 저소득층 근로자 주민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격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신체단련으로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세심도장 수련생들의 지표 또한 "배움(공부와 태권도수련)에 충실하고 의무에 충실하며 지난 일을 돌아보고, 미래가 뚜렷하며 현실에 강하면서, 자신을 책임지는 꿈을 갖는 수련생으로 자라가자"라는 것이다.

세심도장의 수련생들에게 이러한 지표를 설정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수련생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밝고 꿋꿋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 동네에 삼두아파트와 장미아파트가 들어서긴 했지만 밤골 B지구라고 지칭되는 이 지역주민 대부분은 일일근로자들이고 가정 주부들 또한 가사를 돕기 위해 가내공업이나 부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의 부모나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동네의 부모들도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학교 교육만으로도 벅찬 이들 부모가 단돈 얼마라도 내고 태권도장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부모들의 가정교육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가정교육의 장으로서, 학교공부에 충실하도록 지도하는 학교교육의 연장으로서 태권도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마체육관의 유치부 태권도 수련광경

세심도장은 굳이 도장선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련생 부모님의 권유로 자식의 손을 잡고 찾아온 이웃 부모들, 모두가 이곳을 스쳐간, 또는 몸담고 있는 수련생과 그 부모에 의한 자연스런 선전으로 태권도장은 늘 만원이다.

현재 이곳에서 수련하는 수련생은 유치부 40명, 국교부 150명, 중고부 40명등 총 230명이다. 이들 중 6, 7년간 계속해 태권도를 수련한 3품이상자는 40명정도, 4, 5년 정도 수련해온 2품수련생은 50여명, 1품만해도 20~30명에 이른다. 어느 도장보다도 수련생들이 꾸준히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것도 이 도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심도장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련을 하는 수련생이 많은 것은 계획과 진단, 지도, 평가를 통해 수련생들의 성장과정을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태권도 지도방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심도장은 년 월별 수련계획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계획표에는 첫째, 둘째주 월 화 수 목… 등 세부계획표가 짜여져 있다. 수련생들은 매일 매일의 수련 속에서 나는 어느정도 수련을 연마해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배우게 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장밖에 나아가면 5학년이 6학년에게 선배로서 대접해야 하지만 도장내에서는 급 띠별로 높은 수련생에게 선배로서 엄격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세심도장의 이연 사범

세심도장은 「태권도 수련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태권도의 계속적인 수련을 통해 정신수양과 자기단련, 심신을 연마하며 수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심도장의 교육방침을 보면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청소년에게 소홀하기 쉬운 체력, 담력, 정신집중력, 통솔력, 사회성, 자립성, 발표력등을 기르고 강인한 정신력과 끈기와 인내심, 예의규범을 중요시하는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해 슬기로운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심도장은 육체적인 단련없이는 건전한 생각과 깨달음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끝없는 수련의 장으로서 태권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세심도장에서는 수련생들 중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며 생활태도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생들로 구성된 시범단을 구성하고 있다. 시범단운영은 수련생들에게 나도 이렇게 수련하면 시범단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표본역할을 하게 하는 미시적 목표물이 되기도 한다.

시범단은 한달에 한번씩 도장에서 밤새우며 사범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들은 평소에 엄하게 태권도 지도에 빈틈을 주지않는 사범님과 따뜻한 이야기를 갖고 희망과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또한 세심도장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을 사범님께 건의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게임등으로 하루를 추억으로 만

태권도장은 좁지만 수련생들은 질서속에서 태권도수련에 열중하고 있다.

> 세심도장은 「태권도 수련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태권도의 계속적인 수련을 통해 정신수양과 자기단련, 심신을 연마하며 수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들기도 하며 많은 이야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범단이 일반 수련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수련생들은 모두들 「더 열심히 수련하고 공부해서 시범단에 들어야지」라는 목표를 갖게 되어 수련생들은 더욱더 열심히 수련하기도 한다.

한편 수련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 또한 큰 것이 세심도장이다.

그러나 세심도장에서는 공부하라는 강요보다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수련시 각종 생활, 정신교육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길러주어 이를 학업면에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위인들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수련생들에게 들려주기도 한다.

세심도장은 월말고사가 끝난 다음날이면 그날은 태권도 기술수련을 하지 않고 대화의 시간을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 갖고 성적이 우수한 수련생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수련생에게는 격려를 보낸다. 그리고 집안의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물어보고 수련생들 모두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공동의식을 갖게 해준다.

이렇게 수련생들에게 끊임없는 수련을 통한 교육과 관심을 주는 사범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태권도장에서 떠날시간이 없다. 끊임없는 자기성찰로 무도인의 길을 가고자하는 사범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기내부로 부터 온다. 수련생들에게 스승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들의 거울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라는 자기점검은 늘 사범을 긴장속에서 살게한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게 이 연 사범의 고백이다.

그러나 때때로 느끼는 이러한 어려움도 수련생들이 잠들어 있는 작은 집들의 낡은 창가에서 비쳐오는 형광 불빛을 바라보며 동네를 한바퀴 돌아볼 때면 자신의 정신적 사치를 다시금 털어버리고 무도인의 사명을 다진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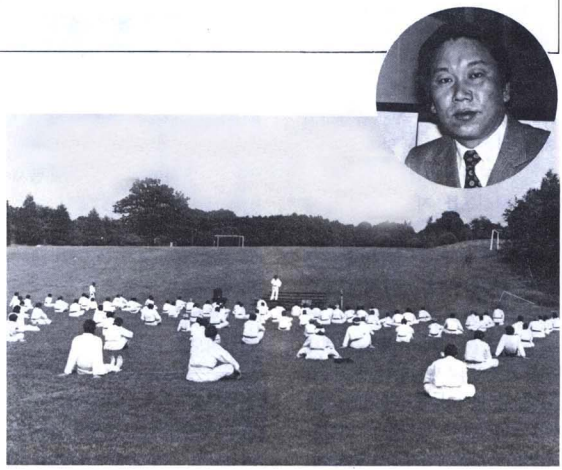
서울의 한 지붕아래 태권도장은 1000여개가 넘는다. 각기 도장마다 태권도를 통한 체력연마와 정신건강을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프로그램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도현장에서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태권도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은마체육관과 세심도장도 태권도수련을 통한 심신단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지향하고 있는 태권도 수련의 방법은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 주기도 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은마체육관과 세심도장은 가정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대표적인 본보기하고 할 수 있다. *

> 은마체육관과 세심도장도 태권도수련을 통한 심신단련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나 지향하고 있는 태권도 수련의 방법은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내 주기도 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은마체육관과 세심도장은 가정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을 고려한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무도정신 살린 태권도지도가 성공의 비결

미국 미시간주 박대진 사범



넓은 초록의 잔디위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는 미국의 태권도인들. (위의 사진은 박대진 사범)

미국은 한국인 사범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로 세계연맹에 등록된 사범만도 800여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일선 사범까지 합치면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걸쳐 한국인 사범이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을 알리고 한국인으로서의 기상을 떨치고 있다.

미국의 중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미시간주에는 박대진사범이 16년째 태권도를 지도해오며 태권도의 뿌리를 내리고 널리 보급 발전시켜 왔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한 박사범은 목포고교를 거쳐 1965년도에 성균관대 행정학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육군대표선수로서 활약한 선수출신이다.

학교졸업 후에는 서울교육대학의 강사로 잠시 교편을 잡기도 했으나 성균관 대학이 자매결연 대학인 미국의 켄트대학의 초청으로 1972년 12월 태권도 사범으로 출국하게 되면서 미국에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미시간주에 있는 켄트대학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한 박사범은 기반을 닦아가며 개인도장을 개설하기 시작했는데 16년 동안의 노력끝에 지금은 지관을 30여개나 거느린 대형태권도 도장郡으로 발전시켰다.

그동안 배출된 유단자만도 28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4단 이상의 수련생에게는 지관을 할당해 주어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게 해 지관에서 또다른 지관이 개설되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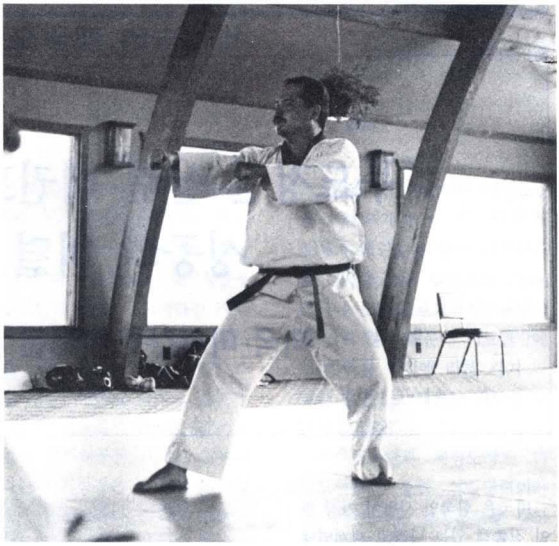
현재 30여개의 지관에는 지난

해말 800여명이 수련하고 있었는데 새해들어 1500여명이 등록을 해와 태권도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했다.

박사범은 태권도 수련시 본인이 선수출신이었던 관계로 처음에는 선수양성 스타일로 도장을 운영하다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련생들에게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겨루기 위주의 지도를 하게 될 때 한계상황이 도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수련생들은 호신술이나 체력연마를 위해 태권도를 수련하기도 하나 그 보다는 태권도만이 갖고 있는 무도정신을 배우며 동시에 호신술도 습득하고자 한다는 것을 잘 알아서 태권도를 지도하여야만 한국의 사범들이 태권도를 지도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대진사범은 매년 한국인 태권도 고단자 등을 초빙해 태권도 세미나를 개최하며 전통적인 무도 태권도 정신의 고양과 세계태권도연맹의 품새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에는 30여개 지관의 유단자들이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태권도세미나는 태권도인들에게 호응도가 높아 세미나 참가비가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단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알찬 태권도 세미나 준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대진 사범의 이번 귀국은 '88 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를 앞두고 있는 조국을 방문해 올림픽 준비현황을 살펴보고 대한태권도협회, 세계연맹, 국기원 등을 방문해 신년 인사 및 미국의 태권도 발전에 대한 종주국 태권도인 의견을 듣고자 왔다고 귀국의도를 밝혔다.



태권도 심사에서 진지하게 품새를 보이는 미국의 수련생.

한편 박대진 사범은 미국의 수련생들이 종주국을 찾아와도 마땅히 수련할 성인도장이 없어 안타깝다며 성인도장의 확보가 세계태권도 수련생의 종주국 방문시 상호 기술을 교환하고 태권도를 수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또한 종주국에서의 태권도는 정통적인 무도정신과 기술을 조화하여 세계인들이 태권도 종주국을 찾았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대진 사범은 또 한편으로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운동에 종사하는 선수들에게 경기력향상연구연금등이 지급되어 이들 선수들이 생계의 걱정없이 마음놓고 경기력향상에 전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했다.

미국에는 현재 1남 2녀의 3자녀와 부인 박희자씨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3자녀중 장녀 박나리(13세)양은 「앤아버」 근교에 있는 「세인트 프란시스 쥬니어 하이스쿨」을 졸업하면서 최우수상과 대통령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주소 : TAE PARK
5851 CIMACENTER
MANCHESTER M. U 18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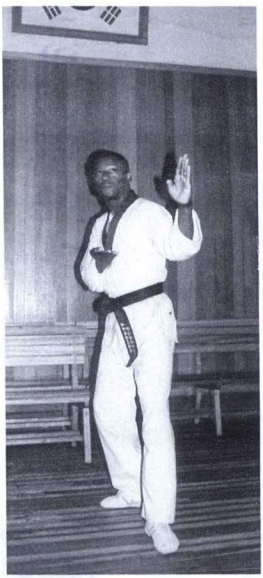
아이보리코스트 국립체육대학교수

미동국교에서 태권도 수련

아이보리코스트 국립체육대학의 야요야오줄지교수가 미동국민학교에서 이규형사범의 지도아래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다.

야오야오줄지 교수는 아이보리코스트 국립체육대학에 유도, 복싱, 레슬링 종목이 교습되고 있고 태권도는 체육성장관과 대학총장의 관심과 추천으로 교습종목으로 채택되었으나 국내에 태권도를 지도하는 사범이나 수련생들은 많으나 대학에서 가르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으며 고등학교에서 조차 코치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의 마스게임과 카드섹션을 배우기 위해서였지만 대학에서 태권도 교습을 하기 위해 이곳에 온 이래 태권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태권도 수련에 임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중, 고, 대학의 교수진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국립체육대학의 중요한 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태권도에 관한 과학적 원리를 제시해 학교에서 태권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태권도 수련목적을 밝히기도 했다.



정확한 품새를 익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야오야오줄지교수.

광주에서 초단승단까지 취득한 야오야오줄지교수는 앞으로 '88서울올림픽 때까지 태권도 수련을 계속함은 물론 심판 교육도 받아 태권도교습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는 반년만에 간단한 회화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한국어를 익혔는데 앞으로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과 아이보리코스트간의 유대관계가 더욱 더 진작되길 바란다고 했다. *

'다같이 생각해봅시다'

한 규인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장

1988년 현재 국내 태권도 회원은 약40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1할을 차지하는 수치로서 태권도를 천직으로 알며 땀 흘리는 지도자들로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이뿐인가?

IOC에 가입된 167개국중에 112개국에 태권도가 보급되어 외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회원은 1,500여만명에 이른다. 세계적인 태권도의 보급과 확산은 태권도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접하게 하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인 국익의 차원에서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가 즐기고 있는 대개의 스포츠가 외국에서 도입된 스포츠임에 반해 태권도는 경기용어, 규칙 등 우리가 만들어 수출한 유일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국기 태권도는 드디어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국내에서는 태권도를 사회체육으로 발전시켜 국민 전체가 태권도를 수련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기(校技)로 채택해 전교생이 태권도를 수련해 심신을 연마하도록 하고 있는 이때에 최근 유아교육의 현장에서는 교육기관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태권도 수련이 유아교육에 좋지 않다는 비방을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태권도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니 태권도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조기교육에 발맞추어 각종 예체능교육 기관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이 중 태권도장에는 많은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며 유연성을 기르고 기초체력을 육성하는 가운데 태권도 정신을 배우며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각종 예체능교육기관이나 유치원은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아동들의 심신을 개발하는 바람직

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태권도 교육의 비방으로 학부형들로 하여금 태권도 교육에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태권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어이없는 현상에 대해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이론과 교육적 효과의 근거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점에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현대화의 물결에 핵가족화되어가고 어린이들은 의타심이 생겨서 심약하고 이기주의화되어가고 있으며, 생활구조의 편리함을 추구하다보니 건강상에 오는 비만증, 허약체질 등 각종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등의 해소에 태권도장의 기여도는 지대하다고 본다.

태권도 수련처럼 신체의 각부위를 골고루 운동시켜주는 맨손운동이 어디 있으며 하체를 많이 운동시켜 줌으로써 중심이동, 신체의 신축 등 넘어지거나 부닫히는 등 각종 예기치못할 사고에서 신체보호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권장할 운동이다. 또한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인내심이 강한 어린이, 솔선수범하는 어린이, 협동심이 많은 어린이, 감투정신이 있는 용감한 어린이, 예절바른 어린이 등의 생활행동교육의 장이 태권도장이라고 하겠다.

20여년간 태권도를 어린이들에게 지도하며 '88서울올림픽 식후행사에 태권도 시범의 안무를 맡은 한국 어린이 태권도 대표시범단의 이규형사범이 최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정신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태권도 수련은 어린이의 신체적인 성장발육뿐 아니라 성격, 예절 등 생활태도, 정서, 지적인 면에서도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성 향상에 높은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태권도 지도자 여러분!

태권도는 이렇듯 현장경험을 통해 좋은 운동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태권도를 교기로 하는 전국 각지 국민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로 부터 태권도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으며, 학부형들을 통해서도 행동교육으로서 태권도 교육의 긍정적인 반응을 듣고 있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못하였다면 전국에 3,000여개의 태권도장이 어떻게 존립(存立)할 수 있으며, 연간 10만명이상이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응심을 하겠으며, 미국·영국·불란서등 선진국 어린이들이 태권도 수련을 왜 하겠는가?

일선도장 사범님들이여!

여러가지 조기교육이 붐을 이루고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태권도 보급에 앞장서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으나 현장에서 체험하며 교육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흘리는 값진 땀이 이 나라 어린이들의 장래에 확실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확신하고, 더욱 더 교육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로 태권도 수련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또한 '88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를 통해「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진가가 재인식 되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처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어떤 사람이 어떤얘기로 태권도에 대해 비방섞인 얘기를 해도 사실이 사실대로 판명되도록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객관 타당성 있는 연구를 병행하여, 태권도는 이러 이러한 좋은 운동이라고 당당히 답할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하도록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기 태권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정신으로 전진하십시다. *

태권가족

이향원

회사일로 한국에 출장 왔다 잠깐 들렀으니다
잘 오셨오. 도끼로선생

그래 이마까는 태권도를 잘 배우고 있읍니까?
헤~ 그러긴 했었는데, 그게 요즘은…

얘기를 하자면 좀 기므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들어 봅시다.

『블러드 스포츠』라는 무술 영화가 있으므니다 헤헤

주인공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위해 가라데를 배우지요 그래서 원수를 찾아 일본을 떠나 홍콩으로 가므니다
그래서요?

홍콩에서 무술인들이 일대사을 겨루는 블러드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므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하는 한국인과 준결승에서 맞서게 되므니다

거기에 태권도 선수가 아주 아주 비겁하므니다
하지만 가라데의 주인공이 쳐들이치므니다
음!

그 영화도 보고 이마까 한테도 가라데나 배우게 했으므니다
『블러드 스포츠』 미국 젊은이 한테도 인기 좋다고 하므니다.
에잉~ 한심한 사람!

태권도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가라데 영화를 보고 마음이 변했다 이거요?

헤헤 그렇스므니다

그 영화를 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 되므니다
헤헤
이것 보시오, 이마까선생!
하이 무엇이노 잘못했으 므니까?
이런 경우를 아시오
무시기노 경우 말씀이 므니까?
힘 없는 겁장이 개가 으젓하고 힘센 개와 마주 치면
겁장이 개가 어찌 하는지 아시오.
힘 없는 겁장이 개가 먼저 이빨을 드러 내고 으렁 거리지요
까르르 깽깽
하! 맞아요 나도 그런거 봤으 므니다
이마까선생은 그겁장이 개가 용감해서 으렁 그린다고 생각 하시오?
아니 므니다 겁이 나니까 자기 방어를 하려는…
가만! 그럼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겁장이 개란 말이…
아시는 군 바로 그점유 와 같소
얼마전 일본에서 있었던 가라데와 태권도 시범 경기가 있었오
그 경기에서 태권도의 우수성이 입증 된바도 있는데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오
하이고 창피노 하다 고노무 영화 보지노 말것을…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이 될 스포츠요
하이 하이
이마까놈 다시 태권도 시켜야 한다
졸싹 거리긴 쫓쫓…

황새의 봄

글·정 호 승

먼 산마루에 아침해가 불쑥 솟아올랐읍니다. 수많은 햇살들이 산비탈로 달려나오고 풀잎마다 새벽이슬들이 도르륵 굴러 내렸읍니다. 나는 소나무 등우리에 가득찬 햇살을 털며 아침놀 속으로 날아 올랐읍니다.

마을은 햇살에 눈이 부시고 멀리 송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읍니다. 나는 아침마다 내 짝과 함께 해와 같은 원을 그리며, 긴 부리로 햇살을 콕콕 쪼아대면서 아침놀 속으로 날아올랐읍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읍니다. 우리는 마을을 지나 꽃메산 숲속으로 날아가다가 한 젊은 사냥꾼을 만났읍니다. 사냥꾼은 하늘이라도 쏠듯 긴 공기총을 하늘 향해 치켜들고 갓피어난 철쭉꽃 사이를 지나고 있었읍니다. 사냥개 한마리도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떨어진 철쭉 꽃잎 위에 코를 갖다대고 킁킁거렸읍니다.

우리들은 재빨리 날개를 펼쳐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읍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탕! 하는 총소리가 내 귀를 뒤흔들었읍니다. 나는 깜짝 놀라 더 높이 하늘 위로 날아올랐읍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와 함께 하늘을 날던 내 짝이 날개에 힘을 잃었는지 점점 숲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읍니다.

진달래 꽃잎더미 위에 툭 떨어진 내 짝은 몇번이나 날개를 뒤채다가 고요히 숨을 거두었읍니다. 어디선가 쏜살같이 달려온 사냥개 한 마리가 내 짝을 덥썩 물고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 말았읍니다.

나는 슬픔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읍니다. 내 눈에 고이는 눈물 때문에 그 맑던 봄하늘이 뿌옇게 흐려졌읍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숲속을 빙빙 맴돌았읍니다. 사냥꾼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나물 캐는 아이들만 나물을 캐고 있었읍니다.

나는 내 짝이 떨어진 진달래 더미 위에 날아가 보았읍니다. 그곳엔 내 짝이 남기고 간 피묻은 깃털 하나만 홀로 울고 있었읍니다.

총소리에 놀라 후다닥 떠나버렸던 햇살들이 다시 돌아와 숲은 여전히 햇살에 반짝거렸읍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숲속은 그저 평화롭기만 했읍니다. 나는 내 가느다란 목과 다리를 길게 쭉 뻗치고 둥우리가 있는

마을로 쓸쓸히 돌아왔읍니다.

마을은 봄햇살에 눈이 부셨읍니다. 보리밭은 더욱 푸르게 자라오르고, 무우밭 무우장다리 꽃잎 위로 노랑나비떼들이 춤을 추었읍니다. 삽살개 한 마리가 고무신 한 짝을 입에 물고 온 골목을 쏘다녔읍니다.

그러나 짝을 잃은 내 가슴은 오직 슬픔만 가득 찰 뿐이었읍니다. 소나무 빈 둥우리엔 솔방울만한 햇살만 가득 들어 있을 뿐, 내 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읍니다. 봄바람만 둥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지나갈 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읍니다.

나는 소나무 빈 둥우리만 빙빙 맴돌았읍니다. 학교 가는 마을 아이들 몇 명이 고사리 새순 같은 손을 흔들며 지나갔읍니다. 콩밭에 김매러 가는 할머니 한 분이 호미를 흔들며 지나갔읍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나는 그만 둥우리 속에 픽 쓰러지고 말았읍니다.

그 이튿날 아침이 되자 마을사람들이 내 둥우리 밑으로 모여들었읍니다. 마을사람들 사이에는 내 짝이 사냥꾼의 총에 맞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고개를 숙이고 수군거렸읍니다.

"그 사냥꾼을 찾아야 한다!"

"그 못된 사냥꾼을 잡아야 한다!"

마을사람들은 종일토록 둥우리 밑에 모여 웅성거렸읍니다. 온 마을이 슬픔에 젖었읍니다.

우리들은 학동 마을의 큰 자랑거리였읍니다.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사람들은 누구나 우리를 아끼고 돌보았읍니다. 마을사람들은 우리가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6.25동란 때에도 텅빈 마을을 홀로 지켰읍니다. 피난갔던 마을사람들이 하나 둘 마을로 돌아올 때 우리는 날개를 퍼덕이며 마중을 나갔읍니다. 그럴 때마다 마을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어 주었읍니다.

들녘엔 봄빛이 더욱 짙어갔읍니다. 마을사람들의 일손은 점점 바빠지고, 나는 갈수록 내 짝이 그리웠읍니다. 내 그리움은 달빛이 되어 소나무 솔잎마

다 내려앉았읍니다. 산마루에 두둥실 보름달이 떠오르면 내 짝이 그 달 속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

"황새들은 죽으면 저 달 속에 가 산단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얘기가 떠올라 나는 늘 보름달을 바라보았읍니다. 그 달 속에는 수많은 황새들이 흰 달빛을 뿜으며 영원히 살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 달빛이 내 하얀 날개 위로 끊임없이 내려앉았읍니다.

우리는 달빛을 가장 좋아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얼굴과 달빛을 가장 먼저 보았읍니다. 어머니는 달빛을 먹이인양 우리 입속에 받아 넣어 주기도 하였읍니다.

솔잎에 가득 달린 달빛을 보면 달빛은 꼭 솔잎 같기만 하고, 보릿대궁에 가득 달린 달빛을 보면 달빛은 꼭 보릿대궁 같기만 하였읍니다.

우리는 달빛 속에서 곧잘 춤을 추었읍니다. 긴 목을 달을 향해 쭈욱 뻗고 두 다리로 길게 밤하늘을 밀어내고 흰 날개를 폈다 오무렸다하면서 춤을 추었읍니다. 어떤 때는 한 자리에 오똑 서서 뱅그르 뱅그르 돌기도 하였읍니다. 달의 숨소리 같은 부리소리를 내면서 보름달 속으로 날아가기도 하였읍니다.

지금 내 짝은 한 줄기 흰 달빛이 되어 둥우리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농약 먹은 물고기를 먹고 쓰러져 간 황새들이 달 속으로 날아가 한 줄기 달빛이 되어 흘러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학년씩 올라간 마을아이들이 달을 향해 보리피리를 불어댑니다. 푸른 달빛이 보리피리처럼 삘릴리 삘릴리 울어댑니다. 나는 내 짝이 그리워서 빙빙 보름달을 맴돕니다. 저 보름달 속으로 날아간 내 짝이 어서 오라고 나에게 손짓을 합니다.

나는 힘있게 날개를 저으며 보름달 속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삘릴리 삘릴리 달을 향해 보리피리를 불던 마을아이들이 점점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 나는 얼마나 날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던 마을은 이미 보이지 않고 보름달은 여전히 저 먼 산마루에 떠있읍니다. 나는 내 짝을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 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보름달을 향하여 날개를

저었읍니다.

그러나 달은 산마루 위로 더 높이 솟아오를 뿐 조금도 가까와지지 않았읍니다. 내가 달을 향하여 힘차게 솟아오르면 오를수록 달은 점점 더 높이 산마루 위로 솟아 올랐읍니다.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늘위로 날아 올랐읍니다. 아,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손에 잡힐듯 가깝게 느껴지던 보름달은 더욱 멀리 사라져갈 뿐 조금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읍니다.

나는 그만 날개에 힘이 쏙 빠져버리고 말았읍니다. 도저히 더이상 날 수가 없어 벼랑위에 앉아, 사라져가는 보름달만 쳐다보았읍니다. 내 짝은 여전히 달빛 속에서 어서 오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읍니다.

어느새 보름달은 점점 희미해지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읍니다. 툭툭 옷에 묻은 먼지를 털듯 어둠을 털고 해가 솟아올랐읍니다. 번쩍번쩍 햇살에 눈이 부셨읍니다. 수많은 햇살들이 산과 들에 내려꽂혔읍니다.

나는 다시 해를 향하여 힘차게 솟아 올랐읍니다. 보름달 속에 있던 내 짝은 어느새 해 속으로 날아가 나에게 또 어서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읍니다. 나는 아침해를 향하여 날개에 더욱 힘을 주었읍니다. 해를 향하여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해는 점점 더 뜨거워졌읍니다. 나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숲속을 찾아가 지친 날개를 쉬고 싶었읍니다.

학동마을에는 어미황새마저 어디론가 날아가 돌아오지 않자 크나큰 슬픔에 잠겼읍니다. 이제 황새는 영영 마을을 떠나버린 것이라고 어떤 할머니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읍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산과 들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도 어미황새를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들은 둥우리에 남아 있는 황새알들이 너무 불쌍해 서로 바꾸어가며 그 둥우리를 지켰읍니다.

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 얼마나 해 속을 날았는지 모릅니다. 해는 가도 가도 점점 멀어져 갈 뿐 조금도 가까와지지 않았읍니다. 나의 온몸은 점점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더이상 해를 향해 날아갈 힘이 없었읍니다.

나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읍니다. 포근한 둥우리 위에 피곤한 내

날개를 쉬게 하고 싶었읍니다. 문득 혼자 두고온 황새알이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되었읍니다.

나는 다시 마을을 향해 날아올랐읍니다. 하늘은 조그만 먹구름을 일으켜 뜨겁게 달아오른 내 날개 위에 봄바를 뿌렸읍니다. 멀리 마을쪽에서부터 무지개가 반원을 그리는 모습이 보였읍니다. 나는 그 무지개 속을 지나 마을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날개를 저었읍니다.

"황새가 돌아왔다!"

"어미황새가 돌아왔다!"

마을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읍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던 마을이 갑자기 큰 기쁨으로 술렁거렸읍니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소나무 둥우리 아래로 모여들었읍니다. 내가 잠에 골아떨어지자 마을청년들은 밤새도록 밤잠을 자기않고 나를 지켜주었읍니다. 마을 소년들은 서로 다투어 개구리와 미꾸라지를 둥우리 속에 던져넣어 주었읍니다.

나는 마을로 돌아온 일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비록 내 짝은 잃었지만 내가 살 곳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잠시도 둥우리를 떠나지 않았읍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읍니다. 나는 그저 품속에 알을 꼭 껴안고만 있었읍니다. 그런 어느날, 새벽별들이 반짝반짝 마지막 숨을 몰아쉴 무렵, 아기황새 한 마리가 태어났읍니다.

"아기황새가 태어나셨다!"

"아기황새가 태어나셨어!"

새벽 밭일을 나가던 마을사람이 골목을 내달리며 외쳤읍니다. 마을사람들이 우루루 달려나와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었읍니다. 내 가슴은 기쁨으로 곧 터질 것만 같았읍니다. 새벽 이슬들이 벌거숭이 아기황새의 몸을 씻으며 도록도록 굴러내리고, 채 사라지지 않은 새벽별들이 아기황새의 눈빛이 되어 빛났읍니다.

마을은 더 큰 기쁨으로 술렁거렸읍니다. 마을사람들은 새벽별들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아기황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였읍니다.

아기황새는 무럭무럭 자라났읍니다.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먹이를 찾으러 다녔읍니다. 밤이 되면 푸른 별빛을 아기황새의 입속에 넣어 주기도 하였읍니다. 마을아이들은 물고기와 개구리를 잡아 등우리 속에 던져넣어 주기도 하였읍니다.

어느덧 아기황새는 마을을 한바퀴 날 수있을 정도로 자랐읍니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다 잠든 새벽에 일어나 아기 황새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쳤읍니다. 내가 아기황새를 데리고 마을 공회당 위로 천천히 날아가자 온 마을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손을 흔들었읍니다.

"우리 마을은 복받은 마을이다!"

"우리 마을은 복받은 마을이야!"

그날 저녁에 마을에서는 흰떡을 빚고 큰 잔치가 벌어졌읍니다. 서로 술잔을 주고 받으며 어절시구 어깨춤들을 추었읍니다.

나는 요즘 아기황새를 데리고 날마다 푸른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멀리 아지랑이 속으로도 날아다닙니다. 내 짝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 떨어진 꽃메산 숲속 하늘 위에도 날아가 그날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내 짝은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으나 나는 지금 아기황새 때문에 퍽 행복합니다.

정 호 승

작가약력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문과 및 같은 대학원 졸업.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서울의 예수」「새벽편지」 등이 있으며, 현재 조선일보사 월간조선부 근무.

동남아 국제친선 태권도 경기를 다녀와서

김 부영 /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홍보분과위원장

1. 기 간 : 1988. 1. 15~1. 27 (13일)
2. 경유국 : 필리핀, 태국, 홍콩
3. 참가임원 및 선수:

○ 임 원

단 장 : 이병석
주 무 : 손근수
회의대표 : 황호순
섭 외 : 김인수
팀 닥 터 : 문승국
감 독 : 이택명
코 치 : 김부영
트레이너 : 조헌길

○ 선 수

핀 급 : 권태호(동성고등학교 2학년)
플라이급 : 조영남(동성고등학교 3학년)
밴 텀 급 : 강창모(동성고등학교 3학년)
페 더 급 : 조준원(동성고등학교 3학년)
라이트급 : 장 혁(서울체육고등학교 3학년)
웰 터 급 : 진정우(부산체육고등학교 3학년)
미 들 급 : 공두환(성동고등학교 3학년)
헤 비 급 : 성필용(송곡고등학교 3학년)

본 연맹에서는 '87년도 제14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회장기 쟁탈전('87. 4. 27~5. 2 국기원)및 제23회 대한 태권도 협회장기 쟁탈전겸 제14회 한국중,고등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전('87. 8. 24~8. 28 국기원)에서 남자고등부 각체급1. 2위 선수들을 선발하여 '87년도 연맹 대표선수선발 평가전('87. 11. 23 국기원)을 각 체급 리—그전으로 실시하여 체급별 우승자 8명을 연맹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하여 동남아 국제 친선태권도 경기 파견 선수로 선정하고 파견에 따른 각종 준비를 시작하였다.

분주하고 바쁜 준비기간이 어느덧 지나고 드디어 '88. 1월 15일 출발일이 다가왔다.

쌀쌀하던 겨울 날씨도 장도에 오르는 우리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환송을 해주는듯 출발할 때에는 포근한 날씨였다.

아침에 임원 및 선수들은 출발준비를 마치고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 및 친지들의 전송을 받으며 기내 탑승을 하였다.

우리 임원들은 새로운 정신 무장을하며 모든 일을 무사히 끝내고 돌아올 것과 아울러 태권도 종주국의 선수들로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민간 스포츠 외교 사절로서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어느덧 일행은 필리핀 상공을 날으고 기내방송은 잠시후 착륙

방콕공항에서 송기영사범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선수단.

이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18:00시 공항 활주로에 가볍게 내려앉은 비행기는 서서히 속도를 낮추고 있었다.지연착은 되었지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것에 감사하며 공항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에 분승을 하는데 선거로 인한 임시 방학으로 인하여 경기 일정이 변경되어 잠시후에 경기를 하게되었다는 통보였다. 경기장은 마닐라 공항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DON BOSCO MAKATI SCHOOL 체육관이었다. 일행이 도착하자 안내 방송으로 선수단 도착이라는 말과 함께 환호 소리가 들려왔다. 도착과 동시 경기복장으로 준비를 하고 그곳 주니어 대표와 1차 경기를 하여 전원 가벼운 승리로 경기를 끝내고 필리핀 태권도 협회 부회장 안토니오 오펜(ANTONIO OPPEN)께서 우리교민식당(KOREA GARDEN RESTAURANT)에서 저녁 만찬을 마련해 주었다.

이국에서 맛을 보는 우리 음식에 새로운 맛을 느끼며 식사를 끝내고 인사를 드린 후 다시 경기장으로 향했다.

이곳 중앙도장에 도착해 PHILIPPINES NATIONAI TEAM과 승패에 관계없이 친선경기를 하였으나 일방적인 경기로 역시 종주국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24시 30분 경기를 끝내고 숙소로 향했다.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MIRDOR HOTEL에 도착한 일행은 이국의 기분도 잊은채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수면을 취했다.

무척 바쁘고 피곤한 하루였다.

16 일 : 08시 아침 식사를 간단히 끝내고 오전에 각자 휴식을. 취한후 필리핀 협회 부회장 로버트 아벤테하도(ROBERT AVEMTEHADO)님의 점심 초대가 있었다.

그곳은 크럽 식당으로서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식당외 여러부속 시설이 잘되어 있었다. 수영장을 비롯하여 간단한 실내외 체육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식사후 약간의 휴식을 하고 14시 30분 마닐라시내 관광을 하였다.

이곳에는 DASMARINAS VILLAGE 라는 부자 마을이 가장 인상깊었다. 이곳의 빈부의 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이곳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주야 통제를 받으며 통행을 하고 있었다.

17 일 : 오늘은 지방 대표팀과 CIAIET SCHOOL에서 경기를 하였다. 시합이라는 말보다 가벼운 연습이라고 평을 해야할것 같다. 우리 선수들과 많은 수준차를 실감하였지만 특별히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그곳 사범들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였다. 태권도

연습 방법과 지도방법, 자국선수들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많은 질문과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상태라면 이곳 선수들이 머지않아 많은 실력이 향상되리라 생각되었다.

점심식사는 필리핀 태권도협회 이사 안토니오 순디앙(ANTONIO SUNDIANG)께서 초대를 해주셨다.

숙소에 돌아온 일행은 휴식을 마치고 대사관 안재석 대사님과 김중재 영사님께서 KOREA GARDEN RESTAURANT에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셨다. 여러가지 말씀을 듣고 우리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뿌듯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와 하루일과를 되돌아보며 반성을 해보았다.

18 일 : 오전은 쇼핑을 하였다. 중심가에 위치한 RUSTANS 백화점 건물앞에 넓은 주차장시설, 내부 질서, 정리, 청결, 친절 모두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그후 BISITANG PHILIPINO 시장 쇼핑을 하였다.

그곳은 토산품(산호, 소뿔, 거북박제품, 조개류상품, 목각등)을 구경하고 오후 연습관계로 시간을 재촉하며 숙소에 들려 연습준비를 하고 중앙도장에 도착하여 그곳 선수들과 같이 연습을 하였다. 우리선수들의 연습과정 및 각종 동작에 관심이 많았다. 또한 몇명의 그곳 사범들은 연습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약2시간 정도의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향했다.

19 일 :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필리핀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마친 후.

모두 시내 주변 관광을 위하여 숙소를 나왔다.

RIZAL PARK의 넓은 공간 시설이 훌륭하였으며, 필리핀 PLAZA HOTEL은 정면에서 볼 때 각 방앞에 아름다운 화분이 있고 건물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영장의 맑은물, 넓은바다, 야자수 사이로 일광욕을 즐기는 서양인들이 보였는데 이곳은 외국인만이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었다.

일행은 이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와 내일 아침 출국을 위한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그곳 선수 및 사범들의 요청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외출을 허용하였다. 그곳 선수들의 안내로 즐거운 외출을 마친 선수들은 전원 만족한 표정으로 무사히 귀가하였다.

20 일 : 숙소를 출발하여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모든 출국수속을 마친 우리 일행은 홍성천 사범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쉬운 작별과 함께 필리핀을 뒤로하고 방콕으로 향했다.

18시 10분 방콕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입구에 나오니 그곳의 송기영 사범님과 필리핀 태권도 협회 회장님께서 꽃다발까지 준비를 하고 환영을 하여주었다. 간단한 인사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숙소(회장님 사택)로 향했다.

저녁 식단에는 회장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김치를 준비하여 주셨다. 자상하신 마음에 무척 고마움을 느낄수 있었다.

21 일 : 방콕에서의 하루일과가 시작되었다.

이곳의 명소 수상 마케트 관광을 하였다.

배위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많은사원들, 고국에서 보기힘든 열대식물과 열매들…모두 신기할

필리핀선수들과 태권도 수련을 함께하는 한국 선수들.

뿐이었다.

여러 곳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

22 일 : 이곳의 유명한 해양관광 명소 파파야를 관광하기 위하여 일찍 서둘러 해안에 도착하여 배를 한척 빌려 섬으로 향했다. 30여분 지나 그곳에서 바다 낚시를 잠깐 즐기고 목적지로 향했다.

섬에 도착하여 점심식사후 기념촬영 및 해변에서의 자연을 만끽하고 시간계획 때문에 아쉬움을 남긴채 모두 승선하였다. 배 운전은 처음하지만 목표를 향하여 침착하게 목적지로 향했다. 피로를 느낀 일행은 대부분 오침 상태였다. 목적지에 도착한 일행은 숙소로 돌아와 단복으로 말끔히 차려입고 김좌수 대사님의 저녁 만찬초대에 참석하였다.

이곳 고려정에서 한식으로 푸짐한 식사를 마친후 여러가지 질문과 좋은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바쁘신 일과에도 선수단에게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것에 감사를 드리며…

23 일 : 무덥지만 어느정도 기후에 적응이 되어가는듯 싶었다.

오전 GRAND PALACE 관광을 하였다.

이곳은 방콕의 대표적이요 세계적인 관광지였다.

우리들 입에는 감탄사가 연발하였다. 정말 훌륭한 고적이었다. 오후에는 민속촌을 관광하였는데 여러가지를 한눈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훌륭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생각하며 숙소에 도착하여 내일 경기를 위하여 가볍게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했다.

24 일 : 오늘은 태국팀과의 경기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여러경기장이 한곳에 모여있는 종합 경기장이었는데 이곳 체육관에서는 태국 문공성 주관 태권도협회 주최 태권도 대회가 진행 중이었다.

경기 중 오후 2시에 양국대표 친선경기가 실시되는 것이다. 태극기를 앞세운 양국선수입장에 이어 양국 국가가 울려나왔다.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찡하는 것을 느끼는 마음과 나의조국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순간 슬며시 두주먹에 힘이 주어졌다. 본부석 중앙에는 우리 대사관님과 직원들이 격려차 나와 주셨다. 워낙 더운 날씨 관계로 땀방울이 줄을 이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잠시후 핀급부터 경기가 시작되었다.

핀 급 권태호선수:SAYAN TOWSUNTOB선수

권선수는 여러가지 조건에 적응이 어려워 게임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경기의 주도권을 빼앗기며 어렵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지만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3회 득점을 얻어 3:2 어려운 판정승.

플라이급 조영남 선수:ANAN MEKSAWAN선수

조선수는 경기초반부터 다양한 공격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고 일방적인 공격으로 5:0으로 가볍게 승리.

밴 텀 급 강창모선수:KRIEN-GSAK SIOHAWAL선수

노련미를 앞세운 강선수는 상대선수를 자유자재로 공격하여 2회 20초 R.S.C승

페 더 급 조준원:NOPP ADOL MONGVEJAHKUL 선수

조선수는 다양한 기술로 상대선수를 공격하여 5:0으로 가볍게 승리.

라이트급 장 혁:CHANPAN

HIRIYAPAN선수

장선수는 뛰어난 신체적 조건으로 상대선수를 앞돌려차기와 들어찍기로 공격을 가해 일방적인 경기로 5:0승.

웰 터 급 진정우선수:PREECHA TANGKA WATANA선수

진선수는 오른발을 주무기로 한 정확한 공격으로 몸통 얼굴등을 강타 5:0으로 승리.

미 들 급 공두환선수:TRAKUL WONGYANNAWA선수

공선수는 1회전부터 상대선수를 공격 2회전 초반에 들어오는 상대선수를 뒤돌려차기로 얼굴을 강타하여 2회 45초만에 K.O승.

헤 비 급 성필용선수:VIBUL RUEMGROJCHANKIJ선수

성선수도 우리선수들의 전승에 힘입어 초반부터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여 반격의 틈을 주지 않고 경기를 이끌어 5:0으로 승리함으로써 8체급 전원 승리로 경기 일정은 끝이났다.

경기를 마치고 그곳 선수들과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퇴장하는 순간 우리 선수들에게 관중들의 사인 요청이 있어 시간은 지연되었지만 성의껏 해주고 체육관을 나와 숙소로 향했다. 태국 선수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곳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며 방콕의 마지막 밤을 맞았다.

25 일 : 우리 선수단은 숙소를 출발해 공항에 도착하여 그동안 태국협회 회장님과 송기영 사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09시 30분 CV×700기로 홍콩으로 향했다. 11시 45분 마지막 기착지인 홍콩에 도착하여 여행사 직원의 안내로 구룡반도에 위치한 광동 HOTEL에 도착하였다.

미들급의 공두환선수가 K.O로 승리하는 순간.

점심식사후 구룡반도 관광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홍콩의 유명한 백만불 야경을 관광하였다.

이곳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각 건물은 층별로 돌아가며 야간에 불을켜 이곳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밝혀 주는듯 싶었다.

26 일 : 해양공원 관광을 하였다. 해양공원에는 1977년도 해발 230m 되는곳에 길이 1.4㎞에 달하는 거리에 총공사비 100억을 들여 케이블카를 시설하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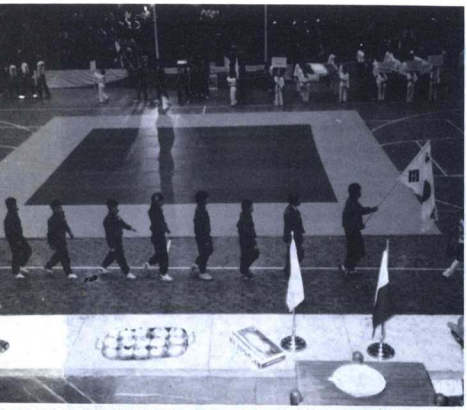
우리는 케이블카로 정상에올라 수족관, 고래쇼, 세계적인 다이빙선수들의 다이빙 시범등 여러 관광시설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시내쇼핑을 하였다. 백화점과 여러 상점을 돌아보며 우리상품의 우수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27 일 : 모든 일정을 끝내고 서울로 향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애써주신 본 연맹 회장님이하 여러분들 또한 필리핀 홍성천 사범님, 태국 협회 말라까 회장님과 송기영 사범님 그외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

어느덧 우리 일행은 고국의 항공을 날으고 있으며 멀리 눈덮인 산을 내려다 보며 따뜻한 품에 돌아온 기분을 느끼며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것에 다시한번 모든분께 감사를 드렸다.

오후 5시에 공항에 도착하니 많은분들이 반겨주셨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모두 그립던 가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대회식에서 한국선수단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다.

태권도 기행

제1회 이란국제태권도 대회를 마치고

단장겸 감독/도 상 곤
대구직할시협회 전무이사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국제 초청 태권도 경기가 펼쳐졌다.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는 계명대학교 학생을 주축으로 구성된 지방팀이 국제초청태권도 경기에 출전함에 따라 단장 겸 감독으로 출전한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선수단은 3월 3일 오후 2시에 김운용 세계연맹총재에게 출국보고 후 선수8명과 이완욱코치, 이종찬 국제심판 등 총11명이 이란행 비행기에 올라 일본, 중공, 북경을 경유 20시간의 긴 여정 끝에 이란에 도착, 숙소인 힐튼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은 해발 2,800미터의 고지로 무척 건조해 호흡이 거칠어 질 뿐더러 시차는 우리나라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듯 정반대라 현지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아침에는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악조건에다가 음식도 맞지않는 상황이었다. 기후도 출발시에는 20도씨 정도의 더운 날씨로 얘기 듣고 선수단은 여름의류를 준비했으나 도착해보니 영하의 날씨속에서 추위와 갈증을 겪으며 현지정보면에서 너무나 어두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은 얼마나 많이 내렸던지 교통이 마비되고 학교는 휴교조치에 들어가기까지 할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일요일날 공휴일을 맞게 되지만 이란은 금요일이 공휴일이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나라의 낯선 풍물과 전쟁으로 인하여 폐쇄되어가는 시가지와 국민들이 지친상태의 무질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본 대회는 팔레비왕조(79년)의 붕괴이후 근10년만에 열리는 이란 민정 기념대회로 「여명의 10일」이라는 뜻깊은 대회라 이란의 체육기구 및 연맹은 정부의 관장하에 열성적이며 적극적이었다.

태권도 대회는 한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디아(동남아 5개국), 스페인, 덴마크(유럽 2개국), 뉴질랜드(대양주 1개국), 폴란드(공산국 1개국), 개최국인 이란에서 A . B. C팀이 참가해 9개국에서 총 12개팀이 출전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전쟁중인데도 불구하고 대회준비와 참가선수 및 임원에 대한 신변보호에는 각별히 신경썼음을 엿볼 수 있었다.

2월 9일 개최하기로 된 경기는 10일로 연기되고 대신 테헤란 시로디 종합경기장에서 식전생사를 개최했는데 각국 환영행사에서 이란 태권도시범단은 태권도시범을 완벽하게 펼쳐보여 우리나라 선수단은 깜짝 놀랐다.

또한 국민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 북한 교관의 지도하에 머리에 빨강띠를 두르고 총검술과 총을 쏘며(공포탄) 실시한 마스게임은 전쟁놀이를 연상케 해 소름이 끼쳤다.

10일 오전 10시에 시로디 종합체육관에서 경기가 시작되자 약2만여명의 관중은 박수와 환호, 휘파람 등으로 국내 대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끽했다 .

홈사 종주국이 이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열광적으로 펼쳐진 응원은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각국 대표 선수들은 종주국 한국선수들의 기량과 기술을 배워가기 위해 연신 프레쉬를 터뜨렸고 인터뷰를 청해와 우리나라 선수들은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웰터급에 출전한 강철규선수(배영고 3년)가 스페인선수를 빠른발앞후리기로 K. O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해 이란 땅에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다.

미들급에 출전한 공한석(경상공고3년) 선수는 관중들의 광기에 가까운 휘파람 응원에 기가 꺽인 듯 이란선수에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2월 11일 경기에서 라이트급에 출전한 윤만철(계명대)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스페인 선수를 맞이해 1회전에 2득점을 얻으며 라인밖까지 공격, 상대가 잡다가 부딛치는 상태에서 스페인선수가 고의로 넘어져 일어나지 않고 1분정도 경과하자 윤만철 선수는 반책패를 당하였다.

스페인 대표선수의 엄살의 제스츄어가 승리를 부른 경기였다.

벤텀급에 출전한 이희영(계명대 1년) 선수, 플라이급의 최정현(계명대 3년) 선수는 은메달에 그친 가운데 마지막시합에 출전한 페더급의 화종민(계명대 1년) 선수는 이란, 스페인 선수를 꺽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웰터급 금메달을 획득한 강철규 선수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은 종합 1위, 이란이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3위에 머물고 말았다.

우리 대표선수들은 국제태권도대회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경기운영 및 심리적 위축감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국제경기에서의 심판규정 등을 소홀히 인식함으로서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볼 때 외국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여실히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수들이 기량과 체력보강에 힘써야 함은 물론 경기, 심판규정을 잘 파악해 경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종합 성적

1위 : 스페인(금2, 은3, 동2)
2위 : 이란 A팀(금3, 은1)
3위 : 한국(금2, 은2, 동2)
4위 : 이란 B팀(금1, 동4)
5위 : 네팔(은2)
6위 : 폴란드(동3)
7위 : 인디아(동2)
8위 : 덴마아크(동2)
9위 : 일본(동1)

화제의 인물

서재환 사범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佛國土記」당선

강동구 명일동에서 충무체육관을 운영하며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서재환 사범이 '88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시조부문에 당선되었다.

태권도계에서는 지난해 김건중 사범이 「한국 문학」에 소설이 추천완료된데 이어 시조시인을 배출하게 되는 경사를 맞이하였다.

이번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뽑힌 「佛國土記」는 어느 일간지의 특집기사 「남기고 싶은 韓國(경주 남산편)」을 읽고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 쓴 작품이라고 하는데 서사범은 뜻밖에 당선이란 영광을 안았다며 겸손해했다. 그러나 이 시조의 심사를 담당한 정완영, 박재삼씨의 심사평에는 "시조의 기본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더러 새로운 자기의 목소리를 가졌고 가락을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도 무리하지 않고 은은히 배어있는 비밀이 그윽하다. 따라서 詩想도 뛰어나 凡手의 솜씨가 아니다. 한사람의 新人으로서는 당당히 그 높이와 깊이를 아울러 산다"고 극찬한 것을 보면 서사범의 당선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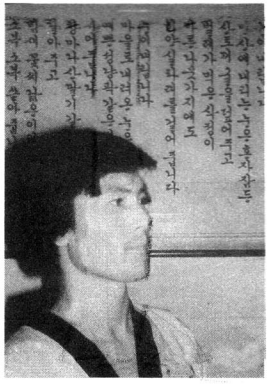
서재환 사범은 중학교 때부터 시와 소설 등을 틈틈히 써오며 문학을 「나의 생명이며 신앙처럼 느껴왔다」고 했다. 특히 시조는 우리 민족 고유의 시가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서사범에게는그 어느 장르보다도 가까이 애정을 가질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서재환씨는 「時調文學」 1회추천, 제11회 샘터 時調賞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사범은 시조가 가락의 골격을 지닌 문학형식이기 때문에 형식, 즉 자수율에 얽매여 고리타

분하다거나 케케묵은 옛날의 시가인 것으로 치부되는 일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한국사람들 모두가 시조를 쓰고 읊으며 한국의 정서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조의 방향을 겉가락은 형식을 이루나 내용면에는 자유시의 정서를 담는데 노력하겠다는 서사범은 문학을 학문으로 여기며 순금을 캐내려는 광부의 설레임과 두려움의 눈빛으로 새로운 시의 광맥(鑛脈)을 찾아나서야겠다고 했다.



약 력

- ○무임소장관상 수상
- ○내무부장관상 수상
- ○제11회 월간 샘터 詩調賞 당선
- ○3.1절 기념 萬海大賞 수상
-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 ○현 태권도 4단 (각종 태권도경기 입상)
- ○사단법인 현대계수학(속셈 주산, 암산)연구원 체육부장
- ○강동경찰서 직속 선도위원

강가에 앉아

서 재 환

열이요 백이던 갈래가
하나 되어 모입니다.

열이요 백이던 말씀이
하나 되어 맑힙니다.

구비쳐 기슭을 돌아
또 어디로 가는 강물.

물가에 앉아 있으면
흐르지 않는 게 없읍니다.

모래알, 피라미떼
그런 것들 말고라도

저 강안(江岸) 바윗돌까지도
가슴 속엔 흐릅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너무 빨리 흐르는 것.

흐르지 말아야 할 것
이것만은 흘러야 할 것.

무리져 다 흐르는데
나만 흘러 못 가는 것.

해를 저물게 하고
해를 다시 돋게 하고

달을 지게 하고
달을 다시 뜨게 하는

죽음과 삶의 사이가
영원 속에 놓입니다.

연작소설 사범님 ③

전달래 꽃

金 健 中

동짓달 내내 허연 눈발 한번 제대로 날리지 않고 포근하기만 하던 겨울이었는데, 입춘을 맞는 겨울의 끝머리에 갑자기 한파가 몰아닥친 희안한 기상이변이 일며 사람들은 새처럼 날아갈 모습으로 목을 움추리는 아침이었다.

이제 유치부 수료식을 며칠 앞두고 새학기를 맞기 위한 준비에 여러모로 도사범은 바쁘기만 했다. 특히나 신경 써지는 것은 유치부 등하교에 쓰이는 봉고차였다. 3년 남짓 쓰다보니 낡아 보여 바꿀까 생각하다 그런대로 한두해는 더 쓸 수 있을 것같아 몇군데 손질이나 하고 색깔이나 바꿔 도색하는 것으로 결정 짓고 말았다. 그래서 엊그제 정비공장에 맡겼던 봉고차를 어제 오후 해질녘에 찾아온 도사범은 산뜻한 우유빛으로 말끔히 단장된 차를 보고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조사범, 새차라는 기분으로 운전하라구.」

이튿날 아침 유치부 아동들을 등원 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는 조사범에게 웃음을 섞으며 도사범이 말했다.

「이게 새차지 뭡니껴? 깨끗하고 잘 굴러가면 된다 아입니껴 마, 누가봐도 새차로 볼겁니다.」

조사범은 맞장구치던 말을 마치기 무섭게 급히 출발하여 천하체육관 앞길을 빠져 나갔다. 봉고차의 꽁무니에서 진한 듸젤냄새가 도사범의 코끝에서 맴돌았지만 오늘따라 그냄새가 고향의 흙냄새처럼 싫지 않았다. 얼마간 우뚝 서서 바라보던 도사범은 봉고차가 아물아물 보이다 자취를 감출 때서야 자리를 떠서 체육관 계단을 올랐다.

난로가 있다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다 햇살마저 웅크린 아침이고 보니 체육관 사무실은 썰렁하기만 했다. 도사범은 쇼파에 앉자마자 담배에 불을 당겨 길게 한모금 빨아 연기를 토하는데,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이웃에 있는 푸른 체육관 전사범이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 앉자 마자 대뜸 유치부 타령

이었다.

「유치부 많이 받었어?」

「…흐훗」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으로 가벼운 웃음만을 머금는 도사범의 답변에 전사범은 그 진의를 알지 못한 채,

「거 우리동낸 원아가 전부 이사를 갔나 우리 체육관은 문의전화도 한통 없이 젠장 올 유치부는 아무래도 죽 쑬 것 같단 말야.」

전사범이 어수선을 떨며 군시렁거렸다.

「사람두 참!」

「사람두라니? 아니, 그럼 유치부가 없이 어떻게 체육관을 운영해?」

「없어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린 태권도 사범이지 보육교사가 아니란 말일세.」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린애들이 많아야 되는 거 아냐.」

「내 원참 이것봐 전사범. 물론 태권도를 배우려는 어린이가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자네처럼 안달을 떤다고 되는 게 아냐 단 한명이 오던 몇십명이 오던 의연할 수 있어야지. 또한 몇명이 오는냐보다는 몇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도사범은 태우던 담배를 부벼끄며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전사범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사범을 멀건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노크소리와 함께 고운이가 사무실로 들어서며 상냥한 인사를 던졌다.

「안녕하세요?」

「아니! 고운이가 웬일이냐? 학교는 어떡하고……」

「오늘이 저희 학교 개교기념일이라 쉬는 날이예요.」

「그런데?」

도사범의 말을 앞질러 전사범이 툭나서며 어떻게 왔느냐는 뜻으로 물었다.

「유치부 간식 뺏어 먹으려고 왔어요.」

「어엇?!」

전사범은 고운이의 엉뚱한 답변에 허를 찔린듯 말문을 잇지 못했다. 입을 딱 벌린 채 고운이를 빤히 하고 쳐다보기만 했다. 그런데 고운이의 손에는 예쁘게 장정된 "하이네 시집"이 들려 있는 것이 전사범의 눈길에 잡혔다.

「그게 뭐냐?」

「하이네 시집이예요.」

「뭐? 누가 시집가?」

「네에?! 아이참…… 하이네 시를 모아 논 책이란 말이예요.」

「아, 시, 거 조오치. 나도 말야 학생시절에 문학책을 꽤나 읽었는데……지금도 꼿꼿이 기억에 남는 게 있단말야. 그 김소울이던가 김소운이던가 하는 사람이 쓴 그 뭐야, 진달래꽃이 활짝 폈다던가 살짝 폈다던가……했튼, 피긴 폈는데 하는 시를 지금도 내가 기억 한다구.」

검지 손가락을 삿대질하듯 억양에 맞춰 치켜들고는 자못 흥분한 어조로 전사범은 고운이를 향해 떠들어 대었다.

「그뿐인줄 아냐. 그 왜 김광수던가 이광수던가 하는 사람이 쓴 흙이라고 있지? 그게 보통 명작이 아니더라구 명작은 말야 오래도록 남는 거야. 올치, 고운이 너 요즈막 케이비에스에 나오는 토지 안보냐? 그게 바로 옛날에는 흙이었지만 요즘엔 토지로 나오지 않더냐. 흙이 토지 아니냔 말야.」

「예에?! 원작이 박경리로 나오던데요.」

고운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반문하는 감정으로 말하자

「어허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 원작이라는 건 원래 생각은, 그 뭣시냐 박뭣시가 했고, 그 생각을 쓴건 김광순가 이광순가가썼다 이 말이다 알것냐? 엉?」

「어휴! 예에 자알 기억하겠어요.」

터지려는 웃음을 감추며 전사범에게는 긍정의 표정을 짓던 고운이는 도사범을 향해 고개를 돌린 뒤 입을 삐쭉 내밀었다.

「전사범, 남의 전공과목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냐.」

묵묵히 앉아 있던 도사범이 그제서야 한마디 거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도 국문과 냄새는 맡은 사람이야. 그저 헷센가 참샌가 하는 그 뭣시냐.」

「됐어, 이사람아 그만해.」

도사범이 전사범의 말허리를 뚝 자르며 고운이를 수련장으로 내보냈다.

「도사범, 지금 있는 조사범 말야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문제라니?」

「그럼 도사범 자넨 아무것도 모른단말야? 물론, 아랫사람 아끼는 도사범이니까 얘기해 봤자지만 ……어쨌거나 보통문제가 아냐.」

전사범의 말은 사실이었다. 도사범도 간간이 그런 말을 들어온 터였다. 몇몇 관원의 부형한테서도 들었고 특히나 학생부 녀석들 한테서도 개인상담이 있어 이야길 들어보면 거의가 조사범에 대한 문제들이였다. 하지만 도사범은 그런 모든 것들은 조사범의 개성이 강한데서 비롯된 것이지 큰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도사범이 조사범과 인연을 맺게된 것은 순전히 조사범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몇년전 도사범이 태권도에 관한 논문을 태권도지에 몇차례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돼 대구에서 전혀 모르는 태권도 사범한테서 편지가 날라들었다. 물론 내용은 도사범의 논문을 보고 존경한다느니 훌륭하다느니 하는 내용이었고 그후 몇차례의 편지에 마지못해 고맙다는 회답을 보내자 대구에서 편지의 주인공인 조사범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날 처음 대면할 때, 조사범의 깍듯한 예의범절은 도사범으로 하여금 커다란 신뢰감을 심어 주었고 그점은 천하체육관 사범으로 채용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사소한 웃음거리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도사범은 빙그레 웃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지만 달포 전에 있었던 일은 도사범으로 하여금 일말의 실망을 갖게 하였다.

그날, 성인부 수련이 끝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시각이었다. 도사범은 갑자기 아랫배가 빠빳해지며 진통이 시작되었다.

「조사범 약국에 가서 약 좀 지어와.」

아랫배를 감싸안고 끙끙대며 조사범에게 심부름을 시켜놓고도 너무 늦은 시각이라 약국문을 닫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약을 지어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금새 다녀올 수 있는 약국임에도 얼추 한시간이 되어도 조사범은 돌아오질 않았다.

(이사람이 약국문이 닫혀서 열린델 찾아 다니나 왜이리 늦어.)

도사범은 그리 생각하고는 끙끙대고 있는데, 체육관 계단오르는 발자욱 소리가 거칠게 들리며 고함소리가 터졌다.

「여기 쥔 양반 있소! 엉!」

영문도 모르고 도사범이 체육관 현관문을 열어제치자, 뚱뚱한 중년사내가 다짜고짜 서슬이 시퍼렇게 도사범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여봐! 당신이 쥔이야! 아니, 남의 샷타문을 어쩌자고 부셔버리는 거야!」

「……」

「이봐욧! 그카몬 안돼! 당신이 말야 약사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약을 줘야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게 약국이락 안캤나?」

조사범은 약국 주인보다도 더욱 언성을 높히며 나대겼다.

「쥔양반 이사람하는 짓거릴 보슈. 말이 통해야 해먹지 도대체가 젊은 사람이 먹보도 아니고 알아먹질 못하잖소.」

조사범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조사범과는 이야길 하질 않고 도사범에게만 다그치듯 말머릴 돌리는 약국 주인이었다.

「죄송합니다. 샷타문은 날이 밝는대로 고쳐드릴테니 돌아가십시오.」

정중한 사과와 함께 수습방안을 제시하는 도사범의 태도에 자세를 누그러뜨리며 약국주인은 조사범에게 몇마디 충고를 남기더니 체육관 계단을 터그덕거리며 내려갔다.

「헹님! 저 약국 영감탱이 못됫심더.」

「못되긴 뭐가 못돼? 자네가 너무 과격한 탓이지.」

「그게 아입니더. 첨엔 약국문을 두들겨도 조용합니다. 그래 계속 두들기니까 안에서 왜그러느냐고 신경질을 냅디다. 배아픈데 먹는 약 달락카니까 낼 오락캅니다.」

「그럼, 그냥 오지 그랬어.」

「그냥 오다뇨? 계속 두들기다 대답도 안키에 뱃길로 확 찻비렸심더……그 뭐 샷타문이 야악간 휘였심더.」

머리를 극적거리며 조사범은 말꼬리를 우물거렸다.

「아뭏든 내일 아침에 가서 사과드리고 샷타문 고쳐드려.」

단호하게 말하는 도사범 어감에 눌려 조사범은 말꼬리를 달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는 이후 조사범은 각별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조심하는 것을 도사범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부 관원들의 불평이나 유치부 국교부 부형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도사범은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래서였는지 계절탓인지는 몰라도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관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체육관의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것만 같았다.

도사범이 잠시 조사범의 생각에 침묵을 지키고 있자 무슨 낌새라도 맡았는지 잽싸게 전사범이 말문을 열었다.

「도사범, 조사범이 오고 관원이 많이 줄었지?」

「글쎄……자연현상이겠지.」

「자연현상? 참 느긋한 생각이군. 어느 체육관은 말야 사범하나 잘못 고용했다가 작살났어. 그러니까 스트라익이 일어난거야. 어느날 갑자기 체육관에 한명도 안나온거야 말하자면 전관원이 결속이 되어 몽땅 결석을 한거지.」

「……」

「내가 볼 땐 천하체육관도 조사범 믿고 있다간 남에 일 같지 않을 거야. 조심하라구.」

분명 그의 말뜻은 조사범을 일찌감치 내보내라는 말임을 도사범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등 쓸모없는 말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만큼 조사범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이었다.

「이봐 전사범,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누굴 믿나?」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구?」

「그렇치!」

「사람이 사람을 믿어서 혜준양 유괴 사건이 결국 실망으로 끝났나? 난 솔직이 혜준이가 살아서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그 범인 말야 참, 나쁜 자식야.」

「……」

말없이 도사범도 전사범의 그말에는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야 요즘 세태라는 것이,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 거 보통문제가 아냐. 도대체가 모든 것이 인스탄트 식품처럼 즉석이야 즉석.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깊은 사고(思考)로써 앞뒤를 재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지르고 보는 거야. 그런 사고 방식이 문제란 말야. 자, 보라구 돈이 필요하다구 생각하면 돈 몇푼 때문에 쌈박질을 않나, 돈 몇만원 때문에 강도질을 서슴없이 해대질 않나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니까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는 숫자겠지만 불안한 거라구. 하기사 청소년들의 그런 사고방식에는 우리 기성세대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는 셈이지. 흡사 자네가 조사범을 감싸주듯이 말이야. 안 그래?」

전사범은 웅변을 하듯이 두눈을 호동그레뜨고는 도사범을 향해 말했다.

「이사람 거기다 왜 나를 물고 들어가?」「말하자면 그렇타는 식이지.」

「문제는 인간상실에서 오는 거야 우리들 태권도 사범이 할 수 있는 건 태권도 기술의 전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회복의 선도적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일세. 그런 의미에서 다소 조사범에게 시행착오가 있다해도 데리고 있는 건 가르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 거야. 난 아직도 인간에 대해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전사범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에서 실타레처럼 풀리는 담청색 담배연기를 바라보며 도사범은 차분히 말했다.

그때.

「다녀 왔심더.」

조사범이 사무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수고 했어.」

「근데, 이상합디더. 알라들이 몇명 안왔심더.」

「몇명 안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도사범이 물었다.

「거 어른 줄아논 것 같은 이동원이 하구, 알라 두명 밖엔 안 왔심더.」

「글쎄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임마들이 길거리에서 차를 기다리다 차가 도착해서 빵빵대면 튑니다.」

「글쎄 왜 도망을 가느냐니까?」

답답했음인지 도사범의 억양이 약간 높아졌다.

「그걸 누가 압니껴.」

「알았어. 수련장에 있는 이동원이 좀 데리고 와.」

조사범이 동원이라는 유치부 아동을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 녀석은 늘 그렇듯이 코가 질질 흘러 입술 위에 머물러 있었고 흘러내리는 코를 훌지럭거리며 연신 빨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괜스레 히죽히죽 웃는 그런 녀석이었다. 조사범의 말대로 얼핏보면 어른의 얼굴처럼 걸망스러워보였다. 흡사, 어른의 얼굴을 축소시켜 놓은 듯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천진스러움이 있는 어린아이인지라 도사범은 더욱 애착이 가는 아이이기도 했다.

「동원아, 너 차탈때 도망간 애들 알지?」

도사범이 다정하게 물었다.

「네에.」

녀석은 히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친구들 왜 도망 갔는지 동원인 알지?」

「……몰라요. 히히히……」

그저 히죽거리며 훌지럭거릴뿐이었다.

「하이고, 점마가 우이 압니껴, 점마는 화장실도 헷갈리는 놈인데……」

기막히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조사범이 시부렁거렸다.

「십분전 아냐? 조사범은 유치부 운동시킬 준비나 해.」

조사범이 동원이를 데리고 수련장으로 나가고 난 뒤, 도사범은 머리를 갸우뚱 꺾으며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기우리고 있었다.

「거봐! 내말이 맞지. 저 친구 조사범 말야 인상도 험한데다 말씨도 거칠지 어디 하나 친근감이 가야 말이지. 유치부고 국교부고 학생부고 간에

태권도 교육론(Ⅲ)

태권도 교육론(Ⅰ), (Ⅱ)에서는 주로
태권도 교육에 관련된
원론적 문제들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더 다루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크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적 요청은
그러한 원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용적인 논의들에
우선이 있는 듯하다.
따라서 이번호는 태권도 지도 일선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지도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양진방/ 태권도지도자 연수원 교학과장

1. 技術觀의 定立이 중요하다.

태권도가 교육의 소재가 되거나 스포츠의 한종목이 되거나 간에 그 본질이 무술이라는 점은 변할 수 없다. 다만 시대와 사회의 요청과 행위자의 개인적 동기에 따라 그 무술성이 가감될 뿐이다. 무술이란 개념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대인 격투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인간의 운동기술」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무술의 정의는 「무술은 ~하는 기술이다.」라는 논리적 구조를 가지는데 반하여, 스포츠의 경우는 예를들면, 농구란 공을 바스켓속에 넣는 기술을 이용하여 즐겁게 노는 놀이이다, 또는 겨루는 경기이다 가 될것이다.

무술과 스포츠에 있어서 기술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는 무술의 경우에는 「무술은 ~기술이다」로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반면 스포츠의 예에서는 「스포츠는 기술을 이용하여~하는 것이다.」로 간접적인 관계가 된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스포츠에서는 기술이 간접적인 또는 수단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무술에서는 기술이 직접적인 곧 그자체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술에서는 기술이 절대적인 것이며 그외의 무술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기술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는 주장들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스포츠와 무술의 차이 혹은 스포츠와 무술에서 기술의 의미의 차이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적지않은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일단을 들어 무술에서 기술의 비중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이다.

하여튼 태권도가 그 기원과 본질을 무술로 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며 무술에서 기술은 중심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사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는 나름대로 하나의 관점을 가지기 마련인데 이 관점이 대체로 전체적이거나 또는 부분적일 때도 몇가지 측면에서 통일적인 성격을 띄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것을 관(觀)이라고 하는바 세계관, 인생관, 정치관 등에서 쉽게 그예를 볼 수 있다.

태권도의 기술관(技術觀)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태권도 또는 태권도지도자가 기술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또는 원론적주의가 무엇인가 라는 말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기술관이란 기술에 대하여 갖는 통일성 있는 태도나 주장, 견해등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술의 기술관에 대한 논의를 대변한다면,

• 실전지향적인 기술관, • 전통주의적 기술관, • 경기지향적 기술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전지향적 기술관이란 현대사회에서 무술의 기술이 실제 대인 격투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는 것들만 중요하다는 주장으로서 여기에서는 전통성이나 형식성 또는 경기등이 무시된다.

설령 그것이 중요하더라도 다만 실전적 효용이 있을 때만 의미있는 주장이다.

전통주의적 기술관이란 그 기술의 실용성 여부보다 전통적이라는데 즉, 역사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생각속에 오랜 역사를 가진 기술일수록 더 가치있는 기술이라는 상고주의(尙古主義)적 사고가 있다.

경기지향적 기술관이란 경기를 통하여 기술이 발전될 수 있으며 경기속에서 발전된 기술들이 가치있고 유용하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밖에 많은 기술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위에서 언급한 기술관들도 더 자세하게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우리 태권도의 일선도장 지도자들의 기술관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자세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일반적인 현상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도장지도자들의 경우는 실전지향적인 면이 가장 취약하며 경기지향적인면 역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오히려 전통지향적인면이 큰 듯하지만 그것 역시 크지는 않다. 사실상 일선 도장 지도자들의 기술관은 상당히 불투명하며 어떤점에서는 무기술관적인 측면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

이점은 태권도 상부지도층에서 기술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설령 있다고 해도 그 심도가 낮은데 그 원인이 있는지도 모른다.

일선 지도자들의 지도현장에서 드러나는 현상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들의 기술관은「품세지향적 지도경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태권도지도가 되었건 태권도 교육이 되었건간에 교육의 중심소재는 항상 기술이다.

기술에 대한 지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태권도에 대한 지도, 교육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열쇠이다.

한 중진 교육학자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의에서「한국의 교육이 너무 지식교육에 편중되어 인간교육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교육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수단이 지식인데 지식을 지식답게 가르치지 않으니 인간이 인간답게 되지 않는다.」는 논지를 편 바 있다.

참으로 우리 태권도에 큰 의미를 던져주는 말이다. 기술을 기술답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태권도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을 태권도가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기술을 기술답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 여기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바른 기술관이다.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태권도 지도자로서 자기역할을 하는데는 태권도에 대한 "바른 기술철학이 지도자에게 정립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2. 품세 중심 기술관의 한계와 문제점

위에서 일선 도장지도자들의 지도경향이「품세중심적」이라고 하였다. 이말은 현재 도장 태권도 지도는 품세지도를 가장 중요한 지도과정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품세만 지도하고 품세만으로서 평가(심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품세란 것은 그렇다면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 기원은? 목적, 용도는?

가치는? 본질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품세에 대한 통일성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 종류의 주장들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우리들은 품세라는 기술체계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에 대한 원론적인 고찰이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권도기술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품새=(태권도기술의 전부)란 사고방식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 속에는 품세가 모든 태권도 기술의 영원한 원전이며 모든 태권도 기술은 품세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술의 발전사에서 「품세 적인것」은 기술의 연습방법 또는 기술전수 방법의 하나로 고안 발전된 것으로 그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은 방법의 하나로서 존재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방법의 하나라는 말의 의미는 두가지 측면을 그속에 품고 있는 것인데, 첫째로는 한유파의 기술의 총체를 담고 있는 체계로서, 이체계를 통하여 한유파의 기술이 세대를 따라 전수되고 지된다는 점에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겨루기가 무술의 기술을 습득하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무술의 초기시대에서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겨루기의 방법이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안적 수단으로서 발전한 것이 품세라는 것이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품세의 의미는, 여러가지 연습방식들이 학습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단계 구조속에 있는 한 방식으로서 품세를 이해하는 것이다.

두번째 품세관에서는 품세와 겨루기간에 긴장관

---

* 품세를 최근 한 책임있는 기관에서 「품새」로 개정하였다고 태권도지를 통하여 공고한바 있다. 품세는 원래 한자어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品勢가 원어이다.

그뜻을 살펴보면 品이란 ⑥ 법품으로 일정한 법(法)이나 식(式)을 의미하는 것이며, ⑧ 가지런히 할 품으로 행동이나 사물의 상태를 일정하고 조리있게 함이나 해둠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두가지 뜻풀이가 「품세」라고 했을 때 품의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勢란 힘력(力)部에 위치하고 있는 바, 관련된 뜻으로는 ② 형세세로서 산세(山勢), 지세(地勢)등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환경이나 산수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쓰이며, ① 세력세로서 권세나 위세로도 쓰이지만 한편으로는 수세(水勢), 풍세, 화세처럼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세(氣勢)로서 표현되는 바가 곧 그것이다.

품세란 용어는 최근에 제정됐다는 사실외에 그제정의도와 배경은 자세히 모르지만, 추측컨데 무예도보통지의 각종기술동작의 명칭이 탐마세, 기호세 등으로 되어있다는 점과 「품」자와 「세」자의 위와 같은 뜻을 분석하여 이 양자(字)를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인것 같다.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품세적인 것」을 지향하는 타무술의 型, 武, 法등의 용어에 비하여 의미면에서나 근거면에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된다.

건강부회의 위험이 있지만 품이란 기술동작의 정적인 측면 즉 폼(Form)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고, 세란 기술동작의 동적인 측면 즉, 운동성을 멋지게 표현해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품세란 한 동작 한동작의 정적인 기술의 모양새와 동작과 동작이 흐르는, 움직이는 과정에서 분출되는 운동성의 조화 즉 품과 세의 조화가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품세를 우리말로 고친다는 의도하에 품새로 개정하고 그 근거로 「모양새」, 「앉음새」 등의 「새」자를 들고 있다. 자문에 응해주었다는 한글학자들까지를 포함하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모양새의 「새」는 세(勢)의 뜻이 아니라 품(品)의 뜻에 가깝다. 고치려면 차라리 「새세」로 고쳤어야 제대로(?)로 될 것이 아닌가.

한자도 제대로 모르고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品새」가 계속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널리 확산되어 지기전에 시급한 재검토를 통해 원상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자의 뜻풀이는 민중서관(刊) 한한대자전을 따랐음.)

계 또는 경쟁관계 즉 품세와 겨루기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냐에 대한 시비가 있다는 뜻이며, 세번째의 품세관에는 품세와 겨루기간에 상호 보조관계, 즉, 기술습득을 위한 방법으로서 품세는 품세 나름대로, 겨루기는 겨루기 나름대로 각각 고유한 역할과 장점을 지지고 있으며 어느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서 언급한 품세=(태권도 기술의 전부)란 생각은 품세에 대한 첫번째의 견해와 관계가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세가 한유파의 기술의 총체라는 입장은 무술이나 유파에 대한 엄밀한 연구와 합리적인 사고가 진행됨에 따라 그 비밀주의와 신비주의가 깨뜨려지게 되었고, 실제 한유파라는 것이 한종목으로 대형화되고 그 무술의 향유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됨으로써 몇개의 품세만으로 그 기술을 모두 포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태권도의 경우에 특히 심하게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제 더이상 「품세체계」만으로는 태권도 기술의 총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품세에 대한 두번째의 견해는 이 견해의 근본기초인 「겨루기 불가능론」이 현대 테크놀러지의 혜택에 의한 각종 보호장비의 개발로 수정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실전적 겨루기의 실현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태권도의 경우는 겨루기의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품세관의 실제적 의미가 약화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

품세에 대한 세번째의 주장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견해로서 위의 두가지 품세관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하나로서 나타났다. 이 품세관의 특징은 품세를 거쳐서 겨루기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올바른 기술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품세가 겨루기 능력의 양성에 방해되는 연습과정이라는 정면 공격적 견해가 대두함에 따라, 또한 실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세번째 품세관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품세가 이상과 같은 여러이유로 계속 공격을 받게되자 그 공격의 중심표적이 되고 있는 품세의 기술적 가치라는 영역을 포기해 버리고 다른 가치들을 발굴하여 품세의 의미를 새로이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한 움직임의 중심주장은 품세가 실용적인 기술습득을 위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적인면에 대한 역할과 운동미학적 측면에 입각한 가치등으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요소들이 무도의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품세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한국 태권도계에서 본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될 시점에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치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 태권도 특히 한국내의 도장 태권도 교육은 어쨌든 품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언급된 품세에 대한 개략적인 논의를 토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장 품세지도의 현상을 분석해 보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선지도 현장에서 잘 되고 있는점, 바람직하게 지도되고 있는 부분 등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을 논의하겠다. 오해 없길 바란다.

1. 품세를 태권도 기술지도의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품세란 그 본질이 태권도 기술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의 하나이다. 품세 그 자체가 곧 태권도 기술 일 수는 없다. 태권도의 기술이란 발과 주먹등의 맨몸에 있는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상

* 이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 「해방이후의 한국 태권도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의미」속에 다루어져 있다.

** 품세의 가치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 그리고 새로이 대두되는 견해들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졸고 「품세의 본질과 가치에 관한 분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의 공격을 막거나 피하면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인간의 연습된 기술적 행동이다.

현재 규정된 일정수의 품세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능력이 저절로 갖추어진다면 「품세=태권도 기술」의 등식이 맞는 논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태권도인도 그러하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품세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태권도 기술을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거나 품세를 배웠다고 태권도를 다 배웠다고 오해할 정도로 품세만이 강조되는 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태권도 기술을 올바르고도 완전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품세를 위시한 그밖의 여러가지 연습과정을 고루 거쳐야 한다. 그런데 품세만을 익히는것, 또는 품세 제일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태권도 기술지도를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품세는 태권도 지도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품세는 태권도 기술습득의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일선지도자들이 깊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곧 품세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 가닿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품세 그자체의 교육도 깊이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2. 품세만을 기술전달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앞, 뒷면의 관계를 가진 것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일선도장은 기본동작의 연습과정도 있으며 겨루기 연습과정도 엄연히 있다. 그러나 이때의 기본동작의 지도과정은 품세를 하는데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않는 그야말로 기본동작에 지나지 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겨루기 지도과정은 품세의 내용이나 원리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 품세를 어느과정까지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응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뿐 겨루기의 능력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품세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품세만으로 태권도 기술지도를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히 원리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자면, 태권도의 기술지도의 단계를 아래와 같이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개의 기본적인 공격과 방어의 기술을 분리시켜

(1) 하나씩 학습시킨 다음(기본지도단계)

(2) 그것들의 기초적인 연결을 지도하고

(3) 다음은 그것들이 실제적용되는 원리의 기초와 종합적인 몸의 씀씀이를 지도한 다음

(4) 상대와 마주서서 공격기술, 방어기술 또는 반격기술을 마주어서 익히게 한다.

(5) 점차 제한조건을 완화시켜가면서 자유로운 겨루기의 단계로 진행한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많은 요인과 사항들을 생략했지만 태권도 기술지도의 단계론의 골격은 「기본기 → 실제 적용기술」로, 「독습 → 상대연습」으로 진행돼 간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위의 대략적 단계론에서 본다면 품세의 기술적 위치는 (2), (3)단계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품세 본연의 역할이요,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기술학습의 연속적, 단계적 측면이 깊게 이해될 필요가 있고, 그속에서 품세지도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품세가 양(量)적으로만 소화된다.

앞으로 논의된것과 같이 태권도 기술학습의 평가기준 즉, 응심의 제일기준은 품세를 몇가지나 할 수 있느냐 이다. 품세는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로 이야기되는 경우는 많지만 품세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논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태권도 기술에서 품세학습은 양적으로만 중시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일선도장 지도자들의 이야기속에는 1품을 승단한 수련생의 경우 새로이 지도할품세가 한두가지 밖에 없으므로 수련생들이 흥

올바른 품세 지도법의 모색은
합리적인 태권도지도법의 정립이라는
주제 아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될 부분의
하나이다.

미와 의욕을 잃게 되어 퇴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품세「팔괘」시리즈(?)를 지도하고 있다는 지도자도 많다.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얼마나 품세를 양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하나의 품세만에서도 얼마든지 계속 지도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또 얼마든지 연습해야 될 내용이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게 또 그것을 흥미있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지도방법은 없단 말이다.

품세 자체가 품고있는 본질 중의 하나가 선인의 고심과 고련의 결과인 기술적정화를 응축시킨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그 진실성 여부를 차치하고 본의(本意)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를 표해서라도「양적 품세관」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4. 품세의 내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된다.

품세란 공방동작의 연결체이다. 이때 일정한 공방동작이란 어떤 의미를 가진 기술을 말한다.“상대의 어떤 공격을 어떤 자세에서 어떤 기술로 막고 어떻게 반격하는 것이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품세의 단락들이다.

이러한「기술적 의미단락」들이 몇 단락 모여서 하나의 품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품세지도의 현장은 이러한 기술적 의미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도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가 분석되지 않고 지도되는 품세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의를 가질 것인가?

품세를 지도하거나 행하는 근본목적이 불투명해진다.

그밖에 지적할 수 있는 품세지도의 문제점으로는 이론적 측면에 대한 강조와 품세를 통한 정신교육의 방법모색 등을 들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본격적인 품세론의 논의로 미루기로 한다.

3. 품세지도의 개선방향

올바른 품세 지도법의 모색은 합리적인 태권도지도법의 정립이라는 주제 아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될 부분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현 일선지도자들의 품세지도 현장에서 시급히 점검되어야 할 사항들만 간단한 제언의 형식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품세가 가진 태권도기술 전체내에서의 의미와 기술상의 위치를 일선지도자들이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권도 또는 더 넓게로는 무술일반 속에서「품세적인 것」이 갖는 의미는 복합적인 것이다. 먼저 기술발전사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는 연습의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세째로는 기술의 실전적 효용과의 관계를 접어두고 정신적 측면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데에서, 네째로는 전통적인 연습법의 하나로서 문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의 토대위에서 전체 태권도속에서 품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기술상의 의의, 비중은 무엇이다는 점을 배려한 품세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답습만 해도 좋은 시대는 지나갔다. 지도자 개개인의 확고한 기술관과 지도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품세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활용방향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품세는 태권도의 최종 목적도 아니고 태권도 기술의 전부도 아니다. 품세는 하나의 수단이다. 어떤 점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기 위한 수단이 품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품세를 통해서 어떤 가치들이 전달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해둔다음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품세는 지도의 소재이며 과정이다. 그 목표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품세의 지도목표를 체련적 가치의 달성, 기술적 가치의 달성, 정신적 가치의 달성, 인간형성적 가치의 달성이라는 네분야로 대별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체련적 가치(體鍊的 價値)란 품세를 지도하고 수련케 함으로 신체의 내외적 단련의 효과를 얻고자 함을 말한다. 품세는 그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마치 축구나 야구 또는 육상, 체조를 통해서 신체 각부위가 발달하고 체력이 증강되는 것처럼 품세 수련도 신체의 성장 발달과 체력의 증강이 결과된다.

그러나 품세수련이 누구에게나 체력발달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품세를 통해서는 체력증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의 정도는 그리 큰 것이 아닌 것이다. 운동과 체력증강의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과부하(過負荷)인데, 품세의 수련은 특수한 방법이 아니라면 청소년 이상의 성인에게는 근력면에서나 심폐기능면에서 효율적인 과부하가 될만큼 큰 운동량을 가진 운동은 아니다. 그러나 유아 또는 저연령층의 아동들에게는 충분한 운동량이 될 것이며, 장년이상의 연령층에게도 근력과 심폐기능면의 균형된 운동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품세 수련의 생리적 운동량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엄밀하게 알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개략적인 논의는 운동생리학적 측면에서도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기술적 가치를 들 수 있는데, 기초적인 기술적 목표로부터 상위의 기술적 목표를 순서로 서술하기로 한다.

기술의 지도단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품세는 기초, 기본동작의 지도 다음부터 이루어지는데 이때 품세지도의 첫걸음에서 전달되어야 할 기술적 사항은 첫째로 자세와 기술과의 연결관계라고 할 수 있다.

품세에서는 「서기」 또는 「자세」라고 불리워지 「전형적인 자세」*로서 서거나 움직인다.

이 전형적인 자세들은 제대로 취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기술과 초보자에게는 상당한 량의 운동부하를 요구한다.

품세지도의 첫단계는 이와같은 전형적 자세들을 제대로 취한 상태에서 방어나 공격의 일정한 기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자세에서 어떤 기술을 행하는 것이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지도방법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품세지도가 목표하는 기술적 가치는 중심의 이동과 기술수행의 결합관계이다. 품세는 일정한 공간을 움직이면서 행해진다.

공간을 통한 이동이란 곧 신체중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품세의 지도는 여기에서 중심의 이동과 이동의 수단이 되는 「서기」와 「걸음」 그리고 이에 결합되는 일정한 공·방기술의 수행에 놓인 제반원리와 그 방법에 촛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신체중의 안정성과 운동성과의 기술적 관계, 전진과 후진의 기술적 의미, 방향과 전환의 방법과 주의해야할 기술적 사항, 거리의 의미, 공격기술과 반격기술에서의 중심의 차이 등 많은 원리적 요소들이 지도되어야 할 것이고 이들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 큰 것들임에 틀림없다.

세번째로 주어지는 촛점은 기술과 기술의 연결이다.

기본동작의 지도단계에서 기술 각각이 한단위로서 분리되어 지도되었는데 반하여 품세는 일차적으

---

* 전형적인 자세(典型的 姿勢) : 앞굽이, 뒷굽이 또는 주춤서기, 범서기 등을 총칭하는 뜻으로 쓴 이말은 이들 자세나 서기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거나 실제적인 기술사용의 경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들 자세들은 중심의 안정이나 힘의 전달 또는 운동을 일으키기 쉬움등 일정한 목적에 각각의 특성이 집중되어 표현된 것들이라는 주장이 가장 합리적인 듯하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한 전형적인 자세라는 의미에서 전형적인 자세라고 하였다. 기본자세 또는 기본서기 라는 본래의 용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겨루기 특히 경기화의 영향아래 발전하는 겨루기 방식위주의 연습은 「일정한 기술」은 세련되고 그 수준이 향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술의 폭이 좁혀지기 쉽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겨루기나 경기가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의 기술들을 품세속에 구성시켜 품세를 통하여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로 기술의 연결이 나타난다. 품세에서는 방어기술과 공격기술의 연결, 발기술과 손기술의 연결 등이 있다.

이들을 통하여 기술의 연결에 대한 원리와 실제 연결능력이 지도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사항들은 초보적 단계의 품세지도의 기술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네번째의 기술적 목표는 기초적인 공방의 원리와 실제기술의 전달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품세의 기술적 의미 단락을 통해서 상대의 어떤 공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고 어떤 기술로 반격하는지를 지도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고급 공방기술과 특수기술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품세의 수련에 필요한 기초가 다져지고 본격적인 수련의 단계에 이르면 품세에 담긴 고도의 공방기술이 지도되고 그러한 고급기술들이 기초기술들과는 원리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가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태권도에 있어서는 겨루기 특히 경기화의 영향아래 발전하는 겨루기 방식위주의 연습은 「일정한 기술」은 세련되고 그 수준이 향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기술의 폭이 좁혀지기 쉽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겨루기나 경기가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의 기술들을 품세속에 구성시켜 품세를 통하여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품세지도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기술적 가치로서 기술의 질적측면을 들 수 있다. 기술의 흐름, 날카로움, 호흡, 온몸의 움직임의 통합과 집중 등과 같은 요소로서 이단계는 지도를 통해서 보다는 주로 스스로의 체득을 통해서 달성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겨루기가 완전한 실전이 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품세의 수련이 오히려 겨루기보다 더욱 실전에 가까운 진지하고 심각한 정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얻어질 수 있는 기술과 정신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심리적 가치를 살펴보자.

품세수련이 요구하는 심리적 요인은 먼저 집중을 들 수 있다. 주위의 집중과 함께 나타나는 또다른 하나의 특성은 안정이다.

정신적인 집중과 안정은 품세의 수련이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심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격렬한 움직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격렬한 공방동작의 움직임속에서 자신의 정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것, 그리고 그 정신을 일정한 연무의 진행에 집중시킬 수 있고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시킬 줄 아는 능력을 품세수련이 길러준다.

인간의 운동이 이러한 품세수련 만큼 정신적인 측면에 직접적이고도 긴밀하게 연결된 유형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체육학자들 사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네번째로 들수 있는 품세지도의 목표는 인간형성의 가치실현이다.

품세가 갖는 체련적, 기술적, 정신적 가치들이 인간형성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품세의 수련이 수련생의 정서와 정신 그리고 품성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형성 발전이 명시되고 또 지도되어야 한다.

먼저 품세속에 나타나는 전형적 자세 들이 수련생들의 정신내외적 태도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한 자아상(自我像)의 형성과 기타 여러가지 품세수련이 주는 인지적 요소들의 영향들이 보다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수련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도자에게 비춰지는 인격상과 품세관 그리고 그 기술의 품격이 긍정적이고 수준 높은 것이어야 할 것이 제일의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3. 양적측면보다 질적측면이 강조되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태권도의 품세는 전체적으로 병렬적 배치구조를 가진것이 아니라 직렬적 배치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초에서 유급, 유단에 이르기까지 전체 품세가 단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품세는 구체적인 기술상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의미를 가져야만 한다. 만약 어떤 품세가 2단의 실력자가 수련해야 하는 것으로 위치 지워져 있다면 이는 2단에게 요구되는 기술의 수준이 그 품세에 담겨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렬적 품세배치는 일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사실상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차치하고 현일선지도 현장에서 품세의 질적측면에 대한 지도의 강조는 보다 엄밀한 품세의 기본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점에 주목하기로 하자.

동작의 순서만 암기한 것이 품세학습의 끝이 아나라 시작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의 품세가 최소한으로 분석되다면, 그 품세가 갖는 기술상의 위치, 담겨진 중심기술의 내용 및 의미설명, 각동작의 기술분석, 중심동작의 기술연습상의 촛점 등의 설명이 선행되고 다음으로 품세의 전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게 해야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일정량의 반복수련을 거친다음 그속에서 나타난 중심기술을 이용한 응용겨루기를 통해 기술의 이해와 심화, 다시 전체 품세의 재음미적 수련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품세의 내용분석과 함께 질적측면의 강조에서 중요한 것은 품세의 깊이 전달이다.

즉 「품세를 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 바로 지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할 수 있는 품세의 가짓수가 많은 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급자 품세와 유단자 품세의 기술적 차이가 무엇인가?

어려운 기술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차이인가?

그러면 어려운 동작이란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배우기 어렵다는 말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기 어렵다는 말인가?

품세의 수준의 고하가 있다면, 그 진정한 차이는 기술의 연무에서 날카로움, 속도, 정확함, 연결부분의 흐름의 묘가 그리고 온몸의 힘의 집중된 발산의 능숙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된 공방상황이 그 타이밍, 방어의 기술과 반격기술의 함축된 원리들이 보다 고차적이고 고도의 것이며 동시에 세련된 단순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연무과정에서 밖으로는 무게와 날카로움 그리고 품위 전체적으로는 기술적 세련미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동작을 행하는 것, 그것은 무술의 품세가 아니고 무용에 지나지 않는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태권도 선수들에대한 스포츠 맛사지의 필요성

김 석 련
대한태권도협회 편집분과위원
대성중·고등학교교사

Ⅰ. 개요

1) 개요

스포츠 맛사지(massage)는 인간의 기원과 함께 생활의 경험과 자연 발생적인 습관으로 행해져온 경험 요법에 의한 수기적 치료 행위로 발달되어 왔다. 근세에 이르러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체 기관의 장애 치료를 위한 치료적 맛사지로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왔으며 현대에 접어들어 동양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운동 선수들에게까지 실제 적용하고 있으며 서양의 미주지역과 유럽 전지역에 걸쳐 거의 모든 국가가 맛사지를 운동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스포츠 선진국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나라는 '88올림픽 경기를 앞둔 현시점에서 스포츠맛사지에 관한 학술적 자료는 물론 전문 연구 지도기관도 없는 실정이며 많은 스포츠 지도자가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어 실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행하여지고 있는 수기 요법의 연구와 외국의 문헌을 토대로 하여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 경기에 참가한 미국, 프랑스, 네델란드, 일본 등의 외국 선수팀 전문맛사지사를 만나 여러가지 자료와 기술 교류를 통해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국내 태권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들의 보호 육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포츠 맛사지의 필요성을 논술하고자 한다.

2) 맛사지의 역사

맛사지에 대한 초기 문헌들을 보면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고대 의학 기록으로는 치료법의 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문지르거나 기름을 바르는 형태로 원시시대부터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3000년 전 이미 중국에서 시작하여 중국의 자연 치료법으로 행해져 왔다고 되어 있으며 서양의학의 창시자 Hippocrates(B.C 460~380)는 관절이 탈구된 어깨의 치료는 환부를 부드럽게 천천히 문질러야 하며 마찰은 관절을 결합시킬 수 있고 경직된 관절을 풀 수도 있다고 맛사지 요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1886년 외국의학 사전을 보면 "맛사지는 그리이스에서 출발하였고 근육을 주무르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맛사지의 역사는 문헌상으로 분명하지 않으나 옛날부터 여러 국가의 자연요법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3) 스포츠 맛사지의 의의와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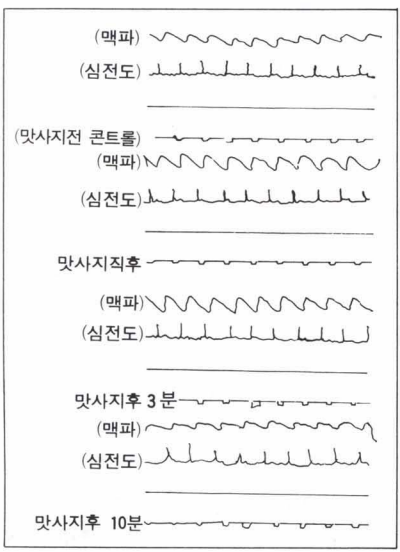
스포츠 맛사지란 피부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마찰, 흔듬, 두들김, 누름, 쓰다듬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인체의 신경과 근육 및 호흡기의 조직

에 치료 효과를 가져오며 혈액 및 임파의 국소적 전신적 순환을 촉진시키며 노폐물을 제거하여 신체 각 기관의 신진대사를 원활히하여 영양과 산소 공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근육이나 신경계의 모든 피로를 감소 또는 회복시키며 근육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아울러 인체 각부위의 상해 예방은 물론 치료적 효과와 함께 경기력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의학자 Avicenna(980~1937)는 "맛사지의 목적은 근육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운동으로 풀 수 없는 쇠퇴한 형태의 물질들을 해소하는데 있으며 그것은 무기력한 물질들을 제거함으로써 피로를 없앨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Ⅱ. 본론

맛사지는 적절한 압력과 신장을 율동적으로 행함으로써 인체의 조직에 기계적인 자극을 받아 조직을 부드럽게 압착시켜 주며 혈관내의 내강과 임파



일본동경교대체육부 스포츠맛사지 연구실의 심전도 분석도

관의 공간의 변화에 의해 모세혈관과 정맥과 동맥 그리고 임파액 순환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맛사지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면 1967년 Severini와 Venerand에 의해 「심장 혈관 계통에 미치는 맛사지의 효과」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964년에 Bell은 「맛사지에 따른 혈량의 변화」라는 논문을 발표하였고 1967년에는 Barr와 Taslitz는 「등 부위에 맛사지를 했을 때 자율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맛사지의 효과에 관한 많은 논문이 생리학적, 화학적, 물리적, 심리학적 등의 여러 분야로 발표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 문헌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알아 볼 수 있는 것이다.

1) 혈액 순환에 미치는 효과

Mitchell은 맛사지를 하고 난 후에는 적혈구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Pemberton은 맛사지는 "혈액소와 순환 혈액의 적혈구수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혈액의 산소 수용 능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맛사지는 「피부와 근육의 혈액 순환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심장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전신의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며 각 근육의 피로를 줄이거나 회복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의학자 Mennell과 Rosenthal 그리고 Brunton의 실험 연구에 의해서 증명이 된 것이다.

2) 림프액 순환에 미치는 효과

어떤 물질을 인체가 흡수해서 주사된 물질을 따라가는 진로중 가장 먼저 통과하는 곳이 림프선인 것이다.

Mcmaster는 정상인의 다리의 피내에 염료를 주사한 다음 맛사지를 행하였더니 림프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혀냈고 Von Mesengeil은 토끼의 관절부위에 먹물을 여러번 주사하고 한 쪽 관절만 맛사지를 한 결과 맛사지 하지 않은 쪽의 다리는 착색 물질이 심장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극히 적었으며 맛사지를 받은 쪽의 다리는 근육간의 결합 조직과 림프선의 관절이 위치하는 부위에서 먹물을 다

량 흡수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몸 속의 어떤 기관이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림프액의 영향을 받게하기 위해서는 맛사지를 시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3) 신경계에 미치는 효과

맛사지는 신경과 근육의 흥분 작용을 하여 신체의 기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또한 진정 작용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신체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흥분 작용은 경기 전의 근육의 긴장도가 불충분할 때 근육 감각이 둔할 때에 맛사지를 행하면 그 효과는 아주 좋아지고 진정 작용은 경기 중이나 경기 후에 주로 많이 움직인 근육의 급성 피로에 의한 경련과 통증을 줄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4) 근육 조직에 미치는 효과

Kelloyg라는 학자는 맛사지를 해줌으로써 근육의 크기를 실질적으로 크게 해주며 더 단단해지고 탄력성이 붙는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Despard의 말에 따르면 "맛사지는 근육에 영양을 잘 보급해 주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그 결과 그 부위에 발육이 호전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여러 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로해진 근육은 동일 기간의 휴식보다도 충분한 맛사지를 해 줌으로써 무척 빠르게 피로를 회복할 수 있으며 특히 과다한 트레이닝이나 경기로 인한 근육의 급성 피로를 줄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맛사지는 학술적으로 볼 때 근육의 강도와 지구력을 증가시키며 피로 회복을 증진시킴으로 해서 운동선수들에게는 보다 많은 운동과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맛사지는 근육의 영양상태나 굴곡성 및 활동력을 최대의 상태로 유지시켜 근육이 외상 또는 질병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고 근육의 기능을 최대로 완성시켜 경기 중 최대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증명된 것이다.

Ⅲ. 결론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겨레의 고유 무술인 태권도가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 선수들은 신체적인 조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서방세계의 선수들에게 계속 우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은 물론 체력보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태권도 경기에 절대 필요한 유연성과 민첩성 및 순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트레이닝 원칙인 점진적인 부하와 다양성의 원칙에 의하여 경기 동작에 접근된 특수성의 원리에 따른 트레이닝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태권도 경기에 스포츠 맛사지의 활용은 앞에서 말한 효과로 인해 운동 기능이 제 요소를 끌어내기 위한 감각과 운동력과의 종합적인 피드백 조정을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으며 과다한 몸싸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상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 육성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한편 태권도선수들에 대한 맛사지활용방안과 같은 맥락에서 앞서 발표된 62호 태권도지의 수지침 활용방안 또한 적극 권장된다면 태권도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1. Barr.J.S. and Taslitz, N:Influence of back massage on autonomic functions, phys. ther so :1679－1691.1970
2. Mennell.J.B:Physical Treatment, 5th ed. philadelphia Blakiston Co. 1945
3. Mitchell.J.K:Massage and Exercise in system of physiologic Therapeutics. Philadelphia. Blakiston' s sons & Co. 1904. pp. 20～21
4. Kellogy.J.H.The Art of Massage 12th ed., revised.Battle creek.Mich., Modern medical publishing Co:1919
5. Severini, v. and Venerando.A:The physilogical effects of massage on the cardiova scular system Europa Medicophys. 3:165～183, 1967.
6. Traduzione di Giovanna Sacchi A Cura di red / studio redazionale, como Athletic massage.1984

기본동작 몸통지르기에서 효과적인 손의 동작

김 광성
대한유도대학교수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제한점
3) 연구방법
Ⅱ. 측정결과 및 고찰
1) 생리학적 고찰
2) 역학적 원리
3) 측정결과
Ⅲ. 결 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기 태권도가 '88 서울 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남녀를 불문하고 각 분야별로 태권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태권도에 있어서 그의 기본이 되는 기본동작들은 어느 정도는 통일되고 정예화되었지만 기본동작을 배우는 입장에서나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보다 정확한 기본동작의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중 많은 기본동작의 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이론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태권도 분야에서도 생체역학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기초적인 면에서부터 고도의 기술동작에까지 연구

해 나가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는 기본동작 중에서도 효과적인 동작을 이루는 방법이 사실상 혼돈되고 있다. 예를들면 바로지르기의 경우 반대의 발이 나가는데도 바로지르기라 하는 의미를 이해 못하고 있는 유단자도 더러 볼 수 있다.

ENERGY 효율의 원리, 목표촛점의 원리, 전체집결, 시종응용 등의 motion, force, momentum, center of gravity 등의 운동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하여도 그의 세밀한 과학적 근거를 알고 싶어할 것이다. 앞으로는 태권도의 과학화를 위하여 통계자료에 의한 과학적 지도법을 수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초가 정립되고 과학화가 됨에 따라 더 좋은 기술과 경기력 향상이 된다고 본다.

현재 수련을 시키고 있는 일반사회체육 현장에서도 기본동작 하나하나에서부터 동작의 통일을 해나감으로써 수련생에게 effect도 주며 국기 태권도가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기본적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들어, 태권도에 관심을 주고 이해를 시키는 문제로써 의학계에서 발표된 것이 있다. 이에 의하면 태권도의 수련으로 인한 어린이의 MUSCLE Strenght, MUSCLE Endurance, Stat Power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9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연구한 결과가 보고된 것이 있다.

효율적인 지도방법과 과학적 연구,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남달리 노력하며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랜세월 동안 태권도가 전수해 내려오면서 태권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품새의 정확한 동작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며 명칭조차 용어가 달리하여 왔었다. 근대 스포츠로서는 많은 발전을 하여 왔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도 지도자들의 어려움중의 하나가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동작 분석과 통일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기본동작의 통일성과 과학적 원리에 알맞는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에서 주춤서기의 지르기 동작을 허리에서의 공격과 옆구리에서의 공격을 구분하여 실험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공격법이 무엇이며 이와 함께 기본동작의 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간단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① 본 연구는 인천시내 용현 국민학교 수련생 5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2명과 인천 문성여자상업고등학교 태권도 여자 선수 10명과 대한유도대학 태권도 시범단 중 10명을 임의로 추출하여 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② 일반 Power test 케이지로 동양전자주식회사 제품으로 사용하였다.

③ 본 연구는 예비 실험으로 National 제품인 8㎜ 촬영기로 간단한 time을 측정하여 보았으나 편차가 거의 나지 않았음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허리에 놓여진 위치만을 실험하고자 간단한 방법으로 하였다.

④ 기초동작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몸통지르기의 손의 위치에 대하여 결론을 얻고자 주춤서기 자세에서만 오른 주먹 지르기만을 하였다. 단, 다른 동작은 2차 실험에서 앞굽이서기 자세에서 몸통 바로지르기, 몸통 반대지르기, 반대동작의 원리에서 보다 반대의 손을 어느 속도로 당길 때 주먹 Power의 차이를 차례로 실험을 하는 것은 다음 실험으로 계획하였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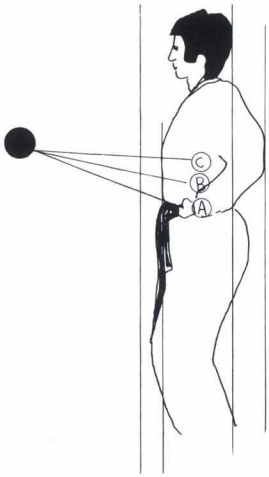
전 대상자를 체중, 신장, 견관절과 장골간의 거리, 상환위의 길이 및 허리에서 공격측정, 옆구리에서 공격측정, 겨드랑이에서 공격측정을 하였으며 Power의 측정 값을 다음 산출 방법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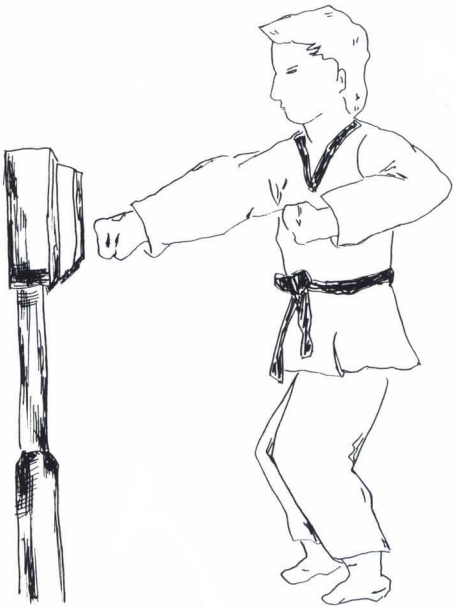
표준 편차 산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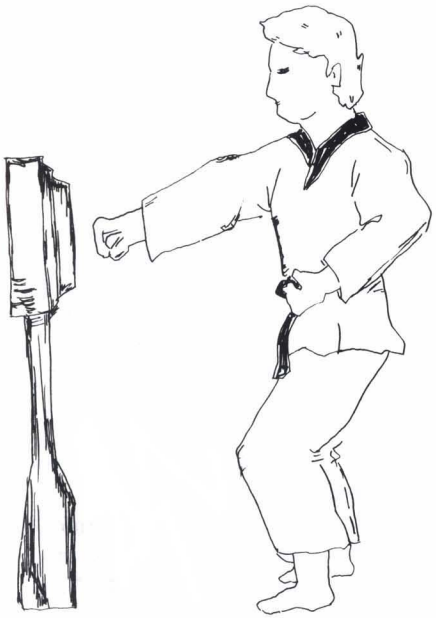
$$SD=\frac{\sqrt{\sum X^2}}{N}\ (X=X-M)\ (\text{편차})\ N=\text{사례수}.\ \Sigma=\text{총합}$$

1) 측정 실험기구는 전자제품으로 동양전자주식회사 제품으로 하였다.
(MODEL명 : 84-67호 형식, 전압 110V, 정격 주파수 60HZ, 제작번호 DY-85, 1987.)

2) 주춤서기에서 오른손 몸통지르기를 측정하여 손의 위치에 따라 강도를 표시 하였다.







Ⅱ. 측정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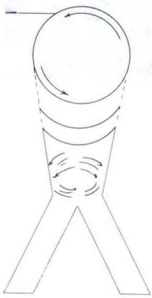
1) 생리학적 고찰

세번째 방법인 (C) 방법으로 공격할 경우 강한 자극으로 인한 신경을 준다면 근육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워지지 못하므로 Biceps muscle(상완 이두근)이 수축될 때 triceps(삼두완근)가 reflex(반사)가 일어난다. 양쪽의 근육이 수축되어 긴장이 일어나 근육이 뻗뻗해져서 운동하기 부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것은 A) antagonistic Musle(길항성도)이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신경자극이 상반되는 근육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강한 공격의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A), B) 방법은 자연스럽고 공격하기에 편한 자세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기본동작에서도 옆구리 공격이 강한 효과적인 공격을 가진다.

2) 역학적인 원리



① 원심력(certifugal force)의

$$F=m\frac{v^2}{r}$$ 공식에 의한 힘을 이용하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② 뉴톤2법칙 F=ma가속도 (Vf−Vi) / t

$$F=\frac{m(vf-vi)}{t}$$

$$F=\frac{mvf-mvi}{t}$$ ∴ F=mvf−mvi 느린 주먹 공격 보다 질량은 강하고 빠른 직선 속도의 공격으로 Leanier Kinemetics 의 운동으로 하여야 한다

∴ ①,②의 방법을 허리 틀어주는 힘(원심력)+주먹 지르기의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3)측정결과

전체측정표

번호	성 명	體重	現級	身長	肩→장골거리	상.전 위각도	상완위 길이	전완위 길이	측정 A)	측정 B)	측정 C)
1	선종일	40kg	(초보)국5	133cm	37	90°	26	24.5	30	31	29
2	황동택	32〃	국민5	135〃	38	88°	24.5	26.2	21	22	18
3	심범식	45〃	국6	153〃	34	90°	28	29	34	34	32
4	김학민	50〃	국6	153〃	33	89°	27	28	44	45	42
5	진해원	32〃	국6	137〃	30	88°	25	28	17	22	19
6	조재형	38〃	中2	151〃	35	90°	28	29	35	38	35
7	김상민	31〃	中2	148〃	30	90°	26	27.5	26	41	33
8	이충훈	49〃	中1	150〃	31	88°	27.5	29.5	33	37	28
9	김성민	54〃	高3	168〃	41	90°	29.5	30.5	48	57	49
10	송상돈	72〃	高3	172〃	42	95°	31.5	32.5	67	67	61
11	김진선	44〃	女高	150〃	38	89°	31	28	23	22	22
12	홍 자	45〃	〃	160〃	39	90°	32	31	26	27	25
13	이남숙	44〃	〃	154〃	35	85°	30	31	30	28	27
14	박영신	47〃	〃	162〃	39	82°	32	32	27	29	36
15	정은경	54〃	〃	159〃	36	92°	32	30	33	49	33
16	윤희정	56〃	〃	166〃	37	90°	32	33	45	56	42
17	양인덕	66〃	〃	169〃	43	88°	32	32	49	55	56
18	이성미	70〃	〃	167〃	37	92°	31	31	29	32	23
19	김경애	49〃	女中	163〃	36	88°	32	29	23	27	26
20	이선희	60〃	〃	170	37	83°	34	32	25	21	29
21	왕규덕	63〃	段	171	43	92°	31.5 (64)	32.5	38	41	34
22	김홍기	70〃		173	43	85°	33 (67)	34	68	74	64
23	박형근	63〃		175	41	92°	33.5 (69)	35.5	39	42	33
24	안용희	64〃		174	38	90°	33 (67)	34	30	42	27
25	김근섭	58〃		174	40	93°	32 (65)	33	53	56	48
26	김시형	65〃	上段	175	40	89°	31 (63)	32	45	56	40
27	조규덕	90〃		179	49	90°	34 (70)	36	51	62	47
28	박지순	68〃		178	40	93°	34 (69)	35	52	58	47
29	김응섭	73〃		178	42	97°	32.5 (66)	33.5	49	50	44
30	박승현	72〃		184	45	95°	36 (73)	37	51	56	45

Ⅲ. 결론

1) 체중과 주먹지르기의 측정값은 상관관계가 있다.
2) 견관절과 장골과의 사이는 2/3(上)의 위치에서 지르기가 효과적이었다.
3) 상완위, 전완위의 길이와는 측정값과 상관이 없었다.
4)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B)방법 (A)방법 (C)방법의 순위였다.

그러므로 옆구리에서 지르기, 허리에서 지르기, 겨드랑이에서 지르기의 측정값은 옆구리에서의 지르기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참고문헌

1) 고홍환(체육 측정평가):
연세대학 출판부 1982
2) 김대식 공저:
(태권도 교본)나남출판사 1983
3) 김대식, 김광성 공저, 태권도 지도이론
(나남) 1987
4) 황인승:학술 발표
태권도 역학 1986
5) 태권도 교육원:
생체역학 329
6) 계간 태권도 52호:
(대한태권도협회 발행)
7) HAY 과학적 역학 원리
(同和)
8) 이긍세, 코우치의 과학적 원리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정신교육에 미치는 효과

이 규 형
연세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전공
석사학위논문(1988. 2)

Ⅰ. 서 론

태권도는 무도 스포츠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뿐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세계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자수는 해외에 이천이백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국내의 경우 총 이십만명 이상의 도장수련자가 현재수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대한태권도협회 1986년도 8월조사)

특히 국내의 국민학교 아동 수련자의 경우, 도장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치부를 제외하고서는 48%~51%에 달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태권도가 아동 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예증하기도 한다.

체육의 정신교육적 가치 증대와 함께 어느 체육활동 보다도 전인적(全人的) 인간형성(人間形成)에 부합하는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와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체계적인 이론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권도 수련은 어린이 정신교육면의 어떠한 구체적 내용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태권도가 어린이 정신교육면 즉 지적·정서적·사회적인면 및 생활태도면의 구체적 내용에 얼마나 큰 효과를 올리는 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태권도의 정신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확립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질문서법(質問書法: questionnaire)을 채택하였다. 설문지 형식은 지적인 면 4항목, 정서면 8항목, 사회면 12항목 그리고 생활태도면 10항목 등 총34개 문항과 5단계 복수 평정척도형식(double rating scale)의 답항으로 구성한 후 논제인 태권도 정신교육의 대상자로서 어린이 수련자와 그들의 학부모 및 담임 등 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태권도 교육의 견지에서 '정신교육'이란 용어는 신체적 발달이나 기술 수련 이외의 영역, 즉 신체

및 기술분야와 분리해서 '지능을 포함한 올바른 성격과 태도의 육성' 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정신교육은 지적인 면을 포함하여 정서면과 사회면을 뜻하며 생활태도면을 추가하여 그 개념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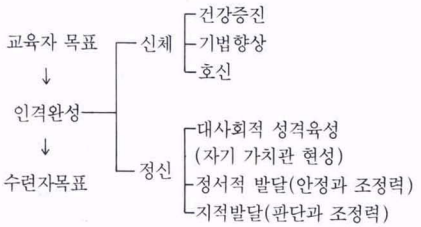
태권도는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체육의 범주에 포괄되기도 하며 특히 행위자의 목적, 목표 등의 이념면에서 체육은 태권도와 거의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전인교육의 목적에 부응하여 체육학자들이 제시한 체육의 목표들은 첫째, 신체적 발달, 둘째, 운동과 동작의 발달, 세째, 정신적(인지적) 발달, 네째, 사회적 발달 등이다. 그러나 체육이 신체활동을 통한 전인적 인간을 형성한다는 교육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목표인 것이다.

태권도 개념의 특성은 '신체운동"맨손투기"교육성"한국적 고유성'등 네가지로 파악되는데 이중 교육성은 이 논문의 주제인 정신교육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를 포함한 무술들이 체육의 영역내에 포괄되기도 한다.

태권도에서의 '도(道)'란 말이 나타내듯이, 자기방어 투기의 폭력성을 초월하고,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인간성의 완성에 두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도는 실행자가 세가지 완전성, 즉 지적(知的), 신체적(身體的), 정신적(精神的) 완전성을 추구하게 된다. 태권도의 이같은 교육성의 내포는 곧바로 '태권도 교육'이란 말로 함축되기도 한다.

태권도 수련 목적 및 목표



Ⅲ.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측정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M국민학교에서 태권도 수련을 하고 있는 어린이 수련자 63명과 그들의 학부모 62명 및 30명의 담임교사를 표집하였다.

측정도구는 수련자, 학부모 및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내용은 어린이가 지향해야할 교육적 목표와 실천덕목으로 구성하여 지적인면 4문항, 정신 8문항, 사회면 12문항, 생활태도면 10문항 등 34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질문형식은 태권도 수련에 비해 수련후 응답자에게 구체적 정신교육 내용들이 어느 정도 향상 또는 저하되었는가를 질문하여 각 문항별로 수련자, 학부모, 담임교사의 득점을 합산하여 백분율로 합산하여 효과지수를 산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효과지수는 정신교육 항목에 대한 태권도 수련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지수 수치가 클수록 높은 효과를 올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체문항을 효과지수 순위대로 배열하면 〔표1〕과 같다.

총 34개 문항 중 애국심, 용기, 소속감 및 시간관념이 각각 1,2,3위 최고 향상도를 기록하고 있고 가장 낮은 향상도를 보인 항목은 계획성, 침착성, 성적 등이다.

상위분류별로 효과지수를 합산한 순위는 〔표2〕 같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상위분류별 효과지수는 +1.17을 기록한 사회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생활태도면 +1.15, 정서면 +1.10, 지적인면 +0.9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면에서 태권도 수련효과는 '조금 향상'과 '아주향상'적도 사이의 1.17구간에 위치해 어린이 정신교육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 태도면과 정서면에서도 그 효과지수가 각각 +1.15, +1.10을 기록하여 사회면에 조금 못미치는, 같은 구간내에서 향상도를 보였다. 지적인 면은 이상의 다른 상

●전체문항별 순위〔표 1〕

순 위	문 항	효과지수 I	상위분류
1	애 국 심	+1.49	C
2	용 기	+1.38	B
3	소 속 감	+1.32	C
	시 간 관 념	+1.32	D
5	인 사 성	+1.31	D
6	인 내 력	+1.30	B
7	자 신 감	+1.27	B
	협 동 심	+1.27	C
9	규칙 및 질서의식	+1.25	D
	친 구 관 계	+1.25	D
11	책 임 감	+1.24	C
12	명 랑 성	+1.23	B
13	존 경 심	+1.20	D
14	신 의	+1.16	C
15	통 솔 력	+1.15	C
	자 립 성	+1.15	C
	용 모 단 정	+1.15	D
18	정 의 감	+1.14	C
19	집 중 력	+1.10	B
20	공 정 심	+1.09	C
	신 체 청 결	+1.09	D
22	이 해 심	+1.06	C
	성 실 성	+1.06	C
24	발 표 력	+1.05	A
25	자 제 력	+1.04	B
26	식 사 습 관	+1.02	D
27	지 적 이 해 력	+0.97	A
	고 운 말 씨	+0.97	D
	정 리 성	+0.97	D
30	타 인 권 리 존 중	+0.92	C
31	수 업 태 도	+0.87	A
32	성 적	+0.81	A
33	침 착 성	+0.76	B
34	계 획 성	+0.72	B

*A : 지적인 면, B : 정서면, C : 사회면, D :생활태도면

●상위분류별 효과지수 순위〔표 2〕

기호	척도 / 상위분류	아주 저하	조금 저하	그대로	조금 향상	아주 향상	계	효과지수 I
A	지적인면	0	16	127	363	114	620 (명)	+0.92
	(4문항)	0.0	2.6	20.5	58.5	18.4	100.0(%)	
B	정 서 면	3	16	209	630	382	1,240(명)	+1.10
	(8문항)	0.2	1.3	16.9	50.8	30.8	100.0(%)	
C	사 회 면	1	13	269	952	625	1,860(명)	+1.17
	(12문항)	0.1	0.7	14.5	51.2	33.6	100.0(%)	
D	생활태도면	5	24	263	686	572	1,550(명)	+1.15
	(10문항)	0.3	1.5	17.0	44.3	36.9	100.0(%)	

위분류 항목에 비하면 낮은 향상도를 보이지만 '조금향상' 척도에 거의 육박함으로써 그 향상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태권도 실기 수련에 병행하여 실시되는 자율학습, 이론교육 및 집단토의 발표 등의 지적인면과 관련된 활동으로 부터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V. 결 론

응답자 155(어린이 수련자 63명, 학부모 62명, 담임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정신교육면에서 태권도 수련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해서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어린이에게 일정기간의 태권도 수련을 통해, 정신교육의 34개 모든 항목은 효과지수 +0.72~+1.49에 이르는 전반적인 향상도를 기록하였다. 효과지수 +0.72는 34개 항의 최저 향상도로써 답항의 '조금향상' 척도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인 +1.49 는 '조금 향상'과 '아주 향상' 구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괄목할 만한 향상을 나타내었다.

2) 특히 애국심 · 용기 · 소속감 · 시간관념 · 인사성등의 항목은 아주 높은 향상도를 나타내에 이들 항목에 대한 태권도 수련 효과는 지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3) 34개 항목을 지적인면, 정서면, 사회면 그리고 생활태도면으로 분류 합산한 결과는 사회면에서 +1.17로서 최고 향상도를 나타내었고 나머지 생활태도면, 정서면, 지적인면 순으로 향상되었다. 이를 풀이하면 태권도 수련은 어린이의 사회성 향상에 가장 큰 효과가 있고 생활태도와 정서면에도 높은 효과를 가져오게 할 뿐 아니라 지적인면에까지 적지않은 효과를 올리는데 기여한다고 할 것이다.

4) 이를 종합해 볼 때, 특히 어린이에 있어서 태권도 수련이 신체 발달이나 기술 증진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신교육면에 까지도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태권도복에 관한 연구

김 숙 진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학위논문(1987. 5)

오늘날 스포츠 경기에서 스포츠웨어가 가지는 운동기능적, 생리적 쾌적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는 생체역학, 의학, 생리학 등의 과학적인 연구와 첨단기술이 가세하여 의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스포츠 장비라는 개념까지 등장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는 경기복뿐만 아니라 일반 트레이닝복에까지확산되어 소재나 구조에 관하여 보다 복합적인 사고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강도·신축성·내구성 등의 기본 성능만이 아니라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스포츠를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향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운동기능성과 생리적 쾌적성을 갖춘 태권도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태권도선수 260명을 대상으로 현행 태권도복의 신체적합성, 운동기능성 및 소재의 생리적 쾌적성 문제를 중심으로 태권도복의 착용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태권도 동작에 따른 상하반신(上下半身)부위의 생체(生體) 특색을 신체적합(身體適合)및 운동기능적(運動機能的)측면에서 살리고 생리적(生理的)으로도 보다 쾌적한 태권도복의 설계와 소재개발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태권도복의 착용실태조사를 보면

1.태권도복 소재의 생리적 쾌적성(生理的快適性)문제에서는 남녀선수 모두 소재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불만족한 경향은 여자선수에게서 더욱 높았다.

2.태권도복의 신체적합성(身體適合性)에서 신체부적합도는 여자선수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났고, 남녀선수 모두 상의보다는 하의에서 부적합도가 높게 나타나 현행 태권도복의 치수, 특히 하의 치수에 문제점이 있었다.

3.태권도복의 상하의 및 띠의 운동기능성, 신체적응성 그리고 착탈용이성(着脫容易性)에 대하여 남녀선수 모두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나 여자선수, 뚱뚱한 체형의 선수에게서 그 불편도가 높았으며, 구입형태에 있어서는 항상 사입는 경우에서 높았다.

태권도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변화량 측정결과

1.태권도 동작에 따른 상반신 체표면의 각 방향별 길이 신장(伸長)은 상반신보

다 대체로 크게 나타났고, 가로선이나 대각선보다 세로선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하지부(下肢部)로 갈수록 작았다.

가로선은 엉덩이둘레선과 대퇴상부둘레선에서 크게 신장(伸長)되었고, 세로선은 후면(後面)의 엉덩이둘레선과 대퇴1/2둘레선사이, 전면(前面)의 대퇴1/2둘레선과 하퇴둘레선사이에서 크게 신장되었다.

외측선에서는 허리둘레선과 대퇴상부둘레선사이, 하지내측선에서는 대퇴상부둘레선과 대퇴1/2둘레선사이에서 크게 신장되었다.

3.태권도 동작에 따른 상하반신(上下半身)체표면의 면적변화를 후면의 좌우견갑골부분, 대퇴상부둘레선과 대퇴1/2둘레선사이의 내측부분에서 특히 크게 신장되었고, 전후면 모두 가슴둘레선과 대퇴상부둘레선사이의 체간부에서 좀 더 신장되었다. 상지(上肢)에서는 팔꿈치둘레선의 상부가 크게 신장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보다 쾌적한 태권도복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1.태권도의 운동역학(運動力學), 운동생리(運動生理)에 맞는 소재에 대한 연구가 피복구성학적,피복위생학적으로 이루어져 생리적으로 보다 쾌적하면서도 태권도 동작에 다른 체표면의 전체적 부분적인 변화에 적응 할 수 있는 소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행 태권도복의 불필요한 여유량을 줄여 피복구조(被服構造)의 기능성을 살릴 수 있어 태권도복의 신체적합도(身體適合度)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무효작업량(無効作業量)으로 인한 피로나 생리적인 불쾌감도 줄일 수 있어 태권도복의 운동기능성(運動機能性), 생리적쾌적성(生理的快適性)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태권도복의 신체적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남녀 체형의 치수·형태상의 성차(性差)를 피복설계의 입장에서 정성(定性), 정량적(定量的)으로 파악하여 남녀의 체형차이에 따라 구별된 제품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태권도복의 신장에 의한 치수등급에 있어서도 상의에서는 가슴둘레, 하의에서는 엉덩이둘레 등과 같은 둘레항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치수등급도 보다 세분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상하의의 신체부적합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매형태에 있어서 착용자의 상하체 치수에 따라 상의, 하의를 따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소매길이와 바지길이 등을 구입시 착용자의 신체치수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검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운동기능성(運動機能性), 착탈용이성(着脫容易性)등을 위하여 상의의 앞목부분이 많이 파지고 앞 뒤 몸판이 겨드랑이 부분에서 부터 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나 입고벗을 때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고, 동작시 앞목부분이나 겨드랑이 부분으로 속 안이 보이게 되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으며, 띠의 신체적응성(身體適應性)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태권도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변화를 기초자료로 하여 형태미(形態美)와 기능성(機能性)이 합리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전 SLOOC 위원장 **노태우(13대 대통령 당선자)** 민정당 총재가 참석하여 현 SLOOC 부위원장인 김운용 국기원 원장과 태권도 발전을 위한 건배를 제창하고 있다.

체육계 인사는 물론, 정치 · 경제 · 문화등 각계의 인사 700여명이 참석하여 태권도의 세계화와 발전을 축하 하였다.

▲ I. O. C T. V 분과위원회 회의에 즈음하여 I. O. C 사마란치 위원장과 T. V 분과위원회 크로스 위원장 및 기타 위원들과 오찬을 같이한 김운용 총재(87. 10. 26)
On the occasion of the IOC TV Commission meeting at the IOC Headquarters Dr. Un Yong KIM dines with H. E. Mr. Samaranch, IOC President, Mr. Cross, Chairman of TV Commission and other members. (26 Oct., '87)

뉴 스

◀ 유고슬라비아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Mr. 멕칸로 비크와 사무총장 Mr. 벨직크가 김운용 총재를 방문 관심사에 의견을 교환(87. 9. 25)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of Yugoslavia Olympic Committee Mr. Mecanovic and Mr. Veljic visited Dr. Un Yong Kim at his SLOOC office and exchanged views on concerned matters. (25 Sep., '87)

뉴스초점

왼쪽에서부터 김운용회장, 가프너 IOC 사무총장(스위스), 쇼더 OIRT 사무총장(체코), 유스케비치 OIRT TV 위원회 부위원장(소련)
From left - Dr. Un Yong Kim, Mr. Gafner, Administrateur delegue, Mr. Codr, OIRT Secretary General, and Mr. Juskhevitshus, USSR.

88서울 올림픽방영권 협상의 주도역할을 해온 김운용 회장(IOC T.V분과 부위원장)은 지난1월 24일 체코프라하 OIRT(동구권 방송연맹) 본부에서 서울 올림픽 T.V 방영권 계약을 체결했다.

Dr. Un Yong KIM, President of KTA, who has played key role on TV Right in the SLOOC, has concluded the Seoul Olympic TV Right for the east European countries on 24 January in Praha OIRT Office.

제15회 캘거리 동계 올림픽대회에 앞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캘거리 컨벤션센타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 참석한 김운용(IOC 위원)회장 (중앙 사마란치위원장 좌측뒤 김회장)

Prior to the 15th Calgary Winter Olympic Games, IOC 93rd Session was held in the Calgary Convention Center on 9-11 February, 1988. Dr. Un Yong KIM, IOC Member, is seen behind H.E. President samaranch.

김운용 회장은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제13대 대통령취임식 축하 사절로 내한한 빅토르 마르티에즈 아르헨티나 부통령으로 부터 아르헨티나 정부 최고 훈장을 받았다.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세계아마츄어 스포츠와 아르헨티나 태권도 발전에 끼친 김회장의 공로를 인정하여 동 서훈을 수여한 것이다. (1988. 2. 26)

Dr. Un Yong KIM received from Argentine Vice President Dr. Victor H. Martinez the Argentine government's highest order at the Argentine Ambassador's office. This order was awarded to Dr. Kim for his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of amateur sports as well as Taekwondo in Argentine. Dr. Martinez came here to attend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13th President of Korea. (26 February 1988)

미국무성 더윈스키 차관보가 미국 태권도타임즈에서 선정한 「87년도의 인물」로 스포츠 발전에 공적이 큰 김운용회장에게 패를 전달하고 있다.

Dr. Un Youg KIM received the U.S.A's Taekwondo Times Hall of Fame "The Man of the Year 1987" plaque from Mr. Derwinski,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of U. S.A. (27 February 1988)

1988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대의원총회 전경

중앙대의원·권경욱

서울대의원·정관섭

부산대의원·권오현

대구대의원·박중화

중앙대의원·김순배

인천대의원·김광성

광주대의원·김주훈

경기대의원·안종웅

1988년도 정기대의원 총회가 1월 22일 오전 11시 체육회관 10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1987년 사업 및 결산, 1988년도 사업과 예산안이 승인되었다.

김운용회장은 태권도 발전의 6개항의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는 '88서울올림픽 시범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정식종목 채택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달성하자고 다짐했다.

감사보고를 하는 인창근 감사

강원도대의원 · 김성태

각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총회를 경청하고 있다.

대학연맹대의원·박충일

충북대의원·김윤환

중앙대의원 · 전재규

전남대의원·조영기

충남대의원·서기양

국교연맹대의원·서영준

중앙대의원 · 김용서

경북대의원 · 예조해

경남대의원 · 이순달

제주대의원 · 좌봉택

1987년도 결산 이사회의

1988. 1. 15

뉴서울호텔

87년도 결산이사회는 재적이사 17명중 10명 참석으로 성원되어 본회 황춘성 전무이사의 사회로개회, 인사말에서 김운용회장은 '87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88년도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며, 이제 태권도는 올림픽에 정식종목 채택의 문제가 남아있고, 스포츠 외교를 통해 동구권에도 적극적으로 태권도를 알리고 보급시켜야 됨을 강조하며 이사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토의 안건으로는 ○'8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중앙대의원 선출
○'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심의
○기타 안건등으로 토의 확정지었다.

제 8 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
—파견선수단—

KOREAN TEAM MEMBERS FOR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에서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총 25개국에서 500여명의 남여 선수단이 참가할 이번대회에 우리나라에서는 박 익단장을 비롯한 남여 국가대표선수 16명등, 22명의 선수단이 파견된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모든면에서 모범을 보임은 물론, 좋은 기량을 발휘해 세계의 지붕인 희말라야에 울려퍼진 애국가가 88서울 올림픽 태권도 경기장에 메아리 칠 날을 기대해 본다.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will be held on 23-25 March in Kathmandu, Nepal. In this championships it is anticipated that more than 500 players, male and female, from around 25 member nations will participate; the Korean team will consist of 22 players and officials headed by Mr. Park, Ik. The Korean team of Taekwondo mother country is expected to exhibit model manners throughout the championships as well as highest techniques to others and Korean national anthem will loudly echo over the Himalayas to the Seoul Olympic Taekwondo venue.

단장 · 박 익
Head of Team-Mr. Park, Ik

코치(남) · 강선장
Coach (Men) Mr. Kang, Seon-Jahng

감독 · 고국환
Manager Mr. Ko, Kuk-Hwan

코치(여) · 김영수
Coach (Women) Mr. Kim, Yeong-Su

트레이너(남) · 이용환
Trainer (Men) Mr. Lee, Yong-Hwan

트레이너(여) · 김경주
Trainer (Women) Miss Kim, Kyung-Joo

본회 황춘성 전무이사가 2월 22일 국가대표선수단입소식에서 선수단에게 격려 훈시를 하고 있다.

At the beginning of preparatory intensive training of Korean national team for the 8th Asian Taekwondo Championships Mr. Hwang Chun - Seong, Managing Director of KTA, is delivering an encouraging remarks to the members.

1988년도
국가대표선수 1차선발대회

2월3일~5일
상무체육관

대표선수 선서를 한 김병수(상무) 선수를 격려하는 김운용회장

88서울올림픽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참가 할 1차 선발전에서는 경량급에서 10대의 고교선수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전 국가 대표선수들이 탈락하는 등 불꽃튀는 접전이 계속 되었다.

1차선발의 관문을 통과한 체급별 우승자들, 이들은 기존 국가대표선수 및 지난해 우수 선수 선발대회에 우승자들과 함께 최종선발전을 갖는다.

입상자 명단

헤비급/ 김종석. 미들급/ 공두환,
웰터급/ 박용웅. 라이트급/ 김찬구
페더급/ 장 혁. 밴텀급/ 조영남
플라이급/ 정재정. 핀급/ 임창섭

1988년도 국가대표선수 최종선발대회

2월11일~12일 상무체육관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에 출전할 대표선수 1위자(위)와 2위자(아래)가 확정되었다. 1위자는 네팔 카투만드에서 거행하는 제 8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파견되며 이후 4월부터 다시 강화훈련에 참가하여 이들중 3~5회의 평가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1위 입상자
헤비급/ 김종석. 미들급/ 정용석
웰터급/ 정국현. 라이트급/ 이창건
페더급/ 장명삼. 밴텀급/ 조영남
플라이급/ 하태경. 핀급/ 권태호

2위 입상자
헤비급/ 김현일. 미들급/ 이계행
웰터급/ 김용수. 라이트급/ 박봉권
페더급/ 김병철. 밴텀급/ 지용석
플라이급/ 정재정. 핀급/ 임창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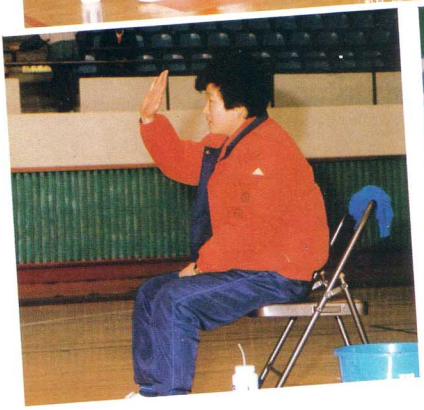
▲ 개인 우수상을 시상하는 국교연맹 김중영 부회장.

▲ 겨루기 부문 단체 우승을 차지한 청주 주성국교 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태권도의 지방시대의 문을 열었다.

◀서울에서 18개교, 지방 21개교에서 414명이 출전한 본대회 개회식에서 박준철(경기·문산국교) 선수가 대표선수 선서를 하였다.

▶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을 이끄는 임원들과 본대회 우승자의 모습은 밝은 내일의 태권도를 기약하며 ……

'88년도
여자국가대표선발대회

2월9일~10일, 상무체육관

'88서울 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여성태권도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심판원의 활약은 물론, 여성지도자들의 대거 출현으로 여성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으며, 본회에서도 국제대회에 여성코치를 파견하고 여성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